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春秋시기 제후 간 혼인의 정치적 성격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王 碩

# 春秋시기 제후 간 혼인의 정치적 성격

지도교수 김 병 준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王 碩

王碩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6월

위 원 장 \_\_\_\_\_(인)

부 위 원 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 국문초록

춘추시대는 엄격한 禮制를 가지고 있던 서주를 이어 ‘百家爭鳴’의 전국시대를 열어주는 중국 역사상 특별한 변혁기였다. 주왕실이 쇠미해져감에 따라 제후국 간의 전쟁과 패권 다툼이 빈번해졌고, 周 천자의 ‘天下共主’라는 이름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禮壞樂崩’의 추세는 점점 심해졌는데, 춘추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러한 禮制의 붕괴였다고 할 수 있다. 郡縣制가 점차 分封制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종법제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권력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예제와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昏禮者, 禮之本也.”로 표현될 만큼 혼례는 예로부터 중시되었고, 특히 귀족과 통치자계급에 있어서 혼인 의례는 더없이 중요하였다. 혼인관계는 사회활동에 광범위한 영향과 제약을 주었던 사회관계였다. 그것은 宗法윤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禮制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혼례 역시 춘추시대 禮制의 붕괴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패권 다툼의 과정에서 각국 제후는 자국의 세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종종 다른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고, 혼인외교 관계를 이어갔다. 정략 혼인은 종법제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는 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고,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혼인 당사국 사이의 정치적 안정과 교류 촉진에 기여했다. 이렇게 춘추시대 제후 혼인은 정치·군사·외교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제후의 혼인은 정치적이었으며, 혼인 외교 정책의 구현이었고, 혼인국 쌍방의 관계 및 당시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선행 연구에서는 춘추 제후 혼인의 이러한 주요 특징을 다루고 있고, 그 성과도 이미 상당하다. 특히 근래 많은 학자들은 선진시대 혼인 연구에 있어서 전래문헌 뿐만 아니라 靑銅銘文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선진 혼인의 정치성 문제에 대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기존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즉 제후 혼인이 지닌 정치성을 지적할 뿐 그 혼인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갖고 있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후국 간의 정략 통혼은 때로 ‘예물’ 증정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媵’의 여성을 딸려 보내는 것은 ‘예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면 당시 ‘예물’ 증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춘추시대 혼인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媵婚’에 주목하고, 혼인외교와 ‘贈禮외교’·‘질자외교’ 두 문제를 비교하여 당시 혼인이 어느 정도의 정치성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며, 춘추 제후 혼인의 정치성 특징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I 장에서 먼저 귀족층의 기본적인 혼인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제후 婚制·혼인의식·혼인대상의 선택 등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이다. 그 후에는 제후 혼인의 특수 형태인 ‘媵婚’에 대해 깊이 탐색하고 媵婚制의 특징·媵婚制 아래 제후 처첩 등급의 구분·媵婚이 제후국 관계와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 등의 방안을 살펴본 뒤 춘추 시대의 ‘媵婚制’와 그 정치 기능을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제후국 혼인의 정치성 정도를 파악할 것이다.

제 II 장에서는 제후 혼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 정도를 진일보하여 확정하기 위해 먼저 제후간 혼인의 특징에 대해 논술할 것이다. 각국 통혼의 정치 목적 및 그 의의를 분석하여 춘추 제후 혼인의 정치성 특징과 기능을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그 후에 춘추시대 각국의 贈禮외교와의 비교를 통해 제후 혼인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는 質子외교와 혼인외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강조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두 종류의 다른 외교 방식으로서 양자의 본질·기능·그 영향 등의 차이에 대해 고찰하여 각각이 춘추 외교에서 갖는 의의와 작용을 구명하고 나아가 춘추시기 제후 정략 혼인의 역사적 기능과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춘추는 서주의 婚制를 계승하여 ‘一夫一妻多妾制’를 실시하였다. 禮制에서는 天子·諸侯·卿大夫·士를 포함한 귀족 계층의 복잡한 혼례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親迎 등 ‘六禮’가 포함되며 혼인의 ‘禮’적인 특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춘추시대 제후들이 妻妾을 맞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聘則爲妻’, ‘奔則爲妾’, ‘婚’, ‘烝報’, 그리고 매매 및 전쟁 등의 폭력적 수단을 통해 빼앗아 혼인하는 형식 등을 포함한다. 제후국 간의 혼인은 대부분 정치적 혼인으로서 제후국 군주의 혼인은 종족의 내부 관계 및 집단의 이익 등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 이외에, 더 강한 정치성이 부여되었다. 말하자면 정치적 목적성은 당시 제후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었다. 이는 大國쪽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주로 軍事同盟을 맺어 정치연맹을 만드는 것, 盟約을 강고히 하고 정치연맹을 강화하는 것, 허점을 노려 상대국을 차지하기 위한 것 등이 그 목적이었다. 소국의 경우, 주로 대국에 의지하여 존립을 도모하기 위해 대국의 비호를 구하였다. 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었다.

춘추시대 제후의 정치혼인 중 ‘媵婚制’는 가장 눈에 띄는 형식이다. 제후가 딸을 시집보낼 때 서로 媵을 보내는 것은 당시 제후국 외교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춘추시대의 ‘媵婚’은 실제로 ‘同姓의 여자가 媵하는 것이지, 異姓은 그럴 필요가 없다. 무릇 시집 갈 때는 모두 媵하며, 媵하면 안 되는 건 없다.’이라는 상황이었다. 姪娣가 함께 시집가거나 타국에서 보낸 媵은 모두 자발적이었으며 혼인 당사국들이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제후의 혼인은 가문의 등급을 매우 중시하였다. 제후의 嫡女는 일반적으로 타국의 국군에게 시집을 가서 夫人이 되었고 庶女는 통상 媵이 되어 함께 시집갔다. 춘추시대 패권 다툼 속에서, 제후들의 저울은 예제질서보다는 자국의 이익으로 기울었고, 그들의 혼인은 자국의 이익을 지상과제로 삼는 특징을 보였다. 그런 까닭에 ‘同姓不婚’의 원칙이 깨지고 동성 간 혼인을 맺는 경우와 異姓이 와서 媵이 되는 상황이 비교적 많이 출현하였다. ‘媵婚’制는 춘추시대 귀족의 ‘一夫一妻多妾’婚制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등급구분은 당시 혼인예제와 종법제가 가진 상보적 관계의 체현이었다. 媵婚은 춘추시대 정치 혼인 중 충분히 두드러지는 지위를 점하였다. 그것은 同姓兄弟國 간의 종법관계를 견고히 하는데 유리하였고, 혼인 당사국 간의 政治軍事동맹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이 되었다. 이는 춘추시대 제후 혼인에 있어서 고정된

제도이자 일반적인 모습으로, 강한 정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제후가 딸을 시집보내는 것은 때로 ‘贈禮’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媵’이 되어 함께 시집가는 여자의 경우 ‘禮物’의 성질을 더욱 강하게 띤다. 禮物과 시집 간 딸은 모두 국가 간 관계를 조화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혼인외교는 딸에게 어느 정도 ‘禮物’의 의의를 부여하여 이루어지는 외교활동으로, 제후 혼인의 정치적 특징을 더욱 잘 드러낸다.

‘質子외교’는 춘추시대의 또 다른 외교 책략으로서 그 형식·목적·기능과 작용 등의 방면에서 혼인 외교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質子와 出嫁女子는 대부분 계획적이었고, 두 종류의 외교는 모두 강력한 정치적 목적성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방식은 모두 多方位의 地緣에 기초한 지니고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양자가 일으킨 작용은 모두 제한적이었는데 일정시기 내에서만 효과가 있었고, 평화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대국 패권다툼의 희생물이었다. 그러나 양자는 또한 두 가지 다른 성격을 지닌 외교방식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국가 간 통혼은 대부분 특정 나라가 관계를 개선하거나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주로 양국 간 직접적인 충돌이 없을 때 이루어졌다. 그러나 질자는 일반적으로 정벌을 피하기 위해 대국에게 부득이하게 보내는 것이었다. 이는 평화를 위한 것으로, 쌍방이 긴장관계 속에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하였다. 질자외교에 비해 혼인외교는 일종의 관계 완화를 위한 외교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더욱 쉽게 각국이 받아들였다. 또 양국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작용 역시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 중 媵婚은 또한 통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제후국 간 정치동맹을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 ‘舅甥之國’의 관계는 혼인국 간의 관계 안정에 더욱 효과가 있었으며 대체하기 어려운 작용이었다.

혼인외교·贈禮외교·질자외교는 모두 제후국이 政治聯盟을 맺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대국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실질적으로는 패권을 세우고 霸主

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3 가지 외교는 모두 국가 관계를 조정하고 列國紛爭을 해결하는데 무시 못 할 작용을 하였으며, 춘추시대 제후의 정치 혼인은 분명한 정치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주요어 : 春秋, 諸侯, 政治婚姻, 同姓不婚, 媵婚, 贈禮外交, 質子外交

학번 : 2015-22106



# 목 차

국문초록

서 론 .....	1
I. 춘추시기 제후 혼인의 형태 .....	6
1. 춘추시기 귀족층 婚制 .....	6
2. ‘媵婚’制의 성행 .....	24
II. 춘추시기 제후 간 혼인과 외교 .....	35
1. 제후 간 혼인의 특징 .....	35
2. 贈禮 외교와의 비교 .....	49
3. 質子와의 비교 .....	54
결 론 .....	68
참고문헌 .....	72
부 록 .....	80
中文摘要 .....	97

## 서론

춘추시대에는 엄격한 禮制를 가지고 있던 서주를 잇고 후에 ‘百家爭鳴’의 전국시대를 열어주는 중국 역사상 특별한 변혁기였다. 춘추시대 이후 周 왕실이 쇠미해져감에 따라 제후국 간의 전쟁이 빈번해지고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되었으며 周 천자의 ‘天下共主’라는 이름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禮壞樂崩’의 추세는 점점 심각하게 되어 춘추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禮制 붕괴의 과정에서 제후·卿大夫가 예법을 어기는 현상은 매우 보편화되었고, 또한 郡縣制가 점차 封建制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宗法制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권력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거의 모든 방면에서 현실과 예제가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婚禮는 禮의 근본”<sup>1)</sup>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중시되었고, 특히 귀족과 통치자계급에 있어서는 혼인의례가 더없이 중요하였다. 혼인관계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사회관계로서, 사회활동에 광범위한 영향과 제약을 주었다. 그것은 宗法윤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禮制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혼례 역시 춘추시대 禮制의 붕괴라는 현상 속에서 예와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춘추시대의 혼례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춘추시대 예제의 변동은 西周 왕실의 쇠락 및 각 제후국의 독자적 정치 지위 상승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혼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제후의 爭霸 과정에서, 각국 제후는 스스로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개인적인 정치적 지위의 발전을 위해 종종 다른 나라와 혼인을 맺는 방식으로 정치적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각국은 연이어 혼인외교 관계를 이어갔다. 정략 혼인은 종법 제도를 수호하고 공고하게 하는 데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일정 시기 동안 혼인국 간의 정치적 안정과 상호 교류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춘추시대 제후 혼인은 정치·군사·외교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분명하고 두드러진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춘추시대 제후 혼인의 기본

---

1)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正義』 「昏義」 第44, 北京: 中華書局, 1980, p.1890, “昏禮者, 禮之本也.”

적인 특징이다. 제후의 혼인은 국가의 정치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혼인 외교 정책의 체현이었고, 혼인국 쌍방의 관계 혹은 당시의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선행 연구에서는 춘추 제후 혼인의 이러한 주요 특징을 다루고 있고, 그 성과도 이미 상당하다. 기존의 연구는 선진 정략혼인에 대해 주로 제후국의 정략 통혼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 및 왕실과 제후국 및 제후 각국 사이의 구체적인 통혼 상황 등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선진 전반에 걸친 저작이 많아, 다루고 있는 범위가 시기적으로 비교적 길고 공간적으로 비교적 넓으며, 혼인제도·혼인형태·혼인禮俗·혼인관계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한다. 하지만 춘추시대 제후 각국의 기본적인 통혼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유효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예컨대 陳顧遠은 『中國婚姻史』<sup>2)</sup>에서 중국역사상의 혼인범위·혼인방식·혼인성립·혼인효력 및 혼인소멸 등의 문제를 깊게 탐구하여 중국의 시대별 혼인 형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학계에서는 정치외교적인 각도에서 선진 정략혼인의 목적과 의의를 세밀하게 탐구하였다. 예컨대 李成珪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각국 간 상호 무한 경쟁이 있었던 전국시대에 그 외교의 취지는 유동적인 노동력 균형의 변화에서 대상과 시기에 대한 어떠한 선택으로 가장 적당한 이익을 확보하였는지를, 또한 친선 도모를 형식으로 하는 혼인관계와 인질교환은 전쟁을 억제하고 배반을 저지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sup>3)</sup> 일본학계는 제후 정략 통혼의 성질과 근본적인 목적을 함께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예컨대 小林伸二은 제후국 간의 통혼이 양국의 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것 뿐 아니라 혼인과 관련된 제삼국과 성씨집단을 초월하는 동맹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고, 외교적인 혼인이 국가관계 및 霸者동맹의 多國 관계 중에서 서로 다른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였다고 지적하였다.<sup>4)</sup>

필자는 춘추시대 혼인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媵婚’에 주목

---

2) 陳顧遠, 『中國婚姻史』, 上海: 上海書店, 1984.

3) 李成珪, 「戰國時代 秦의 外交政策」, 『古代帝國的理解(第二卷)』.

4) 小林伸二, 「婚姻の紐帶」, 『大正大學研究論叢』13, 2007.

하고자 한다. 이미 陳顧遠은 고대 ‘媵婚’에 관한 연구에서 “媵이라는 것은 제도로서 춘추시대에 현저하였다. 그것이 귀족 혼인 중의 特例이며, 즉 一國 혹은 一姓의 여자가 시집갈 때 원칙적으로 반드시 同姓 여자를 같이 夫家에 보내고 그들이 從嫁 지위에 처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卿大夫들이 禮制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의 여자를 맞아서는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의 지위가 천자와 제후보다 낮아서 姪娣만이 隨嫁할 수 있다.”, “媵의 두 가지 형식은 다른 대상에 적용하는데 본국의 同姓 姪娣가 隨嫁하는 상황은 卿大夫에 적용하고 타국의 여자가 隨嫁하는 상황은 천자와 제후에 적용한다.” 등등을 지적하였다.<sup>5)</sup> 이러한 관점은 媵婚制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마련해주었다. 小林伸二도 제후가 타국에 여자를 시집보낼 때 제삼국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公女를 따라가 전송하는 ‘媵制’ 행위는 당시의 외교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sup>6)</sup> 대만학자 陳昭容은 周代 혼수품(陪嫁品·媵器)의 판정 문제에 대해 관련 논문을 지어 周代에 여자가 결혼할 때 同姓宗族의 연장자가 특별히 媵器를 제작해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同姓媵·異姓媵·姪娣媵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異姓媵女는 통상 主嫁國에 먼저 가고, 그 다음 主嫁國이 主嫁女의 夫國까지 보내 준다는 특징을 밝혔다.<sup>7)</sup> 이처럼 ‘媵婚’은 제후 일국의 신부에게 타국에서 여성을 딸려 보내는 혼인 형식이다. ‘媵婚制’는 서주시대에 생겨났고 춘추시대에 흥성하고 발전하여 춘추시대 혼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媵婚制’는 통혼관계 범위를 확대하고 혼인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군사·정치 동맹 등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전래문헌에 대한 연구와 이용 이외에도 근래 점점 많은 학자들이 先秦 혼인 연구에 青銅銘文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청동기 명문을 적극 활용하면서 춘추시대 ‘媵婚制’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5) 陳顧遠, 『中國婚姻史』, 上海: 上海書店, 1984.

6) 小林伸二, 「春秋時代の婚姻と外交」, 『大正大學研究紀要・人間學部・文學部』91, 2006.

7) 陳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青銅銘文中的性別、身份與角色研究」,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77本2分, 2006, pp.212-216.

그런데 기존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선진 혼인의 정치성 문제에 대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한계 또한 없지 않다. 즉 제후 혼인이 지닌 정치성을 지적할 뿐 그 혼인의 정치적 성격이 어느 정도 효용을 갖고 있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예컨대 제후국 간의 정략 통혼은 때로 ‘예물’ 증정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媵’인 여성을 딸려 보내는 것은 더욱 ‘예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예물’ 증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質子외교는 그 형식·목적·기능과 작용 등의 방면에서 혼인 외교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제후의 嫁女 및 상호 媵送은 贈禮와 質子 파견과 마찬가지로 모두 각국 교류의 매개가 됨으로써 국가관계와 자국의 이익을 조절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고, 따라서 제후 간 패권경쟁 시기에는 정치적 특징이 매우 현저했다. 본고는 혼인외교와 ‘贈禮外交’·‘質子外交’ 두 문제를 비교하여 당시 혼인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본고는 『春秋』 경전을 주된 근거로 삼고 『儀禮』·『周禮』·『禮記』 등의 문헌과 靑銅媵器銘文을 종합함으로써 기본 연구 목표이자 주요 내용을 춘추시대 제후 혼인의 정치성 정도 파악에 두고, 춘추 제후 혼인의 정치적 특징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 장에서 먼저 귀족층의 기본적인 혼인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제후 婚制·혼인의식·혼인대상의 선택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이다. 그 후에는 제후 혼인의 특수 형태인 ‘媵婚’을 분석하고 媵婚制의 특징·媵婚制 아래 제후 처첩 등급의 구분·媵婚이 제후국 관계와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 등의 방면을 살펴본 뒤 춘추 시대의 ‘媵婚制’와 그 정치적 기능을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제후국 혼인의 정치성의 수준을 파악할 것이다.

II 장에서는 제후 혼인의 정치성 수준을 진일보하여 확정하기 위해 먼저 제후간 혼인의 특징에 대해 논술할 것이다. 당시 각국의 기본적인 통혼 상황에 대해서도 정리할 것이다. 동시에 ‘周齊世婚’·‘齊魯世姻’과 같은 특별한 통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시 제후 혼인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 통혼의 정치적 목적 및 그 의의를 분석하여 춘추 제후 혼인

의 정치성 특징과 기능을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그 후에 제2절에서 춘추시대 각국의 贈禮외교와의 비교를 통해 제후 혼인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贈禮외교 성격과 禮制·왕실과 제후국 혹은 제후각국 간의 贈禮외교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贈禮와 혼인 두 종류 외교의 주요 목적이 모두 국가 간 관계 조정에 있었다는 특징을 명확히 할 것이다. II장 3절에서는 質子 외교와 혼인외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강조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質子 외교와 혼인외교는 모두 춘추시대 각국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 양자는 형식·목적과 그 영향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양자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당시 국제관계에 균형을 맞추고 국가 간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해명할 것이다. 또한 두 종류의 다른 외교 방식으로서 양자의 본질·기능·그 영향 등의 차이에 대해 고찰하여 각각이 춘추시대 외교에서 갖는 의의와 작용을 구명하고 나아가 춘추시대 제후 정략 혼인의 역사적 기능과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춘추시대 제후의 실제 혼인 상황과 그 혼인의 정치성 특징과 시대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혼인 외교가 당시 국가 관계와 국제질서에서 어떠한 작용과 영향을 주었는지를 명확히 하며, 제후 혼인의 정치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 춘추시기 제후 혼인의 형태

### 1. 춘추시기 귀족층 婚制

『禮記』「昏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婚禮는 두 姓의 好를 결합하는 것이며,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대를 잇는 것이다. 그래서 君子는 그것을 중시한다.”<sup>8)</sup> 고대에는 君子와 百姓이 모두 婚禮를 중시하였다. 또한 “존경하고 신중하고 공식적인 婚禮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것은 婚禮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남녀의 구별을 확정하고 부부 관계(夫唱婦隨)를 맺는다. 남녀가 구별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화목한 관계가 있다. 부부의 화목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 있다. 부자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기 때문에 君臣이 각각 그의 자리에 처한다.”<sup>9)</sup> 그래서 “昏禮라는 것은 禮의 본이다.”

춘추시대에는 서주의 婚制를 계승해 ‘一夫一妻多妾制’가 실행되었다.<sup>10)</sup> 妻, 婦는 夫와 동등했으며,<sup>11)</sup> 『春秋繁露』의 “妻는 夫의 배우자(合)라는 것”이라는 것과, 『禮記』「哀公問」의 “妻가 부모의 생전 사후라는 것을 부양(供養)하는 주부다. 감히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12)</sup> 라는 말은 妻가 남자의 공식적인 배우자를 가리켰음을 알려준다. 쫓은 원래 ‘죄가 있는 여자가 縣官에

8)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正義』「昏義」第44, 北京: 中華書局, 1980, p.1888, “昏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故君子重之.”

9)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正義』「昏義」第44, 北京: 中華書局, 1980, p.1890, “敬慎重正, 而後親之, 禮之大體, 而所以成男女之別, 而立夫婦之義也. 男女有別, 而後夫婦有義; 夫婦有義, 而後父子有親; 父子有親, 而後君臣有正.”

10) 어떤 학자는 ‘一夫一妻多妾’이라는 제도를 ‘一夫多妻制’로 보기도 한다. 이 때 ‘妻’는 ‘一夫一妻多妾制’에서 남자의 正式 배우자(즉 正室夫人, 嫡妻)의 ‘妻’를 가리킨다는 것과 달리 남자의 배우자(즉 統稱적인 妻)를 가리킨다. 춘추시대 귀족 계층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혼인 형식은 바로 ‘一夫一妻多妾’였다.

陳筱芳, 『春秋婚姻禮俗與社會倫理』, 成都: 巴蜀書社, 2000.

11) 許慎, 『說文』卷12下「女部」, 北京: 中華書局, 1985, p.412, “妻, 婦與夫齊者也.”

12)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正義』「哀公問」第27, 北京: 中華書局, 1980, p.1607, “妻也者, 親之主也, 敢不敬與?”

서 종사하는 자’, 즉 女奴를 가리켰으나 후에 妻 이외에 따로 얻은 側室을 가리키기도 했으며 隨嫁로 온 妾媵 등도 포함되었다. 제후는 공식적으로 한 명의 妻를 얻을 수 있었으나, 妾室은 여럿이 있을 수 있었으며, 두 명 이상의 妻가 있는 것은 ‘並后’현상으로 즉 ‘亂의 근본’이었다.<sup>13)</sup>

그러나 춘추시대의 실제 혼인이 모두 다 ‘一夫一妻多妾’형식은 아니었다. 결혼 당사자의 경제 상황이나 개인적인 요인 등 객관적·주관적 요소로 인해 당시 실제 혼인 형태는 다양했고, ‘一夫一妻一妾’, ‘一夫一妻’, ‘無妻妾’ 등의 혼인 형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대부분 하층 百姓 계층에서 나타났고, 상층 귀족 통치자들은 기본적으로 妻妾이 여럿이었다. 귀족들이 여자를 여러 명 차지하는 것은 ‘天下의 많은 남자들이 홀아비로 妻가 없는’ 상황을 만든 원인 중의 하나였다.<sup>14)</sup>

『儀禮』「士昏禮」에는 “너의 妻를 맞이하라. 우리 가족의 종묘 등을 계승한다. 또한 그에게 婦道を 지키고 先妣를 계승하는 것을 면려하고 이끌어 주며, 너는 시종여일하면서 태만해서는 안 된다.”<sup>15)</sup>라고 한다. 이를 통해 혼인의 직접적인 목적은 宗廟之事를 계승하는 것이며, 혼인은 禮法教化를 지키고, 妻가 婦道を 지켜 앞선 어머니(先妣)를 계승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一夫一妻多妾婚制의 주요 목적은 ‘위로는 종묘에 제사지내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것이었다. 一夫一妻多妾制는 가족 수의 증가에 유리하며, 종법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종족의 세력 강화와 종족의 정치 역량 보존에도 유리했

13) 楊伯峻, 『春秋左傳注』「閔公二年」, 北京: 中華書局, 1990, p.272, “狐突諫曰: 「媵妾과 后, 寵臣과 正卿, 庶子와 嫡子, 大城과 國都를 동일시하면 이것이 禍亂의 근본이다.」”

14) 孫詒讓 撰, 『墨子問詁』「辭過」第6, 北京: 中華書局, 2001, p.37, “當今之君, 其蓄私也, 大國拘女累千, 小國累百, 是以天下之男多寡無妻.”

경제적 문제로 수많은 하층 百姓들이 一妻 혹은 一妻一妾을娶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으로 빈곤한 자는 妻妾이 없을 수도 있었다. 또한 일부는 신체상의 문제로 인해 妻를娶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으나, 다만 극소수이다.

15) 鄭玄 注, 賈公彥 疏, 『儀禮注疏』「士昏禮」, 北京: 中華書局, 1980, p.120, “往迎爾相, 承我宗事. 勛帥以敬先妣之嗣, 若則有常.”



다. 종법 제도는 혼인 제도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된 것이며, 그 실질은 자연적인 혈연관계와 혼인 관계를 정치화하여 그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다.

周代 婚制 의례와 가장 밀접한 『儀禮』에는 天子·諸侯·卿大夫·士 등이 포함된 귀족 계층이 일상적으로 행한 禮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 「士昏禮」에는 중국 고대 婚禮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이 있다. 「士昏禮」에는 완전한 혼인 의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納采’<sup>16)</sup>, ‘問名’<sup>17)</sup>, ‘納吉’<sup>18)</sup>, ‘納徵’<sup>19)</sup>, ‘請期’<sup>20)</sup>, ‘親迎’ 등이 포함되며 후세에 이들을 ‘六禮’라고 불렀다.<sup>21)</sup> 陳鵬은 ‘六禮는 주나라가 남겨 놓은 禮制이고, 춘추시대에 제후나 大夫가 결혼할 때 종종 이를 따랐으니, 六禮가 갖추지면 혼인 관계가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았다.<sup>22)</sup> 많은 학자들이 周代에 六禮 婚俗을 실행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陳顧遠 또한 『詩經』 「大雅·大明」의 “文定厥祥, 親迎於渭”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文王 때에 이미 六禮의 단초가 있었다고 한다.<sup>23)</sup>

그러나 춘추시대에 六禮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다. ‘春秋三傳’에는 ‘六禮’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穀梁傳』에는 納采·問名·納徵·告期만 기록되어 있으며, 『左傳』에는 오직 納幣와 親迎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이에 대해 陳東原是 “「士昏禮」에 기록된 ‘六禮’처럼 정돈

16) 納采 : 남자 쪽에서 먼저 媒人을 시켜 여자 쪽에 혼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는 納采禮를 행한다. 여기서 雁을 求婚시의 禮物로 삼는다.

17) 問名 : 娉者가 나가서 제안을 말씀드리고, 예를 갖추어 雁을 執하여 여자의 성함을 물어본다는 것.

18) 納吉, 雁을 禮物로 하며, 禮節은 納采禮와 같다.

19) 納徵, 즉 男家가 女家에게 주는 財禮. 納幣·大聘·過大禮 등으로도 불렀다. 黑·紅 각각 5匹의 帛과 鹿皮 2張을 禮物로 하며, 禮節은 納吉禮와 같다.

20) 請期, 雁을 禮物로 삼음. 그 禮節은 納徵禮와 같다.

21) 陳可是 『周代昏禮初探』에서 귀족의 혼인 禮節을 상세히 정리했는데 즉:

1)納采, 2)問名, 3)醴使者, 4)納吉, 5)納徵, 6)請期, 7)將親迎, 預陳設, 8)親迎, 9)婦至禮成, 10)婦見舅姑, 11)贊者醴婦, 12)饋舅姑, 13)舅姑飧婦, 14)飧送者, 15)舅姑沒, 婦廟見 등 15 개 절차이다. 참조해도 된다.

22) 陳鵬, 『中國婚姻史稿』, 北京: 中華書局, 1990, p.186, p.200.

23) 陳顧遠, 『中國婚姻史』, 上海: 上海書店, 1984, p.151.

된 것은 춘추시대에 전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한 나라에서 시행했어도 열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귀족 계층에서 행해졌어도 아직 모든 민들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진정으로 ‘六禮’가 시행된 것은 漢代부터로, 전국시대 이후 사람들이 각 지역의 풍속을 수집해 『儀禮』에 기록한 뒤이다.”라고 지적한다.<sup>25)</sup> 陳筱芳도 당시의 실제婚禮는 ‘三禮’만 있었지 ‘六禮’가 아니며, 또한 ‘三禮’는 『士昏禮』의 소위 ‘六禮’ 중 納采, 納徵과 親迎禮였고, 問名, 納吉과 請期禮가 『左傳』에 안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논증했다. 하나는 춘추 때에 이 三禮(問名·納吉·請期)가 있었지만 六禮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아 『左傳』에 쓸 가치가 없었거나 쓸 것이 없었다는 것, 또 하나는 춘추시대에 원래 이런 독립적인 六禮가 없고 聘, 納幣와 逆女の 三禮만 있어 『左傳』에 당연히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陳筱芳은 두 번째 가능성에 기울어 있으며 그것이 더욱 역사적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sup>26)</sup> 필자는 陳東原의 관점을 채용하되 그것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六禮’는 禮制가 가장 엄격한 서주시대에 상층 귀족 계층에서 성행했다가, 춘추에서 전국 시기에 이르며 예약이 붕괴했고, 혼인 의례가 번잡했기에 시대의 추세에 따라 일부 결혼 절차가 빠지게 된 것이다.

六禮는 ‘親迎’禮를 가장 중시한다.<sup>27)</sup> 천자·제후 및 卿大夫의 지위가 다르기에, 그들의 ‘親迎’의례 또한 차이가 있었다. 迎娶禮에 대해 살펴보면, 『春秋』에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傳】四月甲辰，鄭公子忽如陳逆婦媯。辛亥，以媯氏歸。甲寅，入於鄭。陳金鉞子送女。先配而後祖。<sup>28)</sup>

24)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90, p.55, p.219.

25)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上海: 上海書店, 1984, p.24.

26) 陳筱芳, 『春秋婚姻禮俗與社會倫理』, 四川: 巴蜀書社, 2000, p.43.

27) 鄭玄 箋, 孔穎達 疏, 『毛詩正義』卷第16, 北京: 中華書局, 1980, p.1139, “六禮唯親迎為重, 迎尚身自親之, 餘禮行之可知, 故言備也.”

28) 楊伯峻, 『春秋左傳注』 「隱公八年」, 北京: 中華書局, 1990, pp.58-59, “4월 初六날에 鄭公子 忽이 陳國에 가서 妻 媯氏를 맞이하였다. 13일에 媯氏를 데리고 돌아

【經】冬，王姬歸於齊。【傳】冬，齊侯來逆共姬。29)

【經】秋九月，齊高固來逆叔姬。【傳】秋九月，齊高固來逆女，自為也。故書曰：「逆叔姬」，卿自逆也。30)

逆은 맞이하는 것으로, 즉 아내를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통상 卿大夫등 일반 귀족 계층이 妻를 맞이할 때는 기본적으로 親迎禮를 행했다. 천자는 지위가 가장 높기에 后를 맞이할 때 親迎을 하지 않았고, 卿大夫로 하여금 대신 맞이하도록 했다. 제후의 혼례는 아내를 맞이하는 상황이 다소 복잡했는데, 주로 卿大夫(혹은 夫人<sup>31)</sup>)가 여자측 집에 가서 대신 맞이하는 것과 제후가

왔다. 16일에 鄭國에 들어왔고 陳鍼子가 嬀氏를 鄭國까지 보냈다. 먼저 혼례를 올리고 그 다음에 告祭祖廟하였다.”

29) 楊伯峻, 『春秋左傳注』 「莊公十一年」, 北京: 中華書局, 1990, pp.186-189, “겨울에 齊桓公이 魯國에 와서 共姬를 맞이하였다.”

30) 楊伯峻, 『春秋左傳注』 「宣公五年」, 北京: 中華書局, 1990, pp.685-686, “가을 9월에 齊大夫 高固가 叔姬를 맞이했는데, 스스로 한 것이다. 그래서『春秋』에 ‘逆叔姬’라고 기록했다. 이는 卿이 직접 迎娶했기 때문이다.”

注: ‘冬, 來, 反馬也.’ 겨울에 高固와 子叔姬가 魯國에 왔는데 ‘返馬’라는 혼인 禮節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春秋 및 경전 중에 기재된 ‘反馬’는 이 기사에만 있다. 反馬禮가 『儀禮』와 『禮記』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를 杜預는 “禮, 送女留其送馬, 謙不敢自安, 三月廟見, 遣使反馬, 高固遂於叔姬俱寧. 故經傳具見以示譏.” 예에는 여식을 보낼 때 보낸 말을 남겨두는데, 꺼리고 감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3월에 조현할 때에 사절을 보내 말을 돌려드리고 나서야 고고가 비로소 숙희와 더불어 편안하게 여겼다. 그런고로 경전에서는 이를 갖추어 보여주어 꾸짖은 것이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후로 이른바 ‘反馬’은 남자쪽(大夫 이상)이 친히 가거나 남을 시켜(혹 혼례 후 3개월 내에) 여자쪽에서 신부를 보내는 수레에 매어둔 말을 여자쪽에 돌려주어 오래도록 혼인이 이어지도록 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31) 楊伯峻, 『春秋左傳注』 「僖公二十五年」, 北京: 中華書局, 1990, p.429, “宋蕩伯姬來逆婦.” 何休 解詁, 徐彥 疏, 『春秋公羊傳注疏』 「僖公二十五年」, 北京: 中華書局, 1990, p.291, “宋蕩伯姬라는 사람이 누군가? 蕩氏의 母다. 왜 그가 婦를 來逆하는가? 兄弟의 辭다. 그가 婦를 무엇이러 부르는가? 姑라고 한다.”

胡廣 等撰, 『欽定四庫全書』春秋大全卷15「僖公下」: “‘宋蕩伯姬來逆婦’라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그가 언급한 婦가 누구인가? 姑이다. 杜氏는 ‘伯姬는 魯女이고 宋大夫 蕩氏의 妻이다. 직접 그의子を 위해 婦를 來逆하는 것을 婦姑存之辭라고 한다. 婦人이 越竟하여 逆婦하는 것은 非禮이기에 書에 기록한다’라고 했다.

직접 맞이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다. 그 중 제후가 직접 맞이하는 것은 보통 특수한 이유가 있는데, 『春秋』를 살펴보면 세 군데에서 그것이 보인다.

【經・莊公十一年】冬，王姬歸於齊。【傳】冬，齊侯來逆共姬。<sup>32)</sup>

【經・莊公二十四年】夏，公如齊逆女。

【傳・僖公二十四年】晉侯逆夫人嬴氏以歸。秦伯送衛於晉三千人，實紀綱之仆。

이 제후가 親迎하는 이 세 부분을 분석해보면 모두 특수하다. 『左傳』에는 또한 “卿이 맞이하지 않으면 非禮이다”<sup>33)</sup>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통해 제후의 혼인시 대부분 卿大夫가 대신 맞이하여, 이 점은 천자와 같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莊公11년 齊 桓公이 魯國으로 와 왕실의 共姬를 맞이한 사례에 관해, 楊伯峻이 ‘舊禮에 의하면 천자 이외에는 取妻할 때 반드시 親迎해야 한다. 그러나 『春秋』에는 제후가 夫人을 맞이하는 기록이 없기에, 제후들이 親迎할 때는 보통 國境을 벗어나지 않으며, 그럴 경우 卿으로 하여금 代迎하도록 했다고 추측된다.’<sup>34)</sup>라고 한 관점은 부족한 면이 있다. 『公羊傳』·『穀梁傳』의 ‘譏不親迎’라는 것은 제후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公羊傳』 중 소위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응당 親迎한다는 관점은 부정확하고, 『左傳』에 기록된 “王은 尊한 자로서 지위가 대등한 자 없어서 親迎하지 않

32) 張石川의 관점에 따르면, 여기서 다른 일반적인 제후들의 娶妻와 齊 桓公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3가지 있다: 첫째는 共姬가 周王室의 女로서 지위가 매우 높아 齊 桓公이 親迎하고 人臣之禮를 행했다는 것. 둘째는 婚禮를 魯國이 主婚하고 齊에 譴嫁했기 때문에 齊桓公이 周室까지 가지 않고 魯國에 와서 맞이했다는 것. 셋째는 齊 桓公이 九合諸侯(모든 제후를 회맹질서로 포함)를 표방했기에 왕실의 여자를 親迎함에 정치적인 의의가 컸다는 것.

張石川, 「春秋經傳所見婚姻及其制度」, 『南京師範大學碩士論文』, 2003.05.

33) 楊伯峻, 『春秋左傳注』 「文公四年」, 北京: 中華書局, 1990, p.533, “逆婦姜於齊, 卿不行, 非禮也.” 즉: 齊國에서 婦姜를 맞이해야 하는데 魯國의 卿이 가지 않았으니 이것이 非禮라는 것이다.

34)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90, p.97.

는다.”<sup>35)</sup>는 춘추시대의 실상이었다.

제후의 혼인은 남자 쪽에서는 ‘逆’이라 하고, 여자 쪽에서는 ‘送’<sup>36)</sup>이라 했으며, 혼인하는 여자는 스스로 말하길 ‘歸’라고 했다. ‘歸’는 여자가 시집간다는 것이다.<sup>37)</sup> 『左傳』에서는 이러한 歸宗제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무릇 제후의 딸이 娘家로 돌아가 省親하면 ‘來’라고 불리고, 夫家로부터 休棄당하면 ‘來歸’라고 불리고, 娘家로 돌아가 편히 지내기를 청하면 ‘歸寧’이라 불린다. 본국 國君의 夫人이 娘家로 돌아가면 ‘如某’라 불리고, 休棄를 당하면 ‘歸於某’라 불린다.”<sup>38)</sup>라고 규정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經·成公五年】五年春王正月，杞叔姬來歸。

【經·成公九年】二月伯姬歸於宋。

【詩經·國風·邶風·燕燕】之子於歸，遠送於野。<sup>39)</sup>

춘추시대 제후의婚禮는 남자 쪽이 ‘親迎’의 禮를 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 쪽의 어른에게 사람을 보내 여자를 남편의 집으로 데려오는 상황에서도 관련된 禮制 규정이 있었다. 예컨대 『左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齊侯送姜氏於謹，非禮也。凡公女嫁於敵國，姊妹則上卿送之，以禮於先

35) 鄭玄 箋, 孔穎達 疏, 『毛詩正義』十六之二, 北京: 中華書局, 1980, p.1139, “左氏說王者尊, 無體敵之義, 故不親迎.”

36) ‘送’과 관련된 것은 ‘致’다. 예컨대 成公 9년 “二月, 伯姬歸於宋. 夏, 季孫行父如宋致女.”(『春秋左傳正義』「成公九年」, p.845) 등. 致女는 送女와 달리 致女라는 것이 제후가 嫁女할 때 大夫로 하여금 隨加하여 聘問하게 하는 것이고, 즉 이른바 ‘存謙敬、序殷勤’이라는 것. 致女는 送女한 후에 하는 것이다. 送女와 마찬가지로 ‘致’도 신분과 지위를 중시하고 보통적으로 卿大夫가 行하는 것이다.

37) 許慎, 『說文』, 北京: 中華書局, 1985.

38)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莊公二十七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327, “凡諸侯之女, 歸寧曰來, 出曰來歸. 夫人歸寧曰如某, 出曰歸於某.”

39) 王秀梅 譯注, 『詩經』「國風·邶風·燕燕」, 北京: 中華書局, 2006, p.35, 즉 “니가 오늘 시집갈 건데 郊野까지 멀게 보내겠다.”

君；公子，則下卿送之。於大國，雖公子，亦上卿送之。於天子，則諸卿皆行，公不自送。於小國，則上大夫送之。<sup>40)</sup>

제후의 親送은 『左傳』에 두 차례 출현하는데, 桓公 3년의 ‘齊侯가 姜氏를 謹으로 보냈다’와 昭公 5년의 ‘晉侯가 딸을 邢丘로 보냈다’가 그것으로 당시에는 이를 ‘非禮’라고 보았다. 이 두 차례 親送의 원인은 서로 다른데, 齊侯의 親送은 齊 襄公과 文姜이 사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晉侯는 楚와의 연고를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禮記』에는 남녀 혼인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약이 있다. 우선, 여자는 ‘避嫌守倫’해야 하는데, “여자가 이미 혼인을 약조하여 집안을 두게 되면 纓을 달아 이미 속한 곳이 있음을 밝히고, 특별하고 중대한 일이 없으면 外人이 가벼이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姑·姐·妹·딸이 이미 出嫁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兄弟들은 그들과 같이 앉지 말고 같이 식사하지 않는다.”<sup>41)</sup>라는 것이다. 그 다음, 君家の 중매로 혼인해야 했다. 「曲禮上」에는 “男女 상호간에 媒人을 쓰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름을 모른다. 여자 쪽이 財禮를 받지 않으면 남녀 쌍방이 서로 왕래할 수 없고 친할 수도 없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孔穎達은 주석하길 “먼저 媒氏가 결혼하는 의도를 行傳하고나서 名을 알게 된다.”<sup>42)</sup>이라 하여 “명확히 중매자를 두고 正娶하면 六禮가 다 갖추어지니 夫와 대등한 正妻다. 중매인 없이 스스로 통구하면 六禮가 갖추어지지 않았

40)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桓公三年」, 北京：中華書局, 1980, pp.183-184, 즉 “무릇 본국의 公室 女子가 同等한 國家에 시집갈 때 國君의 자매 일 경우, 上卿이 그를 護送하여 前代 國君에 대한 예를 표한다. 國君의 딸일 경우, 下卿이 그를 護送한다. 大國에 시집가면 國君의 딸이라도 또한 上卿이 그를 護送한다. 천자에 시집가면 여러 大臣들이 모두 護送하고 國君이 직접 護送하지 않는다. 小國에 시집가면 上大夫가 그를 護送한다.”

41)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正義』 「曲禮上」, 北京：中華書局, 1980, p.59, “女子許嫁, 纓, 非有大故, 不入其門. 姑、姊、妹、女子子已嫁而反, 兄弟弗與同席而坐, 弗與同器而食.”

42)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正義』 「曲禮上」, 北京：中華書局, 1980, p.59, “見媒往來傳昏姻之言, 乃相知姓名.”

기에 賤妾이다.”<sup>43)</sup>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聘’禮의 중시, 즉 소위 ‘媒妁之言’을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同姓不婚’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된다. 예컨대 『禮記』 「大傳」에는 또한 “한 正姓으로 이어져 갈라지지 않았고, 먹을 때에 함께하며 완전히 다르지 않으니, 선조로부터 이미 百代의 차가 있더라도 서로 통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周代의 禮制였다.”<sup>44)</sup>라는 내용이 보인다. 넷째로 ‘稱謂有等’에 주의한다. 「曲禮下」에서는 “天子的 妃는 后라고 불리고, 諸侯의 경우는 夫人이라고 불리고, 大夫의 경우는 孺人이라고 불리고, 士의 경우는 婦人이라고 불리고, 庶人의 경우는 妻라고 불리운다. 天子는 夫人, 世婦, 嬪, 妻, 妾이 있으며, 公侯는 夫人, 世婦, 妻, 妾이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媵御婚制<sup>45)</sup>를 규정한다. 이는 춘추시기 및 周代 상층 귀족 혼인 전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여섯째, ‘五不娶’를 요구했다. 이는 여자의 婦德에 대한 요구로, 즉 ‘逆, 亂, 刑人, 惡疾, 年長愆期者’의 다섯 종류의 여자는 아내로 맞이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었다.<sup>46)</sup>

『禮記』에는 ‘同姓不婚’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 禮制의 원칙으로서 ‘同姓不婚’은 서주 초기에 확립된 것으로 周人이 족외혼을 할 때에 남긴 규정이었다. “男女 同姓이 결혼하면 그들의 子孫이 昌盛할 수 없다.”<sup>47)</sup> “同姓 男女가 서로 결혼하지 않으면 惡疾이 있는 子孫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sup>48)</sup> 등의 근거로, 周人은 엄격히 同姓간의 혼인을 금지했다. 周初에는 종법제도가 완비되었고, 동성을 형제의 나라로 강조하여 ‘藩屏王室’하게 하

43)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正義』 「內則」, 北京: 中華書局, 1980, p.1015, “聘則為妻, 奔則為妾.”

44)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正義』 「大傳」, 北京: 中華書局, 1980, p.1171, “繫之以姓而弗別, 綴之以食而弗殊, 雖百世而昏姻不通者, 周道然也.”

45) 御, 즉 妻妾嬪妃들이 천자·제후에 대한 侍夜 勸息 제도이다.

46) 王聘珍 撰, 『大戴禮記解詁』 「本命」 第80, 北京: 中華書局, 1983, p.255, “逆, 謂悖逆, 亂, 淫亂也. 刑人, 謂以罪受墨, 劓, 宮, 剕, 髡刑者. 惡疾, 謂瘡, 聾, 盲, 癘, 禿, 跛, 傴, 不逮人倫之屬也. 喪婦長子, 謂父喪其婦, 其女子年長愆期者也.”

47)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僖公二十三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472, “男女同姓, 其生不蕃.”

48) 『國語』 「晉語四」,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p.349, “同姓不婚, 惡不殖也.”

였으며, 同姓不婚을 요구하고, 혼인으로 이성제후와 결합해 생질의 나라가 되게 하였다. 周公은 종법제도와 정치제도를 서로 결합하여, 귀족 통치계급을 뒷받침하는 상층 구조를 완비하였다. 周 천자는 천하의 大宗으로, 姬姓諸侯를 小宗으로 분봉하였다. 이 제후들은 자신의 封國 내에서는 또한 大宗이었고, 그 동성 卿大夫가 小宗이 되었다. 이들이 천자를 정점으로 점차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의 종법체계를 이루었다. 周代 同姓諸侯를 분봉한 목적 중 하나는 이렇게 혈연의 결속을 통한 정권구조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天下共主’의 통치를 굳건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同姓不婚’하에서도 왕왕 존재했던 이성제후 친속간 통혼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시 유전학에 대한 인식이 감성적인 층위에 머물러 있었고,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인식하지 못했으며,<sup>49)</sup> 모계 친족과의 혼인이 비교적 은폐되기 쉬웠기 때문으로 본다. 이는 당시 同姓 통혼이 동일 宗族의 姓을 가진 남녀간 혼인, 즉 동성 친족 간의 혼인을 금지할 뿐, 이성 친족 간의 근친 통혼을 금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고종, 외종, 이종 친족 간의 혼인 형식이 모두 이 원칙을 피해갈 수 있었고 그들은 혼인 쌍방 간의 혈연관계가 매우 가까움에도 同姓同族이 아니었으므로 실제 혼인에서는 외척혼이 다수 존재했다.

어떤 학자는 外族과의 교류가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 외척혼이 결혼 자원을 늘려주고, 각국 大宗의 번영과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sup>50)</sup> 확실히 그러하며, 춘추시기 제후의 혼인 목적을 보면, 국가를 상징하는 제후국 군주의 혼인은 해당 종족의 내부 관계와 집단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정치적 목적성이 부여되었다. 그들은 보통 다른 제후국과의 통혼이라는 방식을 통해 맺어진 혼인 관계 위에서 해당 宗族 및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군사동맹을 이루었고, 나아가 자신의 정권 통치와 국가의 이익을 공고히 하였다.

49) 당시에 ‘同姓不婚’에 대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인식 수준에 달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인구의 증식 및 그 양과 질의 제고 등은 의식되고 있었다.

50) 高兵, 『周代婚姻形態研究』, 巴蜀書社, 2007, p.33.



제후들이 妻妾을 맞이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첫째, 일반적으로 혼인 의례를 통해 정식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聘則為妻’이다. 이는 천자부터 일반 귀족까지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본 부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맞이하였다. 예컨대 ‘周桓王逆王后於紀’<sup>51)</sup>; 文公 원년에 ‘魯文公遣公子遂如齊納幣’, 文公 4년에 ‘夏, 逆婦姜於齊’;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정식으로 正室을 맞이할 때 종종 함께오는 媵이 있었는데, 소위 ‘媵婚’제도이다. 이는 또한 춘추시대 귀족 혼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예를 들어 韓侯가 妻를 맞이할 때의 ‘諸娣從之’; 魯穆伯이 妻를 맞이할 때의 ‘娣 聲己가 陪嫁하였다.’<sup>52)</sup>; 등이 있다. 셋째로, ‘奔則為妾’이다. 예로는 魯國 泉丘人의 딸이 “僖子에게로 私奔하고 그 僚도 함께 갔다.”<sup>53)</sup>; 楚王이 蔡國에 있었을 때 ‘鄆陽 封人의 딸이 그에게 私奔하여 太子 建을 낳았다.’ 등이 있다.<sup>54)</sup> 넷째, 전쟁 혹은 기타 무력수단을 통해 강탈하는 경우이다. 邾와 郈가 싸워 郈가 패하자, 郈君이 “그 妻 및 子女에 따라 邾나라에 가자, 邾 莊公이 郈君의 夫人을 돌려주고 그 딸을 남겨 두었다.”<sup>55)</sup> 등의 예가 있다. 마지막은 ‘烝報’婚으로, 後人들은 이를 轉房, 즉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그 庶母를 처로 삼는 것;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처로 삼는 것; 삼촌이 죽으면, 조카가 그 숙모를 처로 삼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桓公 16년 ‘衛 宣公은 夷姜을 報하는 일’에 대해, 杜預는 ‘夷姜이 宣公의 庶母이다’라고 주석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귀족들의 ‘一夫一妻多妾’ 혼인 형식의 주요한 수단이었다.

제후들은 정식으로 妻를 취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妾室을 취

51)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桓公八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214, “祭公來, 遂逆王后於紀.”

52)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文公七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599.

53)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昭公十一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480, “遂奔僖子, 其僚從之.”

54)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昭公十九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590, “楚子之在蔡也, 鄆陽封人之女奔之, 生太子建.”

55)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昭公十八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585, “從帑於邾, 邾莊公反郈夫人, 而舍其女.”

했다. 좋아하지 않는 妻는 쫓아낼 수 있었고, 좋아하지 않는 妾은 또한 쫓아내거나, 남에게 주거나, 심지어 살해할 수도 있었다. 쫓겨난 妻妾은 과부와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改嫁할 수 있었으며, 제후들은 再嫁한 여성을 妻로 삼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여성의 再嫁는 당시에 일상적인 일이었다<sup>56)</sup>

춘추시대 혼인 규정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자유로웠다. 남자는 여러 여자를 맞이할 수 있었고, 여자 또한 再嫁할 수 있어 再嫁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儀禮』 「喪服」에는 “夫가 죽었는데, 婦가 젊고, 子가 어리며 大功之親이 없을 경우 妻가 再嫁할 수 있다.”<sup>57)</sup>이라 되어 있으니, 즉 남편이 사망하고 자식이 어려 의지할 곳이 없을 경우, 여자는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춘추가 서주의 夫權을 본위로 하는 체제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혼은 통상적으로 남자 쪽이 제기했으며 여자는 이런 권리가 없었다. 『儀禮』 「喪服」의 “出妻之子爲母”에 대한 賈公彥의 疏는 “七出 이라는 것은 즉 無子, 淫佚, 시 부모를 모시는 것, 口舌, 도둑질하는 것, 질투, 악질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sup>58)</sup> 따라서 여자가 그 중의 어떤 하나의 항목이라도 위반할 경우 남편의 집에서 버림받는 것이다. 이렇게 버림받는 경우를 陳顧遠은 혼인의 ‘人爲消滅’, 즉 ‘이혼’이라 규정하였다. 그는 ‘재혼’을 혼인의 ‘自然消滅’이라고 부르며, 당시에 혼인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남녀 혼인 관계가 해체되는 이러한 특수 상황의 발생이 ‘婚姻消滅’이라고 하였다.<sup>59)</sup>

앞서 서술 중 제후가 妻妾을 맞이하는 수단 중, 비교적 특수한 방식인 ‘烝報’婚을 언급했다. 上淫(下淫上)을 烝이라 하며 季父의 妻와 淫한 것을 報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이다. ‘烝報’婚에 대해서 『左傳』에 총 여섯 군데의 기록

56) 顧頡剛 著, 童書業 撰, 『國史講話：春秋』, 上海人民出版社, 2015.

57) 鄭玄 注, 賈公彥 疏, 『儀禮注疏』卷第31「喪服」, 北京：中華書局, 1980, p.674, “夫死, 婦穉, 子幼, 子無大功之親, 與之適人.”

58) 鄭玄 注, 賈公彥 疏, 『儀禮注疏』, 北京：中華書局, 1980, p.659, “七出者：無子一也；淫佚二也；不事舅姑三也；口舌四也；盜竊五也；妒忌六也；惡疾七也.”

59) ‘婚姻消滅’은 혼인의 인위적 소멸과 자연적 소멸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陳顧遠, 『中國婚姻史』, 上海：上海書店, 1984, pp.223-251.

이 있는데, ‘烝’ 다섯과 ‘報’ 하나이다.

【傳·桓公十六年】初，衛宣公烝於夷姜，生急子，屬諸右公子。為之娶於齊，而美，公娶之，生壽及朔，屬壽於左公子。<sup>60)</sup>

【傳·莊公二十八年】晉獻公娶於賈，無子。烝於齊姜，生秦穆夫人及太子申生。<sup>61)</sup>

【傳·閔公二年】初，惠公之即位也少，齊人使昭伯烝於宣姜，不可，強之。生齊子、戴公、文公、宋桓夫人、許穆夫人。<sup>62)</sup>(第一任丈夫：衛宣公,第二任：衛昭伯(宣公庶長子)。宣姜之妹：文姜,嫁魯桓公)

【傳·僖公十五年】晉侯烝於賈君，又不納群公子，是以穆姬怨之。<sup>63)</sup>

【傳·成公二年】王以予連尹襄老。襄老死於郟，不獲其尸。其子黑要烝焉。<sup>64)</sup>

【傳·宣公三年】(鄭)文公報鄭子之妃曰陳嬀，生子華、子臧。<sup>65)</sup>

60)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桓公十六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239, 즉“당초, 衛 宣公은 父의 姬妾 夷姜과 私通하고 急子를 낳았다. 衛 宣公은 急子를 右公子에게 부탁하여 기르고, 急子에게 齊國에서 妻를娶하였다. 그 여자가 매우 예뻐서 宣公은 자신이 그를娶하고 壽와 朔을 낳았으며, 壽를 左公子에게 부탁하였다.”

61)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莊公二十八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329-330, 즉“晉 獻公은 賈國에서 妻를娶했으나 子를 얻지 못했다. 그는 齊姜과 私通하여 秦穆夫人과 太子 申生을 얻었다.”

62)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閔公二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356, 즉 “당초, 衛 惠公은 젊을 때 즉위했는데, 齊에서는 昭伯으로 하여금 宣姜과 私通하게 하고 昭伯의 동의 없이 그와의 결혼을 강요하였다. 齊子·戴公·文公·宋桓夫人·許穆夫人을 낳았다.”

63)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僖公十五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428, 즉“晉 惠公은 賈君과 通奸하고 公子들을 귀국시키지 않아서 穆姬가 그를 원망하였다.”

64)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成公二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810, 즉“楚 莊王은 夏姬를 連尹襄老에게 주었다. 襄老가 郟地 戰役에서 죽고 시체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의 子 黑은 夏姬와 私通하였다.”

65)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宣公三年」, 北京: 中華書局, 1980,

춘추시대 ‘烝報’ 혼인 방식에 대한 연구로 顧頡剛은 ‘烝’이라는 것은 춘추 시대에 사회적인 기반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공인된 일종의 가정제도였다고 보았다. 아울러 ‘烝’은 동서남북에 위치한 齊·晉·楚·衛 4국에서 모두 출현했고, 중원의 鄭나라에서도 ‘報’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으므로, ‘烝報’혼은 춘추시대의 흔히 보이는 혼인 禮俗이었을 것으로 보았다.<sup>66)</sup>

이외에도, ‘私通’이라는 또 하나의 현상이 『春秋』에서 종종 출현한다. ‘私通’은 제후 계층뿐만 아니라 卿大夫 및 왕실에서도 출현했다. 예를 들어 晉大夫 欒桓子の 妻 欒祁는 家臣 州賓과 私通하였고, 齊 頃公의 부인 聲孟子는 魯大夫 叔孫僑如와 私通했으며, 周 襄王의 后 隗氏도 甘昭公과 私通한 일이 있었다. ‘私通’은 당시에 비록 禮에서 벗어난 행위였으나 춘추시대 귀족들의 非禮姦淫 사건은 무수히 많았다.

제후 妻妾의 지위 등급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당시 혼인제도 하에서는 嫡妻의 지위가 가장 높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左傳』에는 嫡夫人을 守適으로 부른 경우가 있는데, 즉 內宮을 지키는 자를 長으로 삼는 것이다. ‘(작위와 재산의 상속자들) 세울 때 지위가 貴함으로 정하고 長함으로 정하지 않으며, 嫡子는 여러 명이 있을 경우 長함으로 정하고 賢함으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적장자 세습 제도에 따르면, 태자의 선정은 그 어머니의 출신과 지위에서 결정된다. 嫡妻가 낳은 자는 嫡子로 제후 작위의 상속자이다. 예컨대 隱公 원년에 惠公의 元妃인 孟子가 사망하고 聲子가 妻室을 계승하여 隱公을 낳았고, 그 후에 또 仲子를 아내로 맞이해 桓公을 낳았다. 『史記』 「魯世家」에는 聲子가 賤妾이므로 仲子가 惠公과 결혼하고 嫡妻가 되었으며, 그래서 桓公은 나이가 어리지만 태자가 되었고, 이것이 ‘立子以貴不以長’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러나 嫡妻가 아들을 못 낳거나 낳은 아들이 죽으면 嫡妻의 娣姪가 낳은 아들이 계승할 수 있다. 예컨대 襄公夫人인 敬歸가 낳은 아들이 일찍 죽어 그 娣 齊歸의 아들 昭公이 군주 자리를 계승하였다. 또 齊 靈公의 妻 顏懿姬가 아들이 없어 그 姪 融聲姬의 아들 光이 태자

pp.695-696, 즉“鄭 文公은 鄭子의 妃子 陳嬀와 奸淫하여 子華와 子臧을 낳았다.”

66) 顧頡剛, 「由‘烝’、‘報’等婚姻方式看社會制度的變遷」, 『文史』十四輯.

가 되었다. 비록 모든 태자 선정이 禮制의 원칙에 의하여 정해진 것은 아니며, 아니라 태자 및 군주를 세우려는 여러 가지 투쟁이 있었고, 또한 제후들은 종종 자신이 총애하는 妻妾이 자식을 태자로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춘추 시기 태자와 군주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妻妾의 지위의 貴賤 구별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춘추시대 제후의 妻妾 등급 제도는 후대 帝王의 완비된 後宮 제도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左傳』에서 제후 妻妾의 반열 구분에 관한 내용을 통해 그 단서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趙孟은 文公 6년에 대해 “辰嬴은 지위가 賤하고 位次가 9 번째에 처하였다. …杜祁는 國君으로 인해 偁姑에게 지위를 양보해서 偁姑의 지위를 자신의 위에 있게 하였다. 또한 狄人으로 인해 季隗에게도 지위를 양보해서 자신의 지위를 季隗의 밑에 있게 하였다. 그래서 杜祁의 位次가 4 번째에 처하였다…”<sup>67)</sup>라고 주석한다. 그러나 제후들의 부인과 媵妾 외에 『左傳』에 ‘妃’라는 호칭이 나타난다. 『左傳』에 妃(元妃)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傳·隱公元年】：惠公元妃孟子卒。

【傳·文公二年】：凡君即位，好舅甥，修婚姻，娶元妃以奉資盛，孝也。

【傳·文公十四年】：邾文公元妃齊姜生定公，二妃晉姬生捷菑。

【傳·文公十八年】：文公二妃敬嬴生宣公

【傳·宣公三年】：姑，吉人也，後稷之元妃也。

【傳·宣公三年】：文公報鄭子之妃，曰陳嬀，生子華、子臧。

67) 俞正燮은 『癸巳存稿晉夫人』에서 ‘文嬴은 嫡妻이고 襄公의 母 偁姑은 2 등에 처하고, 季隗는 3 등에 처하고, 公子雍의 母 杜祁가 4 등에 처하고 辰嬴은 9 등에 처하였다. 이는 傳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나머지 네 사람의 순서를 추측하면 齊姜는 5 등에 처하고, 秦女 3人は 다 媵으로서 6·7·8 등에 처하는가?’라고 고증하였다. 이 妻妾들 중 일부는 晉 文公 重耳가 流亡 途中에 娶한 사람들이었다. 娶妻의 순서상 僖公 23년 ‘公子가 季隗를 取’했으며, 齊에서 ‘齊桓公이 그에게 妻로 삼도록’ 하여 齊姜을 娶했고, 秦에서 ‘秦伯이 딸 다섯을 주었는데, 懷嬴이 그들에 더불어했다’(懷嬴 즉 辰嬴) 한다. 이 5명 중에 嫡夫人 文嬴과 媵女 3명이 포함되어 있다.

【傳·昭公八年】：陳哀公元妃鄭姬生悼太子偃師，二妃生公子留，下妃生公子勝。

【傳·昭公二十八年】：是鄭穆少妃姚子之子，子貉之妹也。

기존연구에서는 妃가 상고 시기 선조의 妻에 대한 호칭에서 유래했을 것이라 본다. 『禮記』 「檀弓」에는 “舜葬於蒼梧之野，蓋三妃未之從也”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써 舜이 三妃가 있었고 陳이 舜을 선조로 삼았으며, 이에 妃를 세운 것이다. 『大戴禮記』 「帝系篇」에는 “帝嚳葡其四妃之子”라고 하는데, 즉 四妃에는 上妃가 있고, 나머지 셋은 모두 次妃라고 하며, 元妃는 上妃라고 부르고 次妃는 二妃와 下妃를 포함한다. 楊伯峻은 元妃가 正夫人이며 金文을 증거로 元妃가 金문의 ‘元配’라고 보았다. 童書業은 『春秋左傳研究』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며, 元妃가 처음의 결혼한 부인이며, 이후 결혼한 경우는 부인으로만 불렀지만, 姑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겨둔다고 했다. 『爾雅』 「釋詁」에는 “「元，始也」라고 하며，首로訓하고 長이란 뜻이다.”라고 한다. 필자는 元妃가 즉 元配이며, 元妃는 모두 嫡夫人이고, 嫡夫人은 元妃일 수도 있다고 본다.

妃의 지위는 嫡妻보다는 낮고 妾보다는 높다. 또한 그들은 본래 자신과 함께 시집온 娣姪媵妾이 있었다. 妃는 제후가 妻室을 이어서 재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춘추시기에 正夫人이 불임이거나 적자가 없으면, 제후들이 종종 再娶하기도 했다. 제후들은 여전히 ‘聘禮’라는 공식적인 의례로 다시 아내를 맞이했다. 이 再聘者들은 여전히 부인으로 불렸고, 혹은 妃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이런 호칭은 元妃와 上妃라고 불린 正夫人과는 다르고, 次妃였거나 二妃, 下妃라고 불렸으며 庶夫人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傳·隱公三年】：衛莊公娶於齊東宮得臣之妹，曰莊姜，美而無子…又娶於陳，曰厲嬀，生孝伯，早死。其娣戴嬀生桓公，莊姜以為己子。

이를 통해 衛 莊公이 다시 맞이한 부인 厲嬀에게도 媵이 있었으며, 바로

그 여동생 戴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厲嬀는 原配 부인이 아니었고, 그 지위는 妃에 해당했다.

『左傳』에는 제후의 부인의 칭호에 관한 특수한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僖公 17년의 “齊 桓公의 夫人 王姬, 徐羸, 蔡姬 3인은 다 자가 없었다. 齊 桓公은 여색을 좋아해 총애를 받은 姬妾이 많고 그들의 대우가 夫人과 같은 자는 6인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이 기록은 ‘諸侯夫人’이란 禮制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에 제후의 부인은 반드시 한 명만 가능하다는 禮制 규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夫人三’을 ‘一正二媵’으로 이해하고 ‘총애를 받고 대우가 夫人과 같은 자는 6인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媵妾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현재까지는 유효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禮制에서 규정하길, 제후의 부인은 1인이고, 만약 부인이 사망하면 姪娣로 妻室을 계승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후의 부인 동일한 시기에 한 명 이상이 있을 수 없는데, 齊 桓公의 세 명의 부인은 당시 동일한 시기에 있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응당 진정한 의미로의 부인은 ‘王姬’뿐이며, 나머지 부인이라고 불린 자들은 모두 후세가 부른 호칭일 뿐 당시 실제로 사용된 정식 호칭이 아니다. 두 번째, 당시에 ‘夫人’이란 호칭은 이미 泛稱·統稱되었다. 세 번째, 禮制에 따르면 부인이 사망한 후 마땅히 姪娣가 계승해야 하나 실제 상황이 복잡하고, 종종 제후 개인의 호감 등으로 인해 따로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齊侯의 徐羸과 蔡姬는 王姬가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재차, 삼차 맞이한 부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부인이라고 불렸으며 妃에 해당했던 것이다.

『左傳』에는 ‘夫人’을 ‘內嬖如夫人者’와 구별해서 기록했으나, 마땅히 양자는 구분이 된다. 즉 王姬·徐羸·蔡姬는 기타 媵妾 6인과 구별되는 ‘夫人’이었다. 徐羸과 蔡姬는 마찬가지로 ‘夫人’之列에 해당되며, 셋은 같은 범주 같은 급수에 속했다. 그 중 徐羸과 蔡姬는 嫡夫人인 王姬 뒤에 다시 맞이한 부인, 즉 ‘二妃, 三妃’였다. 따라서 필자는 셋째 추측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妃의 지위는 妾보다 높고, 부인은 妃라고 불릴 수 있으며, 元配 嫡夫人은 元妃 혹은 上妃이고, 다시 맞이한 부인은 次妃·下妃 혹은 二妃이나 妾은 妃

라고 불린 경우가 없다.妃의 지위는 높으나, 妾의 지위는 매우 낮았던 것이다.

제후 妻妾의 지위 문제는 당시의 혼인 형식에서도 드러난다. 당시에는 주로 聘·納·嬖·買·烝·報 등의 결혼 형식이 있었다. 聘은 귀족 혼인 중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서 ‘聘’禮를 통해 맞이한 여자의 지위는 비교적 높았고, 제후의 嫡妻와 妃는 모두 聘禮를 통해 정식으로 맞이하였다. 여자가 만약 ‘聘’禮가 없었으면, 결혼 후 지위는 매우 낮았다. 納은 일반적으로 제후가 적국을 점령한 후에 그 군주의 딸이나 妻 혹은 망명한 귀족의 여자를 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妾의 유래 중 하나이다. 納婚 전에는 聘禮가 없었다. 嬖는 총애한다는 뜻이며 보통 大夫 등 관리들이 죄를 범한 후 그들의 妻女 등 가족을 제후의 奴僕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지위가 가장 낮았다. 만약 제후의 총애를 받으면 嬖人이라고 불렸고, 嬖人은 보통 제후가 총애해서 선택하는 妾이었다. 춘추시기 嬖를 부인으로 삼고 그의 자식을 태자로 세우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非禮였다. 이외에도, 買는 妾의 중요한 유래 중 하나로, 사온 妾들은 대부분 제후의 노복이 되었다. ‘烝·報’는 妾의 또 하나의 특수한 유래이다. 烝이나 報를 받은 妾은 正夫人이 없거나 正夫人이 아들이 없는 경우, 부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그들이 낳은 아들은 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의 딸도 제후 부인이 될 수 있었다. 禮制에서는 엄격하게 “妾을 夫人으로 하면 원래 그런 禮가 없다.”<sup>68)</sup>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실제 상황에는 妾이 妻가 되거나 妾이 夫人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妾의 지위는 여전히 매우 낮았다.

춘추시대 제후 妻妾의 입장과 지위에 대해 귀납해보면, 우선 지위가 가장 높은 嫡妻는 姬妾의 각종 사무를 관리하고 간섭할 권리가 있었다. 다음으로 妾은 嫡夫人이 될 수 없었고, 그 庶子도 嫡長子の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齊 桓公이 陽谷之會와 葵丘會盟에서 霸者를 칭했을 때, 따로 “제멋대로 太子를 바꾸지 말고, 妾을 妻로 세우지 말라”라는 맹약을 맺었다.<sup>69)</sup> 그 후 魯 哀

68)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哀公二十四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967, “若以妾為夫人, 則固無其禮也.”



公이 寵妾을 부인으로 세우고 그 아들인 公子 荊을 太子로 세우고자 했는데, 宗族 釁夏의 저지와 國人의 미움을 받았다.<sup>70)</sup> 셋째로 姪娣와 妾의 입장은 달랐다. 姪娣는 正妻에 의탁하였고, 자신이 독립적인 婚姻權이 없었다. 正妻가 사망한 후 姪娣는 합법적으로 ‘繼室’할 수 있었다.<sup>71)</sup> 그러나 妾은 이런 권리가 없었고, 妾의 지위는 가장 낮았다.

## 2. ‘媵婚’제의 성행

‘媵婚’제는 춘추시대 제후 혼인에 있어 가장 현저한 특징인 동시에 제후 혼인의 특수한 형태이다. ‘媵婚’은 商나라 초기에 이미 나타났다. 『易』 「歸妹」에는 姐妹가 함께 하나의 남편에게 가는 혼인 풍속을 기술하고 있는데, 孔穎達의 疏에는 ‘帝乙이 妹를 시집보냈을 때, 妹로 하여금 姊를 따라 嫁하게 하는 것이 歸妹이다.’라고 되어 있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媵婚제의 발전은 전성기를 맞이했고, 당시 각국 귀족 혼인의 가장 주요하고 보편적인 형식이 되었다.

‘媵’의 의미는 ‘相送’이며,<sup>72)</sup> 그 내용은 대체로 ‘媵人’과 ‘媵物’ 두 가지로

69) 萬麗華, 藍旭 譯注, 『孟子』 「告子下」, 北京: 中華書局, 2006, p.275,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

70)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哀公二十四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1966-1967, “公子荊之母嬖, 將以爲夫人, 使宗人釁夏獻其禮. 對曰: 「無之.」…「周公及武公娶於薛, 孝、惠娶於商, 自桓以下娶於齊, 此禮也則有. 若以妾爲夫人, 則固無其禮也.」公卒立之, 而以荊爲太子. 國人始惡之.”

71) 예컨대: 『左傳』 「隱公元年」: “惠公元妃孟子, 卒, 繼室以聲子, 生隱公.” 杜預注: “蓋孟子之姪娣也…元妃死, 則次妃攝治內事, 猶不得稱夫人, 故謂之繼室.” (『春秋左傳正義』, pp.38-40.)

『左傳』 「襄公二十三年」: “臧宣叔娶于鑄, 生賈及為而死. 繼室以其姪, 穆姜之姨子也. 生紇, 長于公宮. 姜氏愛之, 故立之.” 즉 “臧宣叔는 鑄國에서 妻를 娶했는데 그 妻가 臧賈와 臧為를 낳은 후 죽었다. 臧宣叔가 妻의 姪女를 繼室로 하였고 그가 穆姜娣의 딸이었다. 紇을 낳고 紇이 魯公의 宮中에서 살았다. 穆姜이 紇을 좋아해서 臧宣叔의 상속자로 세웠다.” (『春秋左傳正義』, p.1144.)

72) 『漢典』: 媵, 本義는 隨嫁・陪送出嫁라는 것을 가리키고 ‘相送’이라는 의의가 있

나눌 수 있다. ‘媵人’은 즉 고대 귀족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같이 남편이 될 집에 가는 ‘姪娣媵’이며, 그것은 또 正妻와 함께 시집가는 조카딸이나 여동생,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姪娣 및 한 나라가 딸을 시집에 보낼 때 다른 나라가 딸려 시집보내는 여자, 즉 형식상·신분상의 姪娣로 나눌 수 있다. ‘媵物’는 함께 시집보내는 남녀 臣妾, 즉 財物<sup>73)</sup>이고 및 여자측 부모 혹은 어른이 결혼하는 여자를 위해 만든 청동예기, 즉 媵器<sup>74)</sup>를 가리킨다.

‘媵’이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春秋』에서로,<sup>75)</sup> 『左傳』 「成公八年」에는 “무릇 제후가 嫁女할 때 同姓이 媵하고 異姓은 하지 않는다.”<sup>76)</sup>라고 기록되어 있고, 『公羊傳』 「莊公十九年」에서는 ‘媵’에 대해 “媵은 무엇인가? 제후가 一國의 여자를娶하면 또 다른 二國이 媵하고 姪娣로 따른다는 것이다.

다. 고대에는 딸을 시집보낼 때 같이 보내는 隨嫁·陪嫁한 자를 가리켰다. 또한 庶賤者 혹은 服役하는 여자도 가리켰다.

73) 『儀禮』 「士昏禮」에는 ‘媵’과 ‘御’는 함께 놓고 논한다. 媵은 ‘女從者’이고 御는 ‘婿從者’이다. 따라서 陳顧遠은 「士昏禮」 중의 ‘媵’이 從嫁로 온 服勞役者도泛指한다고 여긴다.

74) 曹兆蘭은 媵器의 作器者의 名義를 7종으로 나눈다. 즉 父母 두 사람이 공동 名義로·父의 名義로·母의 名義로·兄長의 名義로·主嫁國 손윗사람의 名義로·來媵國 손윗사람의 名義로·同姓 宗主國의 名義로 제작하는 일곱 가지 상황이다. 또한 앞의 4종이 많이 보이고 뒤의 3종이 적게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曹兆蘭, 「從金文看周代媵妾婚制」, 『深圳大學學報』, 2001-06.

陳昭容은 10가지로 나눈다. 즉 同姓 손윗사람(父·伯·叔)·모친·부모가 공동으로·兄長이 妹를 위해·弟가 姐를 위해·兄 弟의 子가 姑를 위해·同姓(不同國族)손윗사람이 女를 위해·異姓 손윗사람이 女를 위해·出嫁女의 父가 姪을 위해·出嫁女의 母가 姪을 위해서 등, 10가지 상황이다.

陳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77本2分.

75) 『春秋』에 ‘媵’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4가지가 있다. 즉:(引自『春秋左傳正義』)

「莊公十九年」, p.297, “公子結媵陳人之婦於鄆, 遂及齊侯、宋公盟.”

「成公八年」, pp.838-840, “春,宋公使華元來聘.夏,宋公使公孫壽來納幣.冬,衛人來媵.”

「成公九年」, p.845, “二月,伯姬歸於宋.夏,季孫行父如宋致女.晉人來媵.”

「成公十年」, p.851, “夏,齊人來媵.”

76)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成公八年」, 北京:中華書局, 1980, p.844, “凡諸侯之嫁女, 同姓媵之, 異姓則否.”

姪은 무엇인가? 兄의 子다. 娣는 무엇인가? 여동생이다. 제후가 一聘九女하면 再娶하지 않는다.”<sup>77)</sup>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媵婚’제의 예제 규정에 대해서 杜預는 “고대에 제후가娶했을 때, 嫡夫人과 左右媵은 각각 다 侄娣가 있었다”라고 주석하며, 程頤는 “고대에 庶女와 敵女가 아닌 자는 곧 구하여 媵으로 삼았다”고 하여 媵을 庶出의 여자라고 본다. 이에 대해 楊伯峻도 논증을 통해 “媵은 여자를 파견하여 함께 시집보낸다는 것이다. 禮에 의거하면 한 나라 군주의 딸이 다른 나라 군주에게 시집가면 타국에서 여자를 보내 함께 시집가게 하니, 媵으로 타국이 여자를 보내 함께 시집가게 하는 혼인 제도다. 고대에 제후가 일국의 여자를 맞이할 때, 다른 두 나라가 庶出의 여자도 함께 시집가게 하는 것을 媵이라고 한다. 따라서 媵인 자는 제후의 嫡女로 볼 수 없는 것 같다.”<sup>78)</sup>고 지적했다.

두 가지 의미의 姪娣媵, 즉 같은 나라의 姪娣와 타국에서 함께 시집가는 ‘姪娣’는 춘추시대 통상적으로 시행된 習俗이다. 이는 일종의 혼인 제도로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陳顧遠은 “媵은 제도로서 춘추시기에 두드러졌으며, 바로 귀족 혼인의 특수한 예였으니, 한 나라 혹은 한 성씨의 여자가 시집을 가면 원칙상 반드시 同姓의 여자가 남편의 집으로 따라가며, 또한 從嫁의 지위에 처하는 것이 그것이다. 경대부에게는 예에 의거하면 그 나라를 벗어나 결혼할 수 없었고 또한 그 지위도 천자나 제후보다 못했으므로, 오직 姪나 娣가 함께 시집갈 수 있고 타국에서 오는 媵이 없었다.”라고 지적한다.<sup>79)</sup> 이 관점을 보면 陳顧遠은 媵의 두 가지 형식은 서로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데, 같은 나라 同姓 姪娣의 경우는 卿大夫에 적용되고, 타국의 여자가 함께 시집가는 것은 천자와 제후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관점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이 관련된 논증을 하고자 한다.

제후의 媵婚 상황에 관해 문헌에 기재된 대부분은 같은 나라 姪娣가 함께

77) 何休 注, 徐彥 疏, 『春秋公羊傳注疏』 「莊公十九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84, “媵者何? 諸侯娶一國, 則二國往媵之, 以姪娣從. 姪何者? 兄之子也. 娣者何? 弟也. 諸侯一聘九女, 諸侯不再娶.”

78)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90, pp.840-841.

79) 陳顧遠, 『中國婚姻史』, 上海: 上海書店, 1984, p.60.

시집간 기록이고, ‘一國은 딸을 시집보냈을 때 타국의 여자가 來媵한다’라는 기록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타국에서 媵女가 온’ 것으로 『左傳』에 기재된 사례로는 成公 8년의 ‘魯伯姬는 宋 共公에 嫁하였을 때, 衛·晉·齊 3 국은 來媵한다’와 ‘僖公은 楚女를 娶하였을 때, 齊女가 來媵한다’<sup>80)</sup>의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문헌에 비해 청동 명문에는 ‘타국에서 媵이 오는’ 상황이다소 많다. <sup>81)</sup> 지금 청동기에서 보이는 춘추시기 ‘타국에서 媵이 온’ 媵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춘추시대 청동기 타국 來媵표>

器名/시대/번호	作器者	出嫁女1	出嫁女2	銘文
<曾侯簠> 춘추/04598	曾侯(主嫁國) (曾國姬姓)	叔姬 (主嫁女)	邛嬭(媵) (邛國嬭姓)	叔姬媵作黃邦, 曾侯作叔姬、邛嬭媵器, 子子孫孫其永用之。
<上郡公簠> 춘추중후기	上郡公 (上郡國嬭姓)	叔嬭	番改 (番國改姓)	佳正月初吉丁亥, 上郡公擇其吉金, 鑄叔嬭番改媵簠, 其眉壽萬年無期, 子子孫孫永寶用之。
<伯氏姒氏鼎> 춘추초기/02643	伯氏(父/鄧國 曼姓, 鄧卿大夫), 姒氏(母)	嬭	嬭吳	佳鄧八月初吉, 伯氏、姒氏作嬭、嬭吳鎮鼎, 其永寶用。
<許子妝簠> 춘추/04616	許子妝 (許國姜姓)	孟姜	秦嬴 (秦國嬴姓)	佳正月初吉丁亥, 許子妝擇其吉金, 用鑄其簠, 用媵孟姜、秦嬴, 其子子孫孫永寶用之。
<楚王鐘> 춘추/00072	楚王	邛仲 嬭南		唯正月初吉丁亥, 楚王媵邛仲嬭南鈃鐘, 其眉壽無疆, 子孫永保用之。
<樊君鬲> 춘추초기/00626	樊君(國君) (樊國嬭姓)	叔嬴	嬭(半)	樊君作叔嬴、嬭(半)媵器寶鬲。
<陳侯作孟姜媵簠> 춘추/04604-04607	陳侯 (陳國嬭姓)	孟姜	仲嬭	陳侯作孟姜、仲嬭媵簠, 用旂眉壽萬年無疆, 永壽用之。

80)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90, 부록2 <춘추시대 각국 聯姻表·魯國>을 참조함.

81) 陳昭容은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에서 為異姓女單獨作器에 대해 분석할 때 <鑄侯求鐘>과 <邛仲簠> 두 媵器는 作器者가 異姓女子의 出嫁를 위해 作器했던 것인지를, 異姓女子가 본국여자에게 媵할 때 (다만 본국 主嫁女의 器는 발견되지 않았음) 그를 위해 作器했던 것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媵器를 他國來媵으로 보고 논하지 않는다.

타국에서 媵女가 온 상황과 비교하면, 같은 나라에서 시집가는 媵에 대한 기록은 문헌에 비교적 많이 출현한다. 이 姪娣媵들은 또한 ‘여동생이 媵으로 가는’ 상황이다. ‘조카가 媵으로 가는’ 상황은 『左傳』에 3번뿐이며,<sup>82)</sup> 나머진 기본적으로 ‘여동생이 媵으로 가는’ 것이다. 『左傳』에 나온 ‘姪娣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左傳』姪娣媵表>

夫國	夫	女國	出嫁女/비고	출처
魯(姬)	魯惠公		孟子(夫人) 聲子(姬妾)(孟子的 庶妹, 隱公을 낳았음)	隱公元
		齊(姜)	叔姜(哀姜妹, 閔公을 낳았음)	閔公2
魯(姬)	魯僖公	楚(芊)	楚女(夫人)	『春秋左傳注』
		齊(姜)	齊女(媵)	
魯(姬)	孟穆伯 (魯國卿)	莒(己)	戴己(姐)(文伯을 낳았음) 聲己(妹, 媵)(惠叔을 낳았음) 莒女	文公7
魯(姬)	臧宣叔 (魯大夫)	鑄(任/妊)	鑄女(臧賈, 臧為을 낳았음) 鑄女の 姪(繼室) (穆姜의 姨의 딸)(紇(臧武仲)을 낳았음)	襄公23
魯(姬)	魯襄公	胡(姬)	敬歸(姐)(野을 낳았음) 齊歸(妹)(媵)(公子 稠(魯昭公)을 낳았음)	襄公31
齊(姜)	齊靈公	魯(姬)	顏懿姬(無子) 鬻聲姬(媵)(顏懿姬의 姪)(光(齊後莊公)을 낳았음)	襄公19
		宋(子)	仲子(姬妾)(牙을 낳았음) 戎子(媵)(仲子妹)(無子)	

82) 『左傳』 「襄公二十一年」“邾庶其以漆、閭丘來奔。季武子以公姑姊妻之”(『春秋左傳正義』, p.1111)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일부에서는 ‘姑姊’가 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列女傳』에서는 父의 姊를 ‘姑姊’라 부르고 父의 妹를 ‘姑妹’라 부른다. 그런데 『左傳』 「成公二年」(p.813)에는, 楚가 魯의 陽橋를 침략하는데 魯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成公의 子 公子 衡을 질자로 楚에 보냈다. 당시에 公子 衡이 이미 17, 18살이었으므로 그 父 成公은 적어도 30 여 살이었을 것이다. 또한 成公 2년부터 襄公 19년까지는 30 여년이 된다. 따라서 姑姊가 成公의 姊라면 적어도 70여 살이었어야 한다. 70 대 노인이 시집을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姑는 成公의 庶妹, 姊는 襄公의 姊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杜預도 ‘計公年不得有未嫁姑姊, 蓋寡者二人’이라고註했다. 그래서 이를 『釋名』“共行事夫, 更疊進御”의 증거로 볼 수 있다.

劉興均, 「‘姪從媵’考」, 『四川師範大學學報』, 1995-02.

宋(子)	宋共公	魯(姬)	宋共姬(원래 伯姬였고, 魯宣公의 딸)	成公8`9
		衛(姬)	媵 共姬	
		晉(姬)	晉人來媵	成公9
		齊(姬)	齊人來媵	成公10
衛(姬)	衛莊公	陳(媵)	厲媵(孝伯을 낳았음)	隱公3
			戴媵(娣)(衛桓公을 낳았으며, 莊姜의 子로 삼았음)	
衛(姬)	衛莊公(父)		夷姜(姬妾) 左媵(洩을 낳았음) 右媵(職을 낳았음)	桓公16
衛(姬)	太叔疾 (衛國公族)	宋(子)	子朝(宋國公族)의 딸	哀公11
			子朝의 딸의 동생(媵)	
		戎	狐姬(狐季姬)(晉 大夫 狐突의 딸, 姐)(晉文公을 낳았음)	莊公28
			小戎子(妹)(晉惠公을 낳았음)(狐姬姬姓, 小戎子允姓)	
		驪戎(姬)	驪姬(姐)(奚齊을 낳았음) (麗姬, 宣公2)	
			(妹)(卓子을 낳았음)	
晉(姬)	公子 重耳 (晉文公)	秦(嬴)	秦女1文嬴(夫人)	僖公23
			秦女2(媵)	
			秦女3(媵)	
			秦女4(媵)	
			秦女5(媵)懷嬴(辰嬴)(秦穆公의 딸, 晉懷公과 文公에嫁했음)	
秦(嬴)	秦穆公	晉(姬)	秦穆姬(秦穆夫人) 晉은 虞國 大夫 井伯(男)을 穆姬의 陪嫁로 삼았음. (以媵秦穆姬)	僖公5
邾(曹)	庶其 (邾大夫)	魯(姬)	魯成公의 庶妹	襄公21
			魯襄公의 누나	
杞(妣)	杞桓公	魯(姬)	杞叔姬(成公4, 5, 8, 9) 且請絕叔姬而無絕昏(杜注: 立其娣以為夫人.)	文公12
吳(姬)	諸樊(추측됨)	晉(姬)	(晉平公의 딸)(추측됨)	襄公23
		齊(姜)	媵 ‘齊侯使析歸父媵之’	
紀(姜)	國君	魯(姬)	紀伯姬(魯惠公의 딸, 隱公의 姐妹)	隱公2
			叔姬(伯姬妹) (叔姬가 伯姬와 함께 시집가지 않는 원인은 그 때에 叔姬가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	隱公7

문헌에 기록된 姪娣媵은 여동생이 많고 조카가 적다. 이 상황은 나타나는 이유는 당시 함께 시집간 姪娣의 객관적인 조건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시집을 갈 여자에게 조카가 없거나 조카의 나이가 어리면 함께 시집가기에 적절하지 않아, 여동생이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카에 비해 여동생은 나이든지 존재 가능성에서 조카보다 비교적 높다. 陳昭容은 ‘以娣媵’에 대한 媵器 3건

과 ‘以姪媵’에 대한 媵器 8건을 예로 들었는데, 그 연대가 서주시기부터 춘추시기까지 넘나든다.<sup>83)</sup> 그러나 청동기 명문에는 ‘姪’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 원인에 대해 陳昭容은 ‘姊’를 위해 제작한 청동기에 명문을 새기는 관습은 보통 어른이 同姓 여자를 위해 기물을 제작해 주는 방식과 차이가 거의 없기에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陳昭容은 ‘姪’이 원래 ‘姑’와 대응하는 친척의 칭호였는데, 청동명문에서 ‘姪’의 의미는 친족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지 않고, 혼인 관계 중의 일종의 ‘身份’을 표시하며, 시집간 ‘姑’에 대응해서 ‘姪’은 주로 함께 따라간 媵의 신분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sup>84)</sup> 이 주장은 참조할 만하다. 또한 “禮에 따라, (여자를 받는 쪽의) 君이 媵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가 스스로 夫人을 媵한다.”도 설명하듯, 당시 姪姊가 함께 시집가는 것은 강제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타국에서 媵을 보내는 것도 완전히 자의에 의한 것이지 시집보내는 나라 혹은 남편이 될 나라가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외에 媵器를 정리해보면 비록 禮에 따라 卿大夫는 그 나라를 벗어나 아내를 맞이할 수 없으나, 실제 혼인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의 여자를 맞이하는 경우가 출현하며 아울러 본국의 姪姊가 함께 시집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국의 여자가 媵으로 오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천자 및 제후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같다. 춘추시대에는 ‘媵婚’제가 천자, 제후 및 卿大夫 등의 계층에서 시행되었으나, 君權이 사회의 주요한 지배력이었기에 國君은 제후국을 대표했고, 제후국 군주의 ‘媵婚’이 만들어내는 작용과 영향이 가장 컸다. 바로 그들이 타국에서 媵女를 시집보내는 주요 대상이었고, 군주 ‘媵婚’제의 각 항의 규칙

83) ‘以姊媵’ : 1)<魯宰駟父>器群(西周晚期), 2)<魯伯大父>器群(春秋早期), 3)<師賓父>器群(西周晚期) ;

‘以至媵’ : 1)<齊榮姬之姪盤>(春秋), 2)<齊姪姬簋>(西周晚期), 3)<姪嬀壺>(西周中期), 4)<姪妊壺>(西周中期), 5)<姪妊車惠>(春秋), 6)<蘇甫人盤><蘇甫人匜>(西周晚期), 7)<虢姪匜>(春秋早期), 8)<叔山父簋>(西周晚期).

陳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77本-2分, pp.231-237.

84) 陳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77本-2分, p.234.

은 일반적인 귀족에 비해 보다 더욱 완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본국의 同姓姪娣가 함께 시집가는 경우는 卿大夫에 적용되며, 타국의 여자가 함께 시집가는 경우는 천자·제후에 적용된다’는 주장은 춘추시대의 상황을 보면 정확하지 않다.<sup>85)</sup>

그렇다면 두 나라의 媵이 왔다면 누구의 지위가 높을 것인가? 『白虎通』「嫁娶」에는 “二國이 媵할 때 누가 높은가? 대국이 높다. 나라는 德으로써 같고, 德은 色으로써 같다.”<sup>86)</sup>라고 되어 있다. 何休는 『解詁』에서 말하길 “禮에 의하면 嫡夫人은 자가 없으면 右媵을 세우고, 右媵은 자가 없으면 左媵을 세운다. 左媵은 자가 없으면 適姪娣를 세운다. 適姪娣는 자가 없으면 右媵姪娣를 세운다. 右媵姪娣는 자가 없으면 左媵姪娣를 세운다.”라고 하였다.<sup>87)</sup> 이에 따라 左右媵도 尊卑의 등급을 구분하며, 대국이 높고 娣가 높았으니, 이는 바로 周나라가 ‘右’를 높이는 禮制 규정에 부합한다.

다음은 媵이 온 나라의 수와 ‘同姓媵’의 문제다. 춘추시대에 ‘媵婚’에 나라수의 제한이 있었는가에 대해 문헌에는 “제후가 한 나라의 여자를娶할 때

85) 또 일각에서는 ‘卿大夫가 嫁女할 때 娘家만 禮物를 딸려 보내며, 제후가 嫁女할 때 타국도 같이 賀禮를 취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銅器를 통해 부정되었다.

예: <豐伯盨父簋>(M2006:64): 豐伯盨父作簋, 其子子孫孫永寶用。

<聶叔夙父作孟姑旅簋>: 聶叔夙父作孟姑旅簋, 用\*稻稌需梁, 嘉賓用饗有飴, 則萬年無疆子子孫孫永寶用。(같은 무덤에서 출토됨)

銘文에는 同姓國 卿大夫 豐伯盨父가 同姓한 姑姓 叔夙父의 聶氏 女子 孟姑이 虢國에 시집가는 것을 위해 器物을 贈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卿大夫 叔夙父의 女 孟姑이 시집갈 때 同姓國의 卿大夫 豐伯盨父가 그에게 媵器를 제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卿大夫가 嫁女할 때 娘家가 嫁物을 送陪할 뿐만 아니라, 타국 卿大夫가 賀禮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陳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77本-2分, p.229.

86) 班固, 『白虎通』「嫁娶第四」, 北京: 中華書局, 1985, p.259, “二國來媵, 誰為尊者? 大國為尊. 國同以德, 德同以色.”

87) 何休 解詁, 徐彥 疏, 『春秋公羊傳注疏』「隱公元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6, “適, 謂適夫人之子, 尊無與敵, 故以齒. 子, 謂左右媵及姪娣之子, 位有貴賤, 又防其同時而生, 故以貴也. 禮, 嫡夫人無子, 立右媵; 右媵無子, 立左媵; 左媵無子, 立嫡姪娣; 嫡姪娣無子, 立右媵姪娣; 右媵姪娣無子, 立左媵姪娣.”



다른 두 나라의 여자가 媵하고 姪娣의 신분으로 함께 시집간다”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春秋』와 청동기 명문에는 ‘二國往媵’ 뿐 아니라 一國이나 三國來媵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春秋』에 衛·晉·齊 3國來媵 사건이 특별히 기록된 것은 “三國이 媵하면 非禮이다.”<sup>88)</sup>이기 때문지만, 이 역시도 당시 來媵國의 상황이 여러 가지였음을 반영한다. 또한 顧頡剛은 ‘諸侯一娶九女’와 ‘諸侯不再娶’라는 상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禮記』 「昏義」에 “天子后妃百二十”은 유가가 상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陳東原도 “제후는 결혼할 때 한 번에 아홉 녀자를娶하며, 천자는 한 번에 열두 명의 여자를娶한다”라는 상황은 인지상정에 어긋나기에 이것이 漢儒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라 의심한다. 따라서 춘추시대 媵婚은 실상 엄격한 수량 규정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문헌에 기재된 媵婚에 대한 여러 규칙은 ‘媵婚’制가 춘추시대 제후들의 주요 혼인 형식이 됨에 따라 그것이 규범화·제도화 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sup>89)</sup>

‘同姓來媵’은 서주시대에 비교적 성행하였다. 서주시대에 여러 나라가 한姓인 경우가 더러 있었기에 同姓媵을 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무릇 제후가 딸을 시집에 보내면 同姓 나라가 媵하고 異姓 나라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주의 제도로, 이는 주나라의 종법 제도 및 ‘同姓不婚’이라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나라의 종법 제도는 同姓을 兄弟之國으로 삼아 ‘藩屏王室’하며, ‘同姓不婚’은 혼인으로 異姓 제후와 관계를 맺어 甥舅之國으로 삼기를 강조한다. 제후가 딸을 보낼 때 同姓 나라가 媵禮를 보내는 것은 兄弟國 간의 종법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 유리하고, 또한 異姓 부마국에 우호를 표할 수도 있다. 또한 서주 시기는 禮制가 가장 엄격한 시기로 각국은 ‘同姓不婚’과 ‘同姓往媵’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했다. 그러나 ‘同姓不婚’과 마찬가지로 춘추시대에 이르러 ‘同姓往媵’이라는 제도도 종법 제도의 영향력 약화에 따라 깨졌다. 당시에 종법 제도가 붕괴하고 군현제가 분봉제를 대체

88) 何休 解詁, 徐彥 疏, 『春秋公羊傳注疏』 「成公十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452, “三國來媵, 非禮也.”

89) 陳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77本-2 分.

하며,<sup>90)</sup> 각국이 상호 검병함에, 나라의 수가 날로 적어지고 그에 따라 同姓國 또한 줄어들었다. 禮制의 속박은 각국의 이익을 위해 깨졌고, 자국의 이익이 외교 활동의 근본적 출발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 非禮의 사건이 더욱 많아지고 同姓婚과 異姓媵이 나타났다. 따라서 俞正燮은 ‘同姓媵之, 異姓則否’를 “同姓이 媵해야 하고 異姓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무릇 嫁할 때 다 媵하며, 媵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로 이해하였고, 이는 합리적이다.

『左傳』에서 ‘魯가 宋에 여자를 시집보내고, 同姓인 衛·晉과 異姓인 齊 세 나라도 來媵했다’는 사례는 비교적 특별한 상황이며, 이는 단지 『公羊傳』의 ‘二國往媵’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異姓國에서 媵이 온 ‘非禮’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媵婚 상황이 출현한 것일까? 그 원인은 혼인 당사국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있다. 成公 9년 魯 伯姬가 出嫁한 전후 5국간의 왕래 상황을 살펴보면 成公 5년에 ‘蟲牢之盟’<sup>91)</sup> 하고 7년에 ‘馬陵之盟’<sup>92)</sup> 하며 9년에 ‘蒲之會’<sup>93)</sup> 하고 10년에 ‘伐鄭’하는 것에 대해 晉·魯·齊·衛·宋의 5국이 모두 참여하였다. 鞍之戰 이후 齊가 晉에 복종하고 齊와 魯의 관계도 완화되어, 중원 제후국들 특히 晉·齊·宋·魯·衛 등에게는 楚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의 추세가 나타났고, 晉을 맹주로 한 연맹이 형성되었

90) 고대 郡縣制는 宗法血緣 分封制度를 계승하여, 郡이 縣을 통치하는 兩級 地方 행정제도로써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고대 중앙 집권 제도가 地方 정권 상의 구현물이 되는 것이다. 실제 郡縣制는 춘추시대에 기원했으며, 전국시대에도 여러 개편을 거쳐 운용되다가 秦始皇시기 전국 통치 제도로 확립된 후로는 秦漢시대 이래 지속되었다. 縣制는 춘추시대의 楚國에서 기원하였으며(楚 武王 熊通), 郡制는 秦國에서 기원하였다(秦 穆公 嬴任好).

91)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成公五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826, “十有二月己丑, 公會晉侯、齊侯、宋公、衛侯、鄭伯、曹伯、邾子、杞伯, 同盟於蟲牢.” 즉 “成公 5년(BC586), 晉 景公이 魯·宋·齊·衛·鄭·曹·杞 등을 소집하여 蟲牢에서 會盟하였다. 鄭은 會盟에서 楚를 저버리고 晉에 服從하기로 하였다.”

92)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成公七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834-836, “七年, 公會晉侯、宋公、衛侯、鄭伯、曹伯、莒子、邾子、杞伯救鄭. 八月, 戊辰, 同盟於馬陵.”

93)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成公九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845, “九年, 公會晉侯、齊侯、宋公、衛侯、鄭伯、曹伯、莒子、杞伯, 同盟於蒲.”

다. 그들 상호간에도 갈등과 충돌이 있었지만 자국의 이익 추구가 禮制의 속박을 뛰어넘었고, 이로 인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우호적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衛가 來媵한 목적은 주로 우호적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고, 晉이 來媵하는 목적은 과거 魯를 압박하여 齊에 汶陽之田을 돌려주게 하였기에 생긴 앙금을 개선하려는 것이었으며, 齊의 來媵은 이 기회에 汶陽 사건으로 인한 갈등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春秋』에서 원칙적으로 媵事를 기록하지 않는데 여기서 3國來媵이라는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단지 ‘伯姬는 賢惠하기로 각 제후국에서 유명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근거에도 입각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晉楚가 패권을 다투는 형국에서 중원 5국이 혼인형식으로 정치 동맹을 공고히 하여 楚에 대항하고자 하는 연맹이 구현된 것이었다.<sup>94)</sup> 또한 국가의 이익이 禮制를 초월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媵婚制’는 통혼의 범위를 확대해 혼인국의 동맹범위를 넓혔으며, 그 다원적, 다방면적인 특징은 혼인국 간의 관계와 외부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혼인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정치군사적 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 ‘媵婚制’는 제후 혼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로, 춘추시대 정치적 통혼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졌으며 그 강력한 정치적 목적성은 춘추시대 제후의 혼인에 독특함을 더해주었다.

<sup>94)</sup> 邲之戰에서 晉이 패전을 당하고 나서 중원 제후국 중 晉에 服從한 국가는 宋·衛·曹 등 밖에 없어, 齊가 이 기회를 틈타 晉과 爭霸하였다. 魯는 邲之戰 전에 이미 齊에 服從했는데, 魯가 晉의 同盟國이었기에 晉이 패전한 뒤 魯는 晉의 害를 당할까 우려하여 齊와 두 번 盟會했다. 宣公 18년, 晉이 齊를 공격하였다. 成公 원년에 魯는 ‘齊에 難이 있었던 관계로 丘甲을 만들었다’고 하며, 齊가 楚에 出師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晉과 盟하였다. 成公 2년, 齊軍이 魯를 공격했으나 衛의 군대에 패전을 당하였다. 魯·衛·曹가 晉師와 함께 鞍에서 齊師를 격파하였다. 이때 楚가 齊를 구하고 衛를 침공하며 魯를 공격하였다. 뒤이어 魯·衛·蔡·許·秦·宋·陳·齊가 楚와 蜀에서 盟하였다. 5년 晉·齊·宋·衛·魯 등은 蟲牢에서 盟하였다. 6년과 7년에 楚가 鄭을 공격하자 晉·齊·宋·衛·魯 등이 鄭을 구원했으며, 5국은 馬陵에서 盟하였다. 9년에 5국은 다시 蒲에서 盟하였다. 이에 따라 중원 제후, 특히 晉·齊·宋·魯·衛는 楚를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聯盟 체제를 성립시켰다.

## II. 춘추시기 제후 간 혼인과 외교

### 1. 제후 간 혼인의 특징

춘추시대에 이르러 周 왕실이 쇠락하고 霸主들이 흥기하였다. 『管子』 「霸言」에는 “強國이 많으면 서로 결합하고 弱國을 공격하여 霸權을 도모한다. 強國이 적으면 소국을 연합시키고 대국에 대항하여 王을 지킨다.”,<sup>95)</sup> “옛날 武王가 제후를 대량적으로 封할 때 제후들이 각각 封地가 있다. 춘추 때까지 아직 124개 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sup>96)</sup> 淸나라 학자 顧棟高의 고증에 의거하면 “魯는 춘추 때에 실제로 9국의 땅을 겸병하고 齊는 10국의 땅을 겸병하였다. 晉은 18국을 멸망시키고 衛가 멸망시킨 邢과 秦이 멸망시킨 滑은 다 晉에 귀속되었다. 楚는 춘추 때 겸병한 제후국이 42개이고 宋은 6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97)</sup> 춘추시대에 魯·齊·晉·秦·楚·宋 6국은 모두 87여 국을 겸병하였다. 『史記』 「周本紀」에는 “平王 때 周室이 쇠미하고 대국들이 소국을 겸병하며 齊·楚·秦·晉이 강대해지고 서로 정치를 다투어 주도하였”고,<sup>98)</sup> “齊·晉·秦·楚는 成周에 미치지 못했고 封地는 100리 혹은 50리였다. 晉이 三河를 차지하고 齊가 東海를 차지하고 楚가 江淮를 차지하고 秦이 雍州를 차지했으며, 4국이 서로 더불어 霸主가 되었다. 文王·武王이 大封한 제후국은 다 이 4국에 복속되었다.”<sup>99)</sup> 했다고 기록되어

95) 戴望, 『管子校正』 「霸言」, p.144, “疆國眾, 合疆以攻弱以圖霸. 疆國少, 和小以攻大以圖王.”

96) 顧棟高, 『春秋大事表』 「列國疆域表卷四」, 北京: 中華書局, 1993, p.495, “昔武王大封列侯, 各有分地, 至春秋時猶存百二十四國.”

97) 顧棟高, 『春秋大事表』 「列國疆域表卷四」, 北京: 中華書局, 1993, p.507, p.510, p.517, p.524, p.528, “魯在春秋, 實兼有九國之地. 齊在春秋, 兼併十國之地. 晉所滅十八國, 又衛滅之邢, 秦滅之滑皆歸於晉. 楚在春秋吞並諸國凡四十有二. 宋在春秋兼有六國之地.”

98) 司馬遷 撰, 張守節 正義, 司馬貞 索引, 裴駰 集解, 『史記』 「周本紀」, 北京: 中華書局, 2013, p.189, “平王之時, 周室衰微, 諸侯, 疆並弱, 齊、楚、秦、晉始大, 政由方伯.”

있다. 또한 “平王 때 말기에 이르러 秦·晉·齊·楚가 서로 잇달아 흥성하였다.”<sup>100)</sup> 춘추시대 강국은 약소국을 겸병하였는데, 齊·楚·秦·晉 4국은 강대해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주도했다. 이 4국은 당시에 가장 강대하며 상호 간 연합하고, 정벌전쟁을 전개했으며, 소국을 겸병했다. 周 천자의 ‘天下共主’는 이름 뿐이었으니, 이것이 춘추시대 기본적인 정세였다.

춘추시대 정략 혼인은 주로 제후국 간 및 왕실 간의 통혼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세력차가 비교적 컸기 때문에 당시의 정세는 다양하게 변하였고, 이로 인해 각국간의 통혼 상황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당시의 국제 정세 및 각국 세력의 강약은 춘추시대 정략 혼인을 네 종류로 나누었는데, 즉 周 왕실과 제후국 간의 통혼, 대국들 간의 통혼, 대국과 소국의 통혼, 소국들 간의 통혼이 그것이다.

우선 왕실과 제후국 간의 혼인을 보자. 왕실과 제후의 혼인 관계는 주로 왕실의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제후의 여자가 왕실에 시집오는 두 상황을 포함한다. 서주 시기부터 귀족들은 같은 등급 안에서 결혼하는 제도를 시행했기에, 제후·卿大夫는 일반적으로 동등한 등급 내에서 혼인했다. 천자는 오직 한 명이었기에, 대부분 왕실의 여자가 제후에게 ‘下嫁’하였다. 당시 천자가 맞이한 妻는 반드시 제후국 군주의 딸이며, 왕실의 여자는 보통 제후국 군주를 남편으로 하여 결혼했고, 극소수의 상황에서만 큰 나라의 卿에게 ‘下嫁’했다. 아울러, 周 왕실은 齊·晉 대국과 통혼했을 뿐만 아니라, 陳·紀 등 소국과도 통혼했고, 심지어 당시 북방의 이민족과도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 중에 도드라지는 점은 왕실의 혼인이 모두 ‘同姓不婚’의 禮制 원칙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것이다. <春秋周王室與各國聯姻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9) 司馬遷 撰, 張守節 正義, 司馬貞 索引, 裴駟 集解, 『史記』 卷14 「十二諸侯年表」 第2, 北京: 中華書局, 2013, p.641, “齊、晉、秦、楚, 其在成周微甚, 封或百裏, 或五十裏. 晉阻三河, 齊負東海, 楚介江淮, 秦因雍州之固, 四國疊興, 更為伯主, 文武所褒大封, 皆威而服焉.”

100) 左丘明, 『國語』 「鄭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p.524, “及平王之末, 而秦、晉、齊、楚代興”

<春秋周王室與各國聯姻表>

시간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BC704	周桓王	紀(姜)	季姜(王后)(紀國君의 딸)	桓公8(BC704) 9(BC703)
	周莊王	(姚)	王姚(姬妾)(子頹를 낳았음)	莊公19(BC675)
BC676	周惠王	陳(媯)	陳媯(惠后)	莊公18(BC676)
BC637	周襄王	狄(隗)	隗氏(狄君의 딸)(王后)(甘昭公과 私通했음)	僖公24(BC636)
BC603	周定王	齊(姜)	齊女(王后)	宣公6(BC603)
BC558	周靈王	齊(姜)	齊侯女(王后) 官師(靈王의 大夫)가 單靖公(靈王의 卿)에 따라 齊에 가서 王后를 맞이했음(襄公15)	襄公12(BC561)
	周景王		穆后	昭公15(BC527)
夫國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齊(姜)	齊襄公	周(姬)	王姬	莊公元(693)
齊(姜)	齊桓公		共姬	莊公11(683), 僖公17(643)
宋(子)	宋襄公		宋襄夫人(王姬)	文公8(619)
晉(姬)	晉文公		王姬(晉成公을 낳았음)	宣公2(607)

周 왕실과 제후국의 혼인 관계에 관해서는 ‘周齊世婚’을 논할 필요가 있다. ‘周齊世婚’은 서주 시기 가장 두드러지며, 이는 ‘姬-姜’ 二姓의 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다. ‘姬-姜’ 통혼의 연원은 상고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詩經』 「生民」에는 周人의 시조 後稷의 어머니 姜嫄이 後稷를 낳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姜의 여성이 周人과 결혼하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姬姜 통혼의 전통은 姜嫄이 後稷를 낳는 전설부터 시작되며, 그래서 姜嫄은 姬와 姜의 2족, 2姓이 통혼하는 기점이 된다. 姬姜 2족의 연원이 오래되었는데 姬周가 흥기하여 시종 姜姓 族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周 武王이 殷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牧野之戰’은 姜尙이 지휘했으며, 六師 周軍 중에는 姜族 사람들이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姬周가 세워진 후에도 姜姓은 정치를 보좌하였다. 姬姜 二姓은 대대로 통혼하였고, 강대한 혼인 집단을 이루었으며, 이는 또한 주나라의 건국과 통치의 기초였다. <西

周十二王·王后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西周十二王·王后表>

周王	武王	成王	康王	昭王	穆王	恭王	懿王	孝王	夷王	厲王	宣王	幽王
王后	邑姜	王姒	王姜	房后	王俎姜	王嬭	王白姜	王京	王姑	申姜	齊姜	申姜

위 표를 보면 서주 12왕 중 7명은 姜姓의 齊女를 后로 맞이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다. 姬姜 兩姓 氏族도 장기적인 통혼을 통해 튼튼한 동맹 관계를 만들었다. 이는 周나라의 통치가 姬姜 兩姓 氏族의 聯盟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설명한다. 姬姜 二姓의 통혼 관례는 춘추시대에까지 지속되었으며, 춘추시대 각국의 통혼 중 가장 빈번하고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 ‘齊魯世姻’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周齊世婚’은 춘추시대에 이르러 오직 定王과 靈王만 齊女를 后로 娶하고 齊나라의 역대 제후 중에도 襄公과 桓公이 왕실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다. 이는 춘추시대 왕실이 쇠락하고, 각 제후국이 다투기 시작했으며, 齊나라도 패권을 다투기 위해 ‘周齊世婚’을 지키지 않고 晉·楚·吳 등 대국과 통혼하여 본국의 이익과 패업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대국<sup>101)</sup> 사이의 통혼은 주로 齊·晉·秦·楚 등의 대국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나라들은 국력이 강성하여 서로 빈번히 경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혼하기도 하였다. 崔明德은 이러한 현상을 일종의 긍정적 현상으로 대국 관계가 보다 부드러워 지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통혼이 ‘대국 간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과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동시에 일련의 지역적인 안보와 정치사무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하

101) 范文瀾은 國力の 강약에 의거하여 제후국을 대체로 3 급으로 나누었다. 즉 晉·楚·齊·秦·吳·越 등 국은 1급의 국가이며, 魯·衛·鄭·宋 등 국은 2급의 국가이며, 陳·蔡·杞·曹 등 국은 3급의 국가였다. 2·3급의 국가는 대국과 ‘열국’이라고 불렸고, 나머지 소국은 열국의 私屬이 될 수밖에 없었다.

范文瀾, 『中國通史簡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 pp.49-50.

였다.<sup>102)</sup> 따라서 대국 간의 통혼은 ‘強強聯合’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통혼을 패업을 도모하는 일종의 책략으로 삼았고, 통혼에 매우 강렬한 정치적 특징을 부여했으니, 이것이 춘추시대 대국 혼인의 기본적인 특징이었다.

대국들이 경쟁하던 시기에 대국 주변에는 수많은 소국들이 분포하였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대국과 소국 사이에도 통혼이 분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혼인은 소국에게 완전히 유리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정 기간 대국에게 수혜를 받는 것 이외에도 종종 대국간 싸움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sup>103)</sup> 대국의 위협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국들 간에도 서로 적극적으로 통혼을 하였고, 이로써 소국 연합으로 대국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左傳』「僖公五年」에는 “江·黃·道·柏方睦於齊, 皆弦姻也”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04)</sup> 이러한 소국들은 楚國에 저항하기 위해 상호간 통혼의 방식으로 연합하였고, 종종 齊國과 교류하여 齊의 비호를 구하였다. 지역관계에서 볼 때, 이러한 소국들의 거리는 비교적 가까웠고, 모두 대국의 사이에 위치하여, 많은 경우 단거리의 혼인 결속 관계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정치적 필요라는 주관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지리와 국력이라는 객관적인 요인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춘추시대 비교적 두드러진 제후국 사이의 통혼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齊魯世姻’이 있다. ‘齊魯世姻’은 姬姜 二姓의 통혼 관례를 계승한 것으로 춘추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혼인이다. 小林伸二은 “특정한 국가와 장기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는 상황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春秋』에서도 오직 魯와 齊의 통혼 관계만이 두드러진다.”라고 지적한다.<sup>105)</sup> 周初에 처음으로 太公과 周公을 齊魯 양국에서 봉하고 그들에게 “世世子孫, 無相害也”을 바렸지만,<sup>106)</sup> 춘추 초기에 양국의 관계에는 틈이 생겼다. 隱公

102) 崔明德, 『先秦政治婚姻史』, 山東大學出版社, 2004, p.7.

103) 崔明德, 『先秦政治婚姻史』, 山東大學出版社, 2004, p.8.

104)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僖公五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392, “당시 江·黃·道·柏 4국은 齊國과 우호적 관계였고, 모두 弦國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105) 小林伸二, 「春秋時代の婚姻と外交」, 『大正大學研究紀要・人間學部・文學部』91, 2006.



즉위 후에 魯나라 고립된 외교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거나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隱公 6년(BC717)에 齊나라와 艾지역에서 맹약을 체결해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회복시켰다. 桓公 3년 “公子 翬이 齊에 가서 여자를 逆하고, 先君의 好를 닦고자”하여, 여기서 양국 간의 통혼이 시작되었다. 춘추시대 전체를 살펴보면 齊魯 양국의 통혼이 가장 빈번했으며, 魯나라는 桓公 이래로 齊에서 여자를 맞이하는 禮가 있었다.<sup>107)</sup> 춘추시대 천하는 대변혁의 시기에 들어갔고, 魯나라는 桓公·莊公·僖公 때 가장 강대하여 한때 齊나라와 東方의 霸主자리를 다투었다. 齊魯 양국의 교류가 강화되고, 문화가 융합되면서 齊魯 통혼의 출현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齊魯 양국의 통혼은 춘추 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王京龍이 말한 것처럼 “춘추시대 齊魯의 통혼은 齊魯 문화의 대융합이 되어 두드러진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sup>108)</sup>라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정치적인 통혼은 또한 양국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姬姓의 魯國과 姜姓의 齊國이 통혼했을 뿐만 아니라, 魯·晉·衛·鄭·邢 등 姬姓 제후국과 齊·申·許·紀 등 姜姓 제후국 사이에도 빈번히 통혼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衛莊公 夫人 莊姜·衛宣公 夫人 宣姜·晉獻公 夫人 齊姜·晉文公 夫人 齊姜·鄭武公 夫人 武姜 등은 모두 姬姜 二姓의 통혼이며 齊 桓公의 妻妾인 王姬·蔡姬·長衛姬·少衛姬·鄭姬·密姬 등은 대부분 姬姓 여자였다. ‘姬-姜’ 二姓 통혼은 춘추시대 각국 통혼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姬姜 二姓은 통혼을 통해 연맹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二姓의 통혼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姬姜 二姓의 통혼 이외에, 魯宋 간에도 많은 왕래가 있었다. 魯나라 서남

106)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僖公二十六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495-496, “옛날 周公·太公은 왕실을 보좌하고 成王을 도왔는데 成王이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에게 하사하며 맹약해 말하기를 ‘世世子孫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했다.”

107)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哀公二十四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1966-1967, “周公及武公娶於薛, 孝、惠娶於商, 自桓以下娶於齊, 此禮也則有.”

108) 王京龍, 「試說春秋時期的齊魯聯姻」, 『管子學刊』, 1993-01.

쪽에 위치한 宋나라는 魯가 통혼한 여러 나라 중 하나였다. 商의 후예로서 봉지가 睢水 유역에 있었던 宋은 그 남쪽과 동쪽에 陳·蔡·夷 등 소국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魯·衛가, 서쪽에는 鄭이 있어 姬姓 제후국의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에 춘추시대 宋은 姬姓 제후국과 많이 통혼하였다. 그러나 魯宋 양국 간의 통혼 상황을 보면 현실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다. 특히 춘추 초기에는 양국이 비록 여러 차례 회맹하고 통혼했지만 여전히 여러 차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양국 간에 서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魯나라와 그 주변 소국 사이의 통혼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춘추시대, 魯나라와 기타 국가의 정략 결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방면 혼인’이었다.<sup>109)</sup> 魯나라는 여러 차례 주변의 紀·杞·鄆·莒·邾·郯·鑄·胡 등의 나라와 통혼하였고, 이러한 나라들은 국력이 약하거나 혹은 노나라의 속국으로 그들은 노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노나라의 군사적 위협을 피하는 동시에 노나라에 기대어 다른 강국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였으니, 예를 들어 鄆魯의 통혼이 그러했다. 동시에 노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소국들과의 관계를 통해 ‘聯小抗大’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였는데, 魯紀 통혼이 그 예로 두 나라가 공동으로 齊의 군사 위협과 정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통혼의 방식으로 연합하였다. 이 시기 노나라 정략 혼인의 원인은 이와 같이 다방면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주로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국력이 쇠락해가는 노나라가 늘 강국의 위협을 받으며 저항할 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혼을 통해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국의 지원을 얻으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정치 통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陳昭容이 서주부터 춘추 때까지 漢水 유역과 淮水 중상류 각국의 혼인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적하길, “漢淮 지역 각국은 황하 유역의 국가와 혼인 관계를 많이 맺는다. 춘추 초기와 중기에는 주로 楚나라가 중원으로 확대되는 형국에 맞닥뜨렸기 때문이고, 춘추 중기와 말기에는 주로 吳·楚의 세력이 흥기했기 때문이다. 漢淮 지역의 상호간 혼인은 그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는 생존 방식이다.”<sup>110)</sup>

109) 崔明德, 『先秦政治婚姻史』, 山東大學出版社, 2004.

110) 陳昭容, 「從青銅器銘文看兩周漢淮地區諸國婚姻關係」, 『史語所集刊』 75本4分,

라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다른 문화가 族群에 융합되는 과정에 혼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보았다.<sup>111)</sup> 이 외에 陳昭容은 芮나라와 伾氏의 청동기 명문을 활용해 그 안의 혼인 왕래를 분석하여, 伾氏가 여러 姬姓 여자들을 맞이한 것은 주류 문화와의 융합과 관련 있으나, 芮나라와 왕실 모두 역방향의 요구가 없었고, 또한 왕실과 봉국, 중원 제후국과 이적의 통혼은 선택된 혼인 대상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그는 주변 族群이 중원 문화에 융합될 때 혼인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중원 제후국 또한 혼인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능했다.<sup>112)</sup>

천자가 처를 맞이하는 것과 달리, 제후들이 부인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제후국 군주의 딸도 있었고 타국이나 본국 경대부의 딸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제후의 딸은 보통 타국의 군주에게 시집갔고, 몇몇 상황 하에서 본국 혹은 다른 나라의 경대부에게 下嫁하기도 했다. 보통 제후국의 嫡女는 혼인하여 타국 군주의 부인이 되고, 함께 간 媵은 庶女가 된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周 왕실이 엄격히 ‘同姓不婚’을 지켰던 것과 달리, 예제질서의 저울 아래에서 춘추시대 제후들의 혼인은 국가의 이익을 특징으로 하여 비교적 많은 동성 결혼 상황이 출현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당시 귀족 각 계층의 혼인은 모두 매우 가문을 중시했으며, 그들이 결혼하는 것은 왕왕 그들에 필적하는 가문이었다.

당시 각국의 통혼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국에 있어서는 우선 군사동맹 결성이 있다. 특히 대국은 일관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어 정치 연합을 구축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맹약을 공고히 하여 정치적 연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로 대국은 때로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상대국을 취하기도 했다. 소국에는 첫째 대국에 의지해 생존을 노리고 통혼을 통해 대국의 비호를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 다음으로 통혼을 통해

---

2004.

111) 陳昭容, 「從青銅器銘文看兩周夷狄華夏的融合」, 『史語所集刊』 第2輯, 2009.

112) 陳昭容, 「兩周夷夏族群融合中的婚姻關係---以姬姓芮國與鬼姓伾氏婚嫁往來為例」, 『西周封國論衡---陝西韓城出土芮國文物暨周代封國考古學研究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4.

상대방 대국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다. 셋째로 때로는 보답의 의미로 통혼을 진행하기도 했다.<sup>113)</sup> 요컨대, 정치 목적성은 각국 통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었으며, 사실상 모두 통혼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던 것이다.

우선 군사 동맹을 살펴보면, 비교적 두드러진 사례로 晉秦 양국의 통혼이 있다. 당시 晉 公子 重耳가 秦나라로 流亡했을 때, 秦 穆公의 예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秦 穆公은 宗室의 여자인 文嬴를 重耳의 부인으로 삼고, 동시에 秦나라 여자 넷을 媵으로 하였다.<sup>114)</sup> 晉秦 통혼 후, 秦 穆公은 重耳가 귀국하여 군주 자리를 탈취하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重耳가 즉위한 후 秦과 극히 친밀한 동맹관계를 건설하였고, 기원전 632년 城濮전투에서 연합하여 楚를 누르고 晉이 패자가 되게 하였으니, “秦晉이 연합하면 楚를 대항하더라도 넉넉하다. 秦晉之交가 영원히 견고하다면 中國의 兵爭이 영구히 끝날 것이다. 따라서 秦이 아니고서는 晉을 이기는 나라도 없고, 晉 文公 외에는 秦을 능히 쓸 자도 없다.”<sup>115)</sup>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晉秦 양국은 통혼을 통해 동맹관계를 건설하였고 晉나라가 패권을 쥌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맹약을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비교적 두드러진 사례는 鄭과 陳의 통혼이다. 鄭 莊公은 일찍이 陳國과 강화를 요구했으나, 陳 桓公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鄭은 출병하여 대승을 거두었다.<sup>116)</sup> 이후 陳은 먼저 鄭과 강화하였고, 두 나라는 맹약을 맺는다. 이 맹약을 공고히 하기 위해 陳 桓公은 스스로 딸을 鄭 太子 忽에게 시집보냈고, 鄭이 허락하여 혼인이 성사된다.<sup>117)</sup> 崔明德은 맹약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의 통혼이 쌍방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

113) 崔明德『先秦政治婚姻史』중의 ‘先秦政治婚姻的目的’부분에 의하여 정리한 것.

崔明德, 『先秦政治婚姻史』山東大學出版社, 2004, pp.8-15.

114) 부록2 <춘추시대 각국 聯姻表・晉國>을 참조함.

115) 顧棟高, 『春秋大事表』「晉楚爭盟表」僖公29年, 北京:中華書局, 1993, pp.1984-1985, “秦晉合則可制楚而有餘, 使無穀之憂, 秦、晉之交永固, 中國之兵爭永息矣.是故非秦不能輸晉, 非文公不能用秦.”

116)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隱公六年」, 北京:中華書局, 1980, p.118.

117)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隱公七年」, 北京:中華書局, 1980, p.123.

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국이 강국에게, 패전국이 승전국에 취하는 새로운 굴종의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sup>118)</sup>

통혼을 통해 상대국을 취하려는 목적은 越의 사례에서 가장 뚜렷하다. 吳가 越을 이긴 후 越王 勾踐은 와신상담하였고, 이후 越國의 여자를 吳王 夫差에게 바쳤다. 越國 여자는 하루 종일 吳王 夫差에게 아첨하였고, 夫差가 여색에 빠져 國政을 느슨히 하고 아울러 國力을 돌아보지 않고 齊나라를 공격하게 하여 越이 허점을 노려 吳를 멸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통혼한 여자들은 선물로서 남편의 나라로 보내졌다는 특징도 있다.

소국의 사례에 있어 대국에 기대어 생존을 도모하려는 목적성은 매우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紀國은 당시의 소국으로 齊國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魯國과 통혼해 魯國의 비호를 기대하였다. 이후 또한 周 왕실과 통혼하여 紀侯는 딸을 周 桓王의 后가 되게 하였으니, 당시 紀가 齊로 인해 곤경에 처했으니 왕실에 혼인을 청하여, 보존되기를 도모하는計였다.

통혼의 방식으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은 소국들에 비교적 자주 보인다. 예를 들어 昭公 6년(BC536) 齊는 晉에게 함께 燕을 정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甞방이 한 번 회전한 뒤 燕은 齊國에게 뇌물을 보내 강화를 청했다. 甞방은 濡에서 맹약을 맺었고, 燕은 燕姬를 齊 景公에게 시집보냈다.<sup>119)</sup> 일련의 학자들은 이 통혼이 소국이 뇌물을 보내는 것과도 같은 굴욕적인 것이며, 명분상은 통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항의 다른 형태였던 것으로 본다.<sup>120)</sup>

보답의 뜻으로 통혼하는 사례는 춘추 초기 鄭齊 양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桓公 6년(BC706), 北戎이 齊를 공격하자 齊는 鄭에 구원을 요청했다. 鄭 太子 忽은 군사를 이끌고 齊를 구원하여 戎의 군사를 격퇴한다. 齊 僖公은 이에 감사하여 文姜을 太子 忽의 妻로 삼고자 한다. 비록 이 통혼은

118) 崔明德, 『先秦政治婚姻史』, 山東大學出版社, 2004, p.14.

119)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昭公六年」「昭公七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1420-1423.

120) 崔明德, 『先秦政治婚姻史』, 山東大學出版社, 2004, p.14.

太子 忽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齊가 보답의 의미로 결혼시키려 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sup>121)</sup> 물론 이는 당시 여성이 정치 통혼의 희생물이었다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당시 각국 간의 왕래 방식은 통혼 외에 또 하나 중요한 방식이 있었는데 즉 會盟이었다. 會盟은 춘추시대의 뚜렷한 역사 현상으로서 夏商시대 전에 발생하여, 서주시대에 형성되고, 춘추시대에 흥성하고 전국시대에 쇠퇴하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쳤다.<sup>122)</sup> 이것은 ‘媵婚’제의 발전 상황과 큰 유사성이 있다. 『春秋』에만 盟誓 관련 기록이 105곳에 있고, 『左傳』에는 160여 곳이 있다.<sup>123)</sup> 당시에는 각국 간 모순을 항상 會盟으로 해결하였다. 춘추시대의 會盟은 聯姻과 같이 그 양이 많고, 범위가 넓었으며, 효과가 커서, 당시의 정치·軍事·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제후들이 會하는 목적은 社稷을 지키기 위한 것”<sup>124)</sup>, “제후들이 옛날 맹약을 다시 申明하는 목적은 소국들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기 위한 것”<sup>125)</sup>이었으며, 會盟은 霸主가 공식적 지위를 확인하고<sup>126)</sup> 霸主政治를 실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대국들은 항상 會盟으로 패권을 다투었으며, 또한 霸主가 되는 것을 稱霸의 지표로 삼았다. 會盟을 통해서 대국들은 우호국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진영을 공고히 하거나, 혹은 중립국을 쟁취하여 귀순하게 하고 적대 진영의 세력을 약화시켰다.<sup>127)</sup> 또한 그들은 항상 전략적 위치가 중요한 나라를 쟁취하였다. 예컨대 晉楚爭霸시기에 晉·楚를 중심으로 하는 두 패권집단의 전략적인 안목과 술책에 의해, 宋·鄭은 晉楚가 서로 쟁취하는 대상이 되었다. 당시 宋과 鄭은 지리적으로 중원의 핵심

121)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桓公六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205.

122) 李模, 「試論先秦盟誓制度的歷史功用」, 『歷史研究』, 2001-01.

123) 呂靜, 『春秋時期盟誓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p.14.

124)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昭公元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316, “諸侯之會, 衛社稷也”

125)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昭公十三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531, “諸侯脩盟, 存小國也”

126) 莫金山, 「春秋列國盟會之演變」, 『史學月刊』, 1996-01.

127) 張全民, 「試論春秋會盟的歷史作用」, 『吉林大學學報』, 1994-06.

요충에 처하여, 쑤이 鄭을 끌어들이면 동쪽의 제후국들을 방어할 수 있고 楚가 宋을 끌어들이면 魯에 접근하고 쑤에 위협을 줄 수 있었다. 이것도 대국 정치적 혼인의 주된 요소와 목적이었다. 대국들은 혼인을 통해 더욱 많은 동맹국을 끌어들여 광범위한 동맹을 수립하고 패권 다툼에 유리하도록 힘을 축적하였다. 霸主는 때로 무력행사보다 會盟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누렸으며, 늘 會盟을 통해 禮制를 창출해내고 동맹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sup>128)</sup> 어떤 경우에는 동맹을 체결한 후에 일부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하기를 위해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나아가 동맹 관계에 더욱 견고한 보증을 제공하였다.

聯姻과 會盟은 다 각국이 정치적 동맹을 세우고 軍事적 동맹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방식과 수단이었으며, 아울러 각국이 되도록 무력행사 없이 국가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양자의 목적과 의미는 일정분 평화로운 국제 환경의 추구하고 달아 있었던 것이다. 즉 대국은 霸主之道를, 소국은 生存之道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각국, 특히 대국들은 聯姻과 會盟 활동에서 항상 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켰으며, 聯姻과 會盟이 효과적인 외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했다.<sup>129)</sup> 국가 간 이익 충돌이 생기면 각국은 보통 會盟을 매개로 화의하였고, 적대 쌍방이 모두 會盟에 참석하는 것을 화해의 표시로 삼았다.<sup>130)</sup>

경제·재정적 측면에서, 춘추시대 霸主들은 會盟으로 일종의 貢賦 제도를 만들어냈다. 당시에는 약소국이 왕실, 霸主, 대국에 貢賦를 납부해야 했으며, 각국은 왕왕 會盟으로 재정적 의무를 지우는 맹약을 맺었다.<sup>131)</sup> 盟誓하는 목적은 서로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각국은 會盟을 통해 재난이 발생할 때 상호 간 구제하고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길 거듭 천명하였다. 예컨대 淸丘之盟에는 “어려움이 있는 나라를 구제한다”고 약속했고,<sup>132)</sup> 宋之盟에

128) 張全民, 「試論春秋會盟的歷史作用」, 『吉林大學學報』, 1994-06.

129) 曾麗意, 「《左傳》盟約文化研究」, 『暨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130) 張全民, 「試論春秋會盟的歷史作用」, 『吉林大學學報』, 1994-06.

131) 張全民, 「試論春秋會盟的歷史作用」, 『吉林大學學報』, 1994-06.

132)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宣公十二年」, 北京: 中華書局, 1980,

는 “함께 재난과 위기를 구제하고, 기근과 환란에는 도와준다”고 약속했으며,<sup>133)</sup> 亳之盟에는 “기근을 구제하고 화란을 안정시킨다”<sup>134)</sup>고 약속하였다. 이것은 어느 정도 백성들이 유민이 되는 것을 감소시켰고, 사회 생산 및 생활 질서를 안정시키기도 했다. 나아가 당시 단기간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會盟과 달리, 聯姻에서는 보통 재정적인 맹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정치적 혼인이 婚姻國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즉 聯姻을 통해 쌍방이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이런 안정된 국제 환경이 간접적으로 婚姻國 간의 경제 왕래와 무역거래를 강화하고 나아가 상호간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 聯姻과 會盟은 문화 교류 면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춘추시대에 중원 각국은 자주 주변 나라와 여러 가지 형식의 문화적 왕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원 각국끼리뿐만 아니라, 夷狄과의 禮俗 교류도 빈번하게 되어 문화적 교류와 융합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聯姻과 會盟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다.<sup>135)</sup> 예를 들면 軍事적 동맹에 의한 대항 구도는 전쟁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媵婚’제의 성행은 이런 상황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전쟁을 국제화시키고 확대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聯姻과 會盟에 의해 동맹 진영 간의 전력 비율이 종종 전도되었고, 나아가 이것이 새로운 전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보통 會盟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전쟁이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력 충돌 후에 적대 쌍방은 휴전을 위해 會盟을 거행하였다. 會盟은 전쟁의 일시적 종결이며, 전쟁 쌍방이 結盟의 형식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시켰다.<sup>136)</sup> 전국시대에 이르면 ‘전쟁한 후에盟하고,盟한 후에전쟁한다’는

p.757, “晉原穀、宋華椒、衛孔達、曹人同盟於清丘。曰：「恤病，討貳。」”

133)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成公十二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859, “同恤菑危, 備救兇患”

134)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襄公十一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031, “救災患, 恤禍亂”

135) 李模, 「試論先秦盟誓制度的歷史功用」, 『歷史研究』, 2001-01.

136) 張全民, 「試論春秋會盟的歷史作用」, 『吉林大學學報』, 1994-06.



상황은 흔히 볼 수 있었다. 다만 일반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會盟의 영향은 더욱 컸다. 예컨대 晉 文公·晉 襄公이 稱霸한 시대에는 “제후들이 3년에 한번 聘問하고 5년에 한번 朝覲하였으며, 일이 있으면 會하고 화목하지 않은 경우 盟하였다.”<sup>137)</sup>고 한다. 朝聘과 會盟이 빈번하기에 貢幣의 부담도 날로 가중되었다.

이처럼 會盟과 聯姻은 춘추시대 각국의 왕래와 대국 패권 다툼의 효과적 인 방식으로서 당시 사회의 각 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제후의 정치 통혼이 혼인국과의 관계에 주는 영향 또한 매우 중요했다. 통혼한 두 나라는 “長久하게 兄弟之國을 맺”<sup>138)</sup>었으며, 외숙·사돈 관계를 맺는 것은 쌍방의 맹약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주었다. 비록 이런 맹약은 장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결속력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魯 宣公은 齊國과의 통혼 후 兄弟之國이 되었고, 이 통혼에 의해 魯 文公시기 양국의 빈번한 전쟁이 종결되었으며, 魯齊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었다. 宣公 3년부터 양국의 통혼이 시작되어 宣公이 죽기까지 齊魯 쌍방은 계속 화목하게 지냈고, 우호 관계 또한 깊어졌다. 宣公이 재위한 18년 동안 魯國의 군신은 빈번히 齊를 방문했고, 宣公이 친히 齊에 간 것도 다섯 차례나 된다. 齊國에서는 군사로 魯國을 위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齊 惠公 원년 ‘魯濟西之田’<sup>139)</sup>을 魯國에게 돌려주기까지 했다.

물론 모든 통혼이 제후국의 외교관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아니며, 국가간 근본적인 이익 충돌은 계속 존재했다. 통혼으로 정치적 동맹을 수립하는 것은 잠시 혼인국 간의 화목을 보장하였지만, 중국에는 각국의 이익 때문에 붕괴되기도 했다. 때로는 일이 틀어져 쌍방간의 전쟁을 유발하기도 했다. 비록 통혼하였어도, 대국은 보통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소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했다. 예를 들어 邾魯 사이에는 비록 혼인 관계가 있었지

137)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昭公三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356, “令諸侯三歲而聘, 五歲而朝, 有事而會, 不協而盟.”

138) 司馬遷 撰, 張守節 正義, 司馬貞 索引, 裴駟 集解, 『史記』卷70「張儀列傳」, 北京: 中華書局, 2013, p.2766, “秦楚娶婦嫁女, 長為兄弟之國.”

139)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宣公十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718.

만, 춘추시대가 끝날 때까지 魯國은 邾國에 대한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顧棟高는 『春秋大事表』에서 李廉의 말을 인용해 “춘추 안에 군대가 정벌한 기사는 20건밖에 없다. 그 중에 公이 邾를 정벌한 것이 6개, 大夫가 邾를 정벌한 것이 8개, 단지 邾를 정벌했다고만 쓰인 것이 1개이다. 邾는 魯의 영역 안에 처하였음에도 약소국을 침략하는 군사행동이 있었으니, 史書에서 기록하기를 그치지 않음이 이와 같다.”<sup>140)</sup>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魯國의 邾國에 대한 공격 빈도가 양국의 통혼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략 결혼이 가져온 긍정적인 작용은 주로 혼인 당사국 군주들이 재위한 기간에 집중되고, 군주가 사망하고 나면 쌍방의 우호 관계가 곧장 와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군주가 재위하는 기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소국에 있어 정략 결혼은 충돌을 피하고 전쟁을 감소시키거나 쌍방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능을 발휘했다.

각국간의 통혼은 한편으로는 대국이 패권을 다투는 과정을 가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혼인 쌍방은 대부분 안정성, 상호성, 우호성 등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쌍방이 조정할 수 없는 이익 충돌로 인한 단절이 생기곤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통혼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간의 충돌을 피하고, 전쟁을 감소시키기도 했기에, 혼인관계에 기초한 정치적 동맹을 성립시키고,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긍정적 의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2. 贈禮 외교와의 비교

서주의 사회체제는 周王을 ‘天下共主’로 여기며 왕실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연합체이다. 이러한 연합체 속에서 왕실과 제후 간, 제후와 제후 간 빈번

<sup>140)</sup> 顧棟高, 『春秋大事表』 「魯邾莒交兵表」, 北京: 中華書局, 1993, p.2107, “春秋內兵之伐國僅二十, 而書公伐邾者六, 書大夫伐邾者八, 止書伐邾者一. 邾在魯之宇下, 而陵弱侵小之兵史不絕書如此.”

한 왕래는 중국 고대 외교의례와 규범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서주가 외교의례규범을 만든 이후, 제후의 朝賀 및 각 제후국 간의 왕래는 모두 엄격한 외교예제상 규범에 따라 실시되었다. 禮를 제정할 당시 周公은 기존의 의례에서 ‘禮物’의 작용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주공의 禮物 중시는 그가 의례제도의 각 항목을 제정할 때에 국가 간 외교활동 시 禮物를 서로 贈送하는 의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sup>141)</sup>

聘禮은 중국 고대 최초의 외교의례이다. 서주에서 춘추 전국 시기까지 제후국들이 외교관계를 발전시킬 때에는 일반적으로 會盟의 방식을 이용하였다. 만약 제후국 간에 오랫동안 會盟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자를 파견하여 서로 聘問하였다. 聘이란 곧 문후의 의미로, 聘禮는 곧 제후국이 天子에게 問候를 드리거나 제후국끼리 서로 문후하는 예절이다. 『儀禮』 「王制」의 기록에 따르면 “제후는 천자에 대해 매년 한 번 大夫를 파견해서 聘問해야 하고, 3년에 한 번 卿을 파견해서 聘問해야 하고, 5년에 한 번 직접 朝見해야 한다.”<sup>142)</sup>라고 하여, 각국은 聘禮를 행할 때 서로 禮物를 주고받았다. 제후국 간 聘을 하는 주된 목적은 吊賀나 盟友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국교를 견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상호평등·상호존중과 이웃 간의 화목 및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禮制에는 聘禮의 각 항목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聘禮를 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禮에서 서로 왕래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禮尚往來) 추구하였으며, 이 역시 일종의 평등 외교를 구현한 것이었다. 聘禮는 강한 정치적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聘禮의 가장 주된 목적은 周 天子의 ‘天下共主’로서의 지위를 드러내어 왕실과 제후국 간의 관계 및 각 제후국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어 사회질서와 天子의 통치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聘禮에서 필요한 禮儀 형식이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외교활동 중 ‘禮物’ 역시 ‘禮’의 內核의 목적을 드러내고 강화하였다. 進貢·賞賜와 상호 贈送하

141) 張健, 『先秦時期的國禮與國家外交』, 北京: 文物出版社, 2013, p.75.

142) 鄭玄 注, 孔穎達 疏, 『禮記正義』 「王制」, 北京: 中華書局, 1980, p.422, “諸侯之於天子也, 比年一小聘, 三年一大聘, 五年一朝.”

는 禮物은 모두 儀式과 반드시 부합해야 했다.<sup>143)</sup> 제후국 간의 聘問는 엄격한 의례에 따라 행해졌다. 『周禮』에는 천자와 제후, 제후와 제후 간의 왕래에 관한 각종 의례가 기재되어 있는데, 禮物과 관련 있는 官制와 規定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 제후가 玉帛·金·玉·齒·革·兵械 및 진귀한 물건을 진상하면, 모두 內府로 귀속되어 內府가 관장하였는데, 四方의 사신이 사절로 온 경우 그들에게는 제후에게 贈送할 禮物을 제공하였고 周王 혹은 冢宰가 군신에게 賞賜한 禮物 역시 內府가 제공하였다. 또 內府는 小宗伯이 대규모로 각 제후국의 빈객을 접대할 때에는 헌상된 禮物을 접수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다. 『儀禮』 「聘禮」에는 使者의 파견부터 禮物의 준비, 出使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목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은 등급의 고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물로 주는 禮物의 품종과 수량 역시 각각 달랐다. 送禮은 제도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禮物은 각국 간 왕래에 있어서 일종의 매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춘추시대에 이르면, 제후 간의 패권다툼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국 간의 왕래 역시 더욱 빈번해졌다. 주된 외교방식 중 하나인 聘禮 역시 각국 간의 연결과 왕래를 더욱 활발히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춘추 사회의 형태는 서주와는 달랐는데, 즉 서주 전체를 하나의 ‘國家’로 여기는 형태에서 복수의 ‘國家’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張健이 말한 그대로 ‘춘추시대 제후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國家實體’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춘추시대 각 제후국의 관계는 ‘主權國家’ 간의 관계였으며, 이는 국제관계 범주에 속하는 외교관계였다. 본질적으로 모두 전쟁과 화평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었다.<sup>144)</sup> 왕실 또한 쇠퇴로 인해 세력범위가 끊임없이 축소되어 실제로 이미 일개 제후국의 처지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춘추시대 각국 간의 외교는 실질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관계였다. 따라서 춘추시대 각 제후국이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서로 禮物을 주고받는 행위는 ‘國禮’의 범주에

143) 張健, 『先秦時期的國禮與國家外交』, 北京: 文物出版社, 2013, p.74.

144) 張健, 『先秦時期的國禮與國家外交』, 北京: 文物出版社, 2013, p.124.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의 중요한 외교적 매개였다.<sup>145)</sup>

그러나 이때 다량의 禮物을 贈送하는 배경에는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때로는 부득이하게 다량의 禮物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索禮’ 현상은 더욱 많이 존재했다. 제후들의 다툼으로 인해 전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때로는 단 한 마디의 농담이나, 한 번의 초대, 한 개의 물건, 한 번의 은원, 심지어 한 명의 여자로 인해 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국까지 말려들어 가세하기도 하였다.<sup>146)</sup> 주지하다시피 춘추시대의 외교는 주로 ‘尊王攘夷’와 ‘稱霸諸侯’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尊王攘夷의 최종목적은 여전히 稱霸諸侯를 위함이었다. 때문에 각국의 聘禮행사 역시 이러한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贈送한 禮物에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예컨대 秦 穆公은 일찍이 禮로써 晉國에 인재를 구한 적이 있었다. 기원전 654년, 秦 穆公은 晉侯의 장녀인 伯姬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伯姬의 혼인을 따라 秦으로 가는 인원 百里奚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伯姬가出嫁하는 도중에 楚國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秦 穆公은 百里奚가 雄才大略之人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사람을 시켜 5張짜리 公羊皮를 가지고 楚國에 가서 百里奚를 찾게 하였다. 百里奚는 이로 인해 ‘五穀大夫’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밖에 秦은 일찍이 魯에서도 送禮를 하여 晉나라를 伐할 것을 요청한 적도 있다. 기원전 615년, 이때 使者로 西乞術을 파견하여 禮物을 지니고 魯에 가서 聘問하게 하였는데, 晉 정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襄仲이 상황을 보고서 감히 玉을 받지 못하자, 西乞術이 말하길 “저희 임금님이 바라시는 뜻은 周公·魯公으로부터의 福祿을 구하고 귀국의 국군을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先君의 기물이지만, 미천한 저로 하여금 받들고 이르게 하시어 상서로운 信物로 삼아 서로 우호관계를 맺었으니, 그로써 저희 임금님의 명을 드러내어 友好관계를 체결하고자 하기에, 이 때문에 감히 致送하게 되었습니다.”<sup>147)</sup> 이에 魯나라는 秦의 禮를 받아들이고

145) 張健, 『先秦時期的國禮與國家外交』, 北京: 文物出版社, 2013, p.124.

146) 張健, 『先秦時期的國禮與國家外交』, 北京: 文物出版社, 2013, pp.124-125.

동시에 厚禮로써 回贈하였다. 같은 해 겨울 秦은 바로 晉을 토벌하여 승리를 거둔 뒤 되돌아갔다. 齊나라 또한 일찍이 厚禮로써 衛의 社稷을 보존한 적이 있다. 衛 懿公의 死後, 衛나라는 國君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齊 桓公이 귀국하려는 衛 公子 毀에게 良馬 1乘과 祭服 5稱, 牛·羊·豬·雞·狗 300隻, 美錦 30端 및 宮室을 중건할 용도의 목재 1批를 선물로 주었다. 衛 公子 毀가 귀국하여 즉위하니 이가 衛 文公이다. 齊 桓公은 다시 宋·魯·曹·邾 등의 國君과 논의하여 衛와 邢에 城池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齊 桓公의 각종 美義는 제후들 사이에서 예찬의 대상이었는데, 이 또한 그의 霸主로서의 지위를 견실하게 다지는 기초가 되었다. 이 밖에 鄭나라가 土地를 선물로 주어 동맹국을 쟁취하거나, 齊나라가 厚往薄來 稱霸諸侯하거나, 晉이 贈禮를 통해 楚를 징벌하여 승리를 얻어 稱霸했던 일, 그리고 楚나라가 稱霸한 이후 鄭나라의 ‘九獻’之禮를 받아들였던 것, 및 나중에 몇가 稱霸하여 越이 나라를 바쳐 送禮하였던 일 등등 대국 간에, 대국과 소국 간에, 소국 간에 모두 送禮하여 왕래함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모두 본국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삼아 특히 霸主가 완전한 패권을 도모하기 위해 외교를 전개한 것이다.

각종 외교 의례 중 朝聘禮 또한 일종의 특수한 외교 의례이다. 그 등급의 원칙은 朝覲과 聘問 때의 ‘贄見禮’의 의례에 반영되어 있다. 朝聘禮는 周 왕실과 제후국의 외교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天子의 지위가 쇠퇴하고 예악제도가 붕괴함에 따라 朝聘禮는 금방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하는 외교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에 불평등한 지위가 반영되었다. 춘추시대 제후국은 천자에게 ‘大不敬’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약소제후국조차도 이미 형식상 천자에 대해 행하는 의례를 강대국의 國君에게 행하기 시작했다.<sup>147)</sup>

I 장에서 다루었던 제후 간의 혼인은 바로 이러한 贈禮外交의 일종이었다. 시집가는 딸은 때로 일종의 ‘禮物’로 간주되어 타국으로 보내졌다. 앞서 논

147)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文公十二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620-621, 西乞術言: “寡君願徼福於周公、魯公以事君, 不腆先君之敝器, 使下臣致諸執事, 以為瑞節. 要結好命, 所以藉寡君之命, 結二國之好, 是以敢致之.”

148) 張健, 『先秦時期的國禮與國家外交』, 北京: 文物出版社, 2013, p.100.

한 ‘媵’의 경우, ‘媵’이 되는 陪嫁의 女子는 더욱 ‘禮物’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예컨대 秦 穆公이 딸을 쫘 公子 重耳에게 시집보낼 때 秦의 여인 4명을 媵으로 삼아 함께 시집보냈다. 어떤 제후국에서 딸을 시집보낼 때 타국에서 媵이 와서 때때로 嫁女國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본국의 서녀를 賀禮로 삼아 서로 보내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본국의 모종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서로 媵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어느 제후국에서 딸을 시집보낼 때 타국에서 딸을 媵으로 보낼 뿐 아니라 동성제후국에서도 媵器를 서로 주는 정황도 존재했다.<sup>149)</sup> 때로는 심지어 이성제후국에서도 媵器를 보냈다. 1국이 딸을 시집보내는 나라에 媵器를 선물로 주는 것은 기분을 맞춰주거나 혹은 양국 간의 감정을 돈독히 하기 위한 뜻으로,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媵人은 물론이고 媵物조차 모두 당시 각국이 정치적 목적 위주의 외교활동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처럼 贈禮外交와 혼인외교는 모두 매우 강한 정치적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요목적은 바로 왕실과 제후국, 제후국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혼인외교는 일정 수준에서 딸에게 ‘禮物’의 성격을 부여하여 벌이는 외교활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효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다.

### 3. 質子와의 비교

춘추시대에 ‘禮壞樂崩’과 제후 爭霸라는 현상이 현저해짐에 따라, 종법 제도와 ‘禮’에 의한 정권 조직 구조가 점차로 느슨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天子와 제후, 각 제후국 간 그리고 제후국 내부에서도 여러 갈등과 이익 충돌이 생겼다. 이 와중에 서로 신뢰를 강화하고 각종의 갈등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중요인물의 人身을 인도/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 ‘인질’ 현상이

<sup>149)</sup> 陳昭容은 <豐伯孟父簋>에 대한 분석을 참조함. 陳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 p.226.

나타났다.

인질이란 말 그대로 人身을 보증으로 삼아 상대방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사료에서는 ‘質子’ 혹은 ‘侍子’로 기재되어 있다. 기존 사료를 고찰하면 질자 납입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720 년의 소위 ‘周鄭交質’이었다.<sup>150)</sup> 그 이후로 제후들이 서로 질자를 보내고 확보하는 것은 국제 교섭의 관례가 되었다.

춘추시대에 다른 나라에 인질로 파견된 자는 대부분 太子, 公子나 世子였으나, 종종 卿大夫나 卿大夫의 자도 있었다. 太子와 公子 등은 국군의 상속자로서 지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일단 타국에 인질로 가면 그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대우도 함께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단 양국의 평시 관계가 결렬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질자 자신의 처지도 위험해지고 심지어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 중국 고대에는 질자를 파견하는 것도 ‘納質’이나 ‘遣質’이라고 불렀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3 가지 의미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 번째는 상호 신뢰가 없는 양국이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한, 일종의 신뢰를 얻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과 갈등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수준이 높지 않은 양국이 이를 강화하기를 위해서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각 제후들이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증진하기를 위해서 취한 외교 수단이라는 것이다.<sup>151)</sup> 이 3 관점을 보면 모두 다 의심을 제거하고 신뢰

---

150)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隱公三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84-85, “鄭武公、莊公為平王卿士.王貳於虢.鄭伯怨王, 王曰:「無之。」故周、鄭交質.王子狐為質於鄭, 鄭公子忽為質於周.”

鄭 武公 및 그 자 莊公은 周 平王을 도와 東遷에 功을 세워서 대대로 왕실의 卿士를 맡고 大權을 장악하였다. 이후에 平王은 鄭 莊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莊公의 정권을 虢에 나누어 주었다. 장공이 이에 반발하자 周와 鄭은 갈등관계에 돌입했다. 平王은 莊公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양방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鄭과 인질을 교환하였다. 平王은 王子 狐를 質로 鄭에 보내고 鄭 公子忽이 質로 周에 갔다. 이는 춘추시대 역사상 첫 번째 交質 사건이며, 현전 사료 중에서는 가장 이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후로 제후국 간에서 서로 인질을 파견하는 것이 춘추시대에 자주 보이게 되었다.

151) 成琳, 「兩漢時期民族關係中的‘質子’現象」, 『新疆大學學報』, 2006-01.



를 강화하는 것을 주지로 삼는 것이다.

인질 현상이 발생한 것은 당시 ‘信任’ 위기의 산물이다. ‘納質’은 이를 타개하고자 춘추 전국 시대에 국가 관계를 조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쌍방이 계약 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단기간에 양측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각국이 질자를 파견하는 목적과 원인은 서로 다른데, 주로 징발을 면하는 것,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것, 지원을 구하는 것, 대국의 힘을 믿고 생존을 강구하는 것, 강화 및 修好, 동맹을 맺고 이를 공고히 하는 것, 토지를 취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약소국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盟會·賄賂에 더하여 심지어 질자를 파견한 것은, 그들이 생존하는 데에 긴요한 수단이 되었다. 張胡玲은 소국이 ‘納質’을 통해서 自保를 강구하는 것을 ‘守勢外交’라고 설명했으며, 대국의 질자 파견 행위를 ‘遠交而近攻’이란 책략 운용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攻勢外交’라고 지적했다.<sup>152)</sup> 소국은 보통 인질을 보내 대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고, 패전국도 戰勝國에 질자를 파견해 화해를 청한다(求和). 또한 일부 대국들이 인질억류에 의해 소국에 토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컨대 인질은 대부분 계획적이고 강제적으로 파견되고 확보된 것이며, 이는 혼인에 의한 관계 조성과는 유사하다. 왕실이 衰微하고 각 대국들이 정치를 좌우함에 따라 인질 문제도 과거의 誠信과 자원 원칙을 벗어나, 다소 약탈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협박하고 순종케 하는(馴服) 수단이 되었다.

交質 현상은 춘추 初年에 나타나 춘추 중후기에 성행하고, 전국시대에는 보편화되었다. 춘추시대의 질자 파견은 전국시대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편인데. 그 원인을 일각에서는 “天子的 권위가 약화되었더라도 霸主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위력보다는 信義에 의거해 외교관계를 주도해 나갔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sup>153)</sup> 한편 전국시대에 이르러 질자 현상은 중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도 확장되어 나가며 보편적인 국제현상이 되었다. 또한 전적으로

152) 張胡玲, 「通過‘質子’現象看秦國在戰國時的地位」, 『歷史文化』.

153) 馬非百, 『秦集史』 「質子表」, 中華書局, 1982, p.930, “蓋在霸主盛世, 王綱雖解, 信義猶存. …霸者以信義相號召, 故不以威力脅人.”

인질을 억류해 두는 처소인 ‘質宮’이 출현했다.<sup>154)</sup> 납질의 빈도가 늘어난 것은 각국 간의 신의가 가일층 상실된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sup>155)</sup> 이는 한편으로 분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각국이 새로운 禮樂 제도와 기반사상을 다시 확립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을 預示해 주기도 한다.<sup>156)</sup>

질자 외교는 혼인 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모두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지연정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당시의 질자 파견 양태는 대략 3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왕실과 제후국 간의 인질 파견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 춘추 초기의 ‘周鄭交質’이며, 이는 춘추시대 천자의 권위 및 왕실 지위가 쇠락했다는 지표이기도 했다.

두 번째는 제후국 간의 인질 파견이다. 이는 춘추시대는 물론 모든 질자 외교의 가장 보편적인 양상이자 형식이었다. 열국이 대등한 지위로 인질을 교환했던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패전국이나 약소국이 일방적으로 전승국-강대국에 인질을 파견했으며, 이를 맹약을 지키는 보증으로 삼았다. 양방이 모두 인질을 보내는 경우와, 한 쪽만이 인질을 보내는 두 가지 형식이 있었다. 전자는 사료에 많이 보지 않으며, 현존 사료에 전하는 양국이 서로 인질을 교환하는 사건은 隱公 3년의 周鄭交質, 文公 17년의 晉鄭互質, 그리고 昭公 20년에 宋나라 내부의 互質 정도이다. 후자, 즉 일방적인 납질이 당시 보편적이었다. 宣公 때부터 哀公 시기까지 일방의 인질 파견은 그 시기 질자 외교의 기본적인 형식이었고, 물론 주로 약소국이 강대국에 질자를 파견하는 것이었다. 이외에 강대국들이 서로 질자 외교를 벌이기도 했다. 이는 『穀梁傳』의 “浩誓는 五帝에 미치지 못하고 盟詛은 三王에 미치지 못하고 질자를

154) 成琳, 「兩漢時期民族關係中的‘質子’現象」, 『新疆大學學報』, 2006-01.

155) 馬非百, 『秦集史』 「質子表」, 中華書局, 1982, pp.930-931, “蓋在霸主盛世, 王綱雖解, 信義猶存…霸者以信義相號召, 故不以威力脅人.春秋、戰國, 同屬東周, 然實截然兩世, 其間相異之點甚多…戰國諸侯交質之數, 為春秋之四倍, 足證戰國時信義全無, 而諸國猜忌日甚也.”

156) 許鴻洋, 「淺談春秋時期的人質問題」, 『隴東學院學報』, 2010-01.

교환하는 것은 五伯에 미치지 못한다.”<sup>157)</sup>이라 는 구절과는 매우 동떨어진 현실이었다.

세 번째는 公室과 卿大夫 家族 간의 인질 교환이다. 이는 대부분 춘추 중 후기 이후에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昭公 20년 宋 元公과 그의 卿大夫 간에 있었던 질자 교환 사건이다.<sup>158)</sup> 이와 같은 질자 교환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통설 상 춘추 중후기 이후 열국의 정권이 대개 국군으로부터 경대부들에게 이전되어간 과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孫瑞는 장기적인 爭霸 과정에 卿大夫들이 자주 독립적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며 스스로의 정치 군사적 권리를 확대시켰으며, 또한 卿大夫들이 대부분 분봉제도에 의거해 자신의 采邑과 封地를 갖추고 封君으로서 지방에서 종족 단위로 할거하는 강대한 세력을 형성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춘추 중기 이후로 열국의 정권은 병권을 장악한 公族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童書業도 춘추 중엽에 이르러 제후의 정권이 점차로 大夫의 수중에 떨어지고, 춘추 말기에는 숫제 大夫가 독재적 정치를 했으며, 심지어 魯나라에서는 한때 家臣이 국정을 좌우하기도 했음을 지적한다.<sup>159)</sup> 결국 흥기한 卿大夫들이 제후와 권력을 다투게 되었기에 인질 교환이 이 사이에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전 사료에 의거하여 춘추시대의 질자 사건을 정리하면 25 건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나라를 표기하여 아래에 빈도를 도식화하였다.

157) 范甯 集解, 楊士勛 疏, 『春秋穀梁傳注疏』 「隱公八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30-31, “誥誓不及五 帝, 盟詛不及三王, 交質子不及五伯.”

五伯은 춘추시대 다섯 명의 霸主를 가리킨다. 다만 成玄英만은 ‘五伯이란, 昆吾가 夏伯, 大彭·豕韋가 殷伯, 齊桓·晉文이 周伯이며, 함께 五伯이라고 불린다.’ 이라고 疏하였다.”

『呂氏春秋』 「當務」: “備說非六王五伯”, 高誘는 ‘五伯은 齊桓·晉文·宋襄·楚莊·秦穆다.’라고 註하였다.

158)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昭公二十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600-1601, “華亥는 宋 元公 太子 欒 및 그의 母弟 辰과 公子 地를, 宋 元公은 華亥의 子 無感 및 向寧의 子 羅 및 華定の 子 啟를 質로 삼았다.”

부록1<春秋質子表>를 참조함.

159) 童書業, 『春秋左傳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p.94.

<春秋交質國地域分佈圖>



도식에서 볼 수 있듯 춘추시대 200 여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인질 현상이 나타났다. 그 중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楚나라다. 魯 宣公 때부터 楚나라가 타국과 인질 외교를 진행했고, 鄭·宋·魯·衛·許 등이 모두 楚에 질자를 파견했다. 그 다음에는 晉나라다. 齊나라가 宣公 18년, 襄公元년에 두 번 晉나라에 인질을 파견했으며, 蔡侯가 定公 3년에 晉에 그 의子 元和 大夫의 子를 질자로 晉에 보내고 楚를 정벌하기를 청하였다. 당시 楚 莊王이 패자를 칭하며 楚와 晉이 爭霸하는 상황이 그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晉과 楚가 각각 북·남 지역에 위치하며, 황하 유역과 장강 유역에 처한 두 강대국으로서 爭霸를 벌이며 이 시기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당시의 질자 외교도 晉楚 양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것이다.

각 交質國의 지역 분포 상황을 보면, 晉·楚·秦·吳 4 霸主는 각각 북, 남, 서 동 4방위에 처하고, 鄭·宋·魯·許·蔡 등은 모두 중원 지역에 위치하며, 霸主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둘러싸는 형국이었다. 이 중원 제후국들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하기에 霸主들은 서로 앞다투어 이들과 관계를 맺었고, 동시에 이들은 霸主가 패권을 세울 때 쟁탈하는 이익물이 되었다. 그래서 중원 제후국들 대부분은 霸主들과 질자 왕래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宣公 12 년 ‘鄭의 子良이 楚의 인질이 된 것’,<sup>160)</sup> 宣公 14 년 ‘鄭의 子張이 楚의 인질이 된 것’<sup>161)</sup>과 宣公 15년 ‘宋의 華元이 楚의 인질이 된 것’<sup>162)</sup>이다. 이 3 번의 질자 파견은 모두 楚晉 간의 爭霸 시기에 있었으며, 鄭과 宋 양국이 楚에 질자를 파견해 전쟁을 중지하고 휴전협정을 맺거나 楚에 의지하여 지원을 구하고자 했던 사례이다.

질자와 비교하면 聯姻 현상이 관련된 나라가 더욱 많고 지역 범위도 더 넓다. 晉과 楚만 놓고 보더라도, 두 霸主는 상기 중원 제후국들과 빈번하게 혼인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변 국가 및 夷狄과도 혼인 관계를 맺었다. 심지어 晉과 楚 양국도 직접 혼인관계를 성립시켰다. 예컨대 晉과 楚가 각각 쟁패구도에서 균형을 이루었을 때, 楚 靈王은 晉 平公의 딸을 맞았다.<sup>163)</sup> 여기에는 질자 외교가 개재되지 않았다. 즉 혼인 외교가 당시 더 보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수행 인원의 측면에서, 질자와 嫁女는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갖고 있다. 통상 납질하는 나라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臣屬 혹은 宗親을 질자와 함께 상대국으로 보내어 함께 지내도록 한다. 예컨대 『左傳』 「僖公十七年」에 “晉太子 圉가 질자로 秦에 갔다…子 圉를 질자로 하고 妾을 宦女로 했다.”는

160)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宣公十二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730, “退三十裏, 而許之平. 潘尙入盟, 子良出質. 夏, 六月, 晉師救鄭.”

부록1<春秋質子表>를 참조함.

161)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宣公十四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760, “夏, 晉侯伐鄭, 為郟故也. …鄭人懼, 使子張代子良於楚. 鄭伯如楚, 謀晉故也.”

부록1<春秋質子表>를 참조함.

162)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宣公十五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p.768-769, “楚師將去宋…宋及楚平, 華元為質. 盟曰: 「我無爾詐, 爾無我虞.」”

부록1<春秋質子表>를 참조함.

163) 杜預 注, 孔穎達 疏, 『春秋左傳正義』 「昭公五年」, 北京: 中華書局, 1980, p.1392.

부록2<춘추시대 각국 聯姻表· 楚國>참조함.

내용이 있다. ‘妾’은 太子 圉의 여동생이며 圉를 따라 秦나라에 가고 侍女가 되었다. 춘추 시대에는 大夫가 太子나 公子를 따라 같이 인질로 가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예컨대 文公 17년에 鄭의 太子인 夷와 大夫인 石楚가 인질로 쫓겨 갔다. 成公 17년에는 鄭의 太子인 髡頑과 大夫인 侯孺가 질자로 楚에 갔다. 함께 流亡하거나 인질이 된 이 귀족들은 질자를 위해 여러 책략을 도모하고, 그를 도와 귀국시키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질자가 귀국한 뒤에는 邑이나 작위 등의 봉상을 받을 수도 있었다. 수행 인원의 수와 규모에 관해서는 사료에 상세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哀公 원년 勾踐이 “卑躬屈膝하게 夫差를 侍奉하고, 宦士 300인을 파견하여 吳에서 奴僕를 맡았다”<sup>164)</sup>라는 기록에 의거하면 당시에 수행 인원의 수량과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嫁女 역시 많은 인원이 수행했으며, 出嫁한 여자의 媵 중에는 상당수의 남녀 臣妾도 있었다. 다만 ‘他國往媵’과 유사한 상황은 질자 외교에는 없었다. 즉 한 나라가 질자를 파견할 때 다른 나라도 함께 질자를 附應하여 파견하는 사례는 적어도 현전 사료 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여자의 부모나 同姓長輩가 대량의 媵器도 제작해 함께 보내어 夫家에서 祭祀 혹은 생활에 사용하게 했던 양상 역시도 질자 파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국의 동료나 親族舊識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질자와 嫁女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질자가 본국의 인물들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본국 내에서의 지위와 정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본국의 동료와 親族은 한편으로 질자와 情誼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를 도와 귀국시키려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질자의 생사와 이익을 돌보지 않는 등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嫁女도, 본국에서 이해관계로 인해 出嫁한 여자를 포기하고 그 안위를 돌보지 않을 수도 있기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국익을 사익보다 우선한 것이다. 그러나 본국의 親族舊識이 여자들을 도와주어 귀국시킨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sup>164)</sup> 左丘明, 『國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p.634, “然後卑事夫差, 宦士三百人於吳”

질자 외교와 혼인 외교는 표면적으로 서로 평행한 관계가 있는 듯하지만, 때로는 서로 연계되기도 했다. 질자가 인질로 가 있는 나라의 국군 및 귀족들과 교류하는 방편 중,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聯姻이었다. 질자 쪽에서는 자신의 家族 외에 추가된 혈연 집단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 범위를 확대하고 어느 정도 권익을 더 보증할 수 있게 된다. 인질을 받은 나라 쪽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예컨대 “晉 大子인 圉가 질자로 秦에 가며, 秦이 河東을 돌려주고 딸을 圉에게 妻로 주었다.”<sup>165)</sup>는 사건은 바로 납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聯姻으로 새로운 거래를 성립시키며 상호간의 관계를 더 공고히 했던 것이다. 또한 혼인을 통해 질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었다.

질자와 出嫁한 여자의 대우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그들의 생활 기반을 논해야 할 것이다. 통상 질자의 생활 기반은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국 국군이 주는 녹봉이며, 이는 出嫁한 여자와 같았다. 다른 하나는 교류한 名士, 豪強, 俠客, 社會名流 등이 주는 贊助이다. 질자들이 모국에 돌아가 권력투쟁에 임했을 때에 이들의 지지를 구할 수도 있었다. 모국의 국력과 국제적 지위도 어느 정도 질자와 出嫁한 여자가 상대국에서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질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예우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周鄭交質’에서는 당시 주나라와 鄭나라의 관계가 가까웠고, 또한 鄭伯은 초기의 霸主였기에 周 왕실의 太子와 鄭 公子가 각각 양국에서 받은 대우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許의 公子 圉가 楚에서 질자로 지내는 동안에는 ‘楚王이 그를 우대하지 않’<sup>166)</sup>기도 했다. 당시 許는 약소국으로서 楚의 國中の 國이며, 완전히 楚의 속국이 되었기에 楚와 대등한 관계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양국 간의 관계가 대우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예컨대 쌍방이 적대 관계에 처하면 질자의 신분도 위협을 받는

165)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81, p.372, “夏, 晉大子圉為質於秦, 秦歸河東而妻之.”

166)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81, p.1344, “故蘧氏之族及蘧居、許圉、蔡洧、蔓成然, 皆王所不禮也.”

다. 또한 질자의 행위도 그의 대우에 영향을 주었다. 대인관계는 질자 자신의 처우와 모국-所質國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예를 들면 成公 2년 魯 公子 衡이 楚에서 질자로 있었으나 도망쳐 귀국한 바 있다. 臧宣叔가 그를 책망하고 ‘衡이 몇 년간의 고생을 참지 못하고 魯나라를 포기했다…그 후세에 꼭 재난을 받을 자가 있겠다. 때문에 국가가 衡을 포기하는 것이다.’<sup>167)</sup>라고 했다. 이 내용은 한편으로 질자가 강제로 파견되어 좋은 처우를 받지 못한 예도 있었음을 드러내 준다. 마찬가지로出嫁한 여자가 국군 및 다른 사람들과의 맺은 관계성은 여자의 처우나 혼인 관계를 맺은 양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요컨대 질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받은 담보로서 타국에 ‘저당’잡힌 이들이다. 특수한 집단으로서 그들은出嫁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항상 사교행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고 모국의 처지를 개선해 나갈 의무를 지는 것이다.

交質과 聯姻은 당시에 각국이 교류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각각 정치적 이익과 목적에 대해 매우 큰 작용을 하였다. 양자는 모두 地緣性이 강했으며,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었다. 춘추 열국이 爭霸하는 과정에서 聯姻과 交質 두 가지 외교 수단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당시의 국제 관계 균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양자가 끼친 영향은 서로 달랐다.

交質과 聯姻의 차이점을 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가 생긴 원인, 시기와 배경 정황이 다르다. 聯姻은 춘추 초기가 되어서야 나타난 질자 외교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출현했으며, 이는 서주의 종법 제도와 相輔相成했다. 그러나 질자는 춘추 시대 ‘禮’에 의해 결정되는 ‘信’ 관념이 동요하여 ‘信任’ 위기가 나타난 상황의 산물이었다. 다음으로 양자는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갖고 있다. 질자 외교는 신뢰를 위해 ‘저당을 잡는’ 노골적인 계약형태인 반면, 聯姻에는 다소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표면상 ‘禮의 本’으로서 혼인의 목적은 두 姓을 합해 舅甥관계를 맺는

<sup>167)</sup> 楊伯峻, 『春秋左傳注』 「成公二年」, 北京: 中華書局, 1981, p.808, “衡父不忍數年之不宴, 以棄魯國…後之人必有任是夫! 國棄矣.”



것이고, 여기서 나아가 인척 관계 위에 정치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 그 실질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차이점은 질자와 出嫁한 여자가 최종적으로 처하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보통 질자들은 혹은 귀국 후에 군위 쟁탈 과정에 말려들거나, 혹은 타국에서 객사하기도 하고, 혹은 살해당하기도 한다. 질자와 달리 出嫁한 여자들은 夫가 죽은 경우에 재혼하기도 했으며, 사자가 없거나 총애를 받지 않으면 포기될 수도 있었고, 전쟁 때문에 강제로 타국 국군의 妻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네 번째 차이점은 禮制상의 측면이다. 즉 혼인의 경우 복잡한 禮制--‘六禮’가 있는 반면, 질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禮制에 관련된 내역이 현전 사료에서 전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양자가 끼친 영향의 시간성과 대역 측면에서 차이도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齊魯世姻과 齊魯交兵’ 및 ‘晉楚爭盟과 그들이 鄭과의 질자 외교’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齊魯聯姻及交兵表><sup>168)</sup>

출처	혼인국/交兵國	비고	평화시간
桓公3(BC709)	魯桓公+文姜	秋,公子翬如齊逆女.修先君之好.	7년
桓公10(BC702)	齊、衛、鄭 vs 魯		
桓公13(BC699)	魯、紀、鄭 vs 齊、宋、衛燕		
桓公17夏(BC695)	魯 vs 齊		
莊公9(BC685)夏	魯 vs 齊		
8월	魯 vs 齊		
莊公10春(BC684)	魯 vs 齊		
夏(BC684)	齊、宋 vs 魯		
莊公19(BC675)	齊、宋、陳 vs 魯		
莊公24(BC670)	魯莊公+哀姜&叔姜(娣)		9년
僖公17(BC643)	魯僖公+聲姜		
僖公26春(BC634)	齊 vs 魯		
夏(BC634)	齊 vs 魯→ 衛 vs 齊(衛履行洮之盟)		

168) 『左傳』과 『春秋大事表』에 의거하여 정리함.

冬(BC634)	魯、楚 vs 齊		
僖公28(BC632)公子遂入齊 - 文公15(BC612)		自事後魯事齊益恭,21年間齊魯無戰事	
文公4(BC623)	魯文公+出姜		
文公14(BC613)	齊昭公+子叔姬(不得寵)		1년
文公15秋(BC612)	齊 vs 魯→ 兵爭復然, <u>為子叔姬一案</u>		
文公15冬(BC612)	齊 vs 魯→ 遂伐曹		
文公17(BC610)- 成公2(589)		22年間齊魯不兵, 齊不至為患	평화
宣公1(BC608)	魯宣公+穆姜		20년
成公2春(BC589)	齊 vs 魯(因至成公, 事齊→事晉)		
6월(BC589)	魯、晉、衛、曹 vs 齊		
成公14(BC577)	魯成公+齊姜		20년
襄公15(BC558)	齊 vs 魯		
襄16(BC557)3月	齊 vs 魯		
秋(BC557)	齊 vs 魯		
襄公17秋(BC556)	齊 vs 魯		
冬(BC556)	邾 vs 魯		
襄公18秋(BC555)	齊 vs 魯		
冬(BC555)	魯、晉及諸侯 vs 齊		
襄公19(BC554)	齊靈公+顏懿姬 & 驪聲姬(姪)		5년
襄公24(BC549)	魯 vs 齊→ 齊伐晉之故		
襄公25春(BC548)- 定公7(BC503)		40餘年齊兵不至魯	평화
襄公25(BC548)	齊靈公+穆孟姬(魯國卿之女)		45년
定公7(BC503)	齊 vs 魯		
定8정월(BC502)	魯 vs 齊		
2월(BC502)	魯 vs 齊		
夏(BC502)	齊 vs 魯	定公之世齊魯交兵凡四, 以齊景公爭伯一案	
哀公8(BC487)	齊悼公+季姬(魯國卿季康子之妹)		2년
哀公10(BC485)	魯、吳 vs 齊		
哀公11春(BC484)	齊 vs 魯		
5월(BC484)	魯、吳 vs 齊		

<鄭與晉楚爭盟的質子外交表>

출처	交兵國/交質國	평화시간
文公9(BC618)	楚 vs(伐)鄭→ 魯、晉、宋、衛、許救鄭	
文公14(BC613)	魯會宋、陳、衛、鄭、許、曹、晉盟於新城 → 至是諸侯之從楚者復附晉也	
文公15(BC612)	晉、宋、衛、蔡、陳、鄭、許、曹盟於扈	
文公17(BC610)	<b>晉、鄭互質</b>	3년
宣公1(BC608)	宋、陳、衛、曹、晉 vs(伐)鄭 楚侵陳, 遂侵宋→ 晉救陳、宋, 會四國之師以伐鄭→ 楚救鄭, 晉還	
宣公2(BC607)	晉、宋、陳、衛 vs(侵)鄭→ 楚救鄭	8년
宣公9(BC600)	楚 vs(伐)鄭→ 晉救鄭, 鄭助晉敗楚	
宣公10(BC599)	楚 vs(伐)鄭→ 晉救鄭	
宣公12(BC597)	晉 vs 楚 邲之戰→ 楚圍鄭→ <b>鄭子良為質於楚</b> → 夏六月, 晉救鄭	13년
宣公14(BC595)	晉 vs(伐)鄭, 因邲之戰鄭幫楚之故→ <b>鄭子張代替子良為質於楚</b> →同 楚策劃對付晉	
成公6冬(BC585)	晉 vs 楚 : 晉鄭12月蟲牢會盟→ 楚伐鄭, 晉救鄭	
成公2(BC589)	楚侵衛、伐魯→ <b>魯公子衡為質於楚</b> / 衛亦派質於楚 楚大夫巫臣+夏姬(鄭穆公의 딸)	5년
成公7(BC584)	楚 vs(伐)鄭→ 魯會諸侯救鄭→ 楚 vs 晉	
成公16夏(BC575)	晉 vs 楚、鄭 鄆陵之戰→春, 楚以汝陰之田成於鄭, 鄭叛晉, 與楚盟 → <b>鄭太子髡頑、大夫侯孺為質於楚</b>	
574-562年間	魯多次會諸侯伐鄭, 楚皆救鄭	
546-506年間	魯大夫與諸侯大夫會盟, 皆有鄭無楚	
定公4(BC506)	魯會諸侯(有鄭)vs(侵)楚→ 此時晉楚俱弱而吳興矣	

위의 표는 통혼과 질자 파견이 양국 간의 평화 관계에 주는 영향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질자 외교에 비교해서 聯姻이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유지에 더 크게 작용해, 이를 더 오래 지속시켰고 또한 효과적이었다. 통상 聯姻은 양국 관계를 완화, 개선시키고 동맹 관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취한 수단이다. 어떤 때에도 ‘酬恩報德한다’는 것이므로 능동

적인 것이다. 혼인관계는 대개 양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성립되며, 때로는 기성립한 우호관계에 대하여 ‘錦上添花’와 같은 의미를 띠기도 했다. 반면 질자는 일반적으로 적대·정벌·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강대국에 어쩔 수가 없이 파견했던 것이며,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인 화목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즉 쌍방의 관계가 불안하고 평화적이지 않은 상황에 발생했던 것이다. 따라서 혼인 외교는 질자 외교 보다 더 완화된 외교 방식이었고, 각국의 인정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통혼의 禮俗은 유래가 깊으며, 媵婚 관행이 동맹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 혼인 관계로 맺는 ‘舅甥’관계는 질자 외교에 비해 안정화 효과가 강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요컨대 질자 외교와 혼인 외교는 춘추시대의 독특한 외교 수단으로서 당시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로써 관계성을 성립시킨 나라들은 일정한 시기에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다. 동시에 우호·평화를 유지하고 양국 간의 왕래와 발전을 촉진하였다. 다만 혼인외교는 질자 외교에 비해 그 정치적 효용성이 적었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강대국들이 爭霸하고 껌병하는 전쟁이 지속되어, 각국이 서로 근본적인 이익 충돌에 놓여 있었음도 유의해야 된다. 이로 인해 질자 외교와 혼인 외교의 효과는 제한되었으며, 임시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책략으로서의 외교 수단들은 국가 관계를 유지하고 국제 관계를 안정시키는 長久한 방법이 될 수는 없었고, 각국 간의 이익과 충돌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식은 여전히 전쟁이었던 것이다.

## 결론

춘추시대에는 서주의 婚制를 계승하여 ‘一夫一妻多妾制’를 실시하였다. 禮制에서는 天子·諸侯·卿大夫·士를 포함하여 있는 귀족계층 복잡한 혼례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親迎 등 ‘六禮’를 포함하여 혼인의 ‘禮’적인 특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춘추시대 제후들이 妻妾을 맞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聘則為妻’, ‘奔則為妾’, ‘媵婚’, ‘烝報’, 매매 및 전쟁 등의 폭력적 수단을 통해 빼앗아 혼인하는 등의 형식을 포함한다. 제후국 간의 혼인은 대부분 정치적 혼인으로서 국가적 제후국군 그 혼인은 본종족의 내부관계와 본집단의 이익 등을 견고히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정치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말하자면 정치적 목적성은 당시 제후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은 대국측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먼저 주로 軍事同盟을 맺고 이로써 정치연맹을 건립하는 것이 각 제후국, 특히 대국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다음으로 맹약을 강고히 하고 정치연맹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세 번째는 허점을 노려 상대국을 차지하기 위함이었다. 소국의 경우, 주로 대국에 의지하여 존립을 도모하기 위해 대국의 비호를 구하였다. 예컨대 병력을 해제하거나 은덕에 보답하였다. 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본국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일종의 본국의 세력을 보호, 확대하는 외교적 책략이며, 이는 전쟁 이외 각국이 왕래하는 중요한 보충수단이었다.

춘추 제후의 정치혼인 중 ‘媵婚制’는 가장 눈에 띄는 형식이다. 그 내용은 주로 ‘媵人’과 ‘媵物’ 두 가지 큰 종류를 포함한다. 제후가 딸을 시집보낼 때 서로 媵을 보내는 것은 춘추 열국의 국가외교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각국의 외교활동의 중요한 내용이다. 춘추시대 ‘媵婚’의 실제상황은 엄격한 국가의 숫자 제한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同姓의 여자가 媵하는 것이지, 異姓은 그럴 필요가 없다. 무릇 시집 갈 때는 모두 媵하며, 媵하면 안 되는 건 없다.”이라는 상황이었다. 또한 姪娣가 함께 시집가거나 타국에서 보낸 媵은 모두

自願에서 비롯된 것이지 嫁女國 혹은 夫國이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媵婚制’가 귀족 각 계층에서 실시되면서 군주권력이 국가의 주요지배 역량이었고 국군은 그 제후국을 대표하였기 때문에 제후의 ‘媵婚’이 만들어진 작용과 영향은 매우 컸으며 타국의 媵女의 主要對象이었다.

제후의 혼인은 가문의 등급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시집은 夫人은 國君의 딸이거나 타국 및 본국 卿大夫의 딸이었다. 마찬가지로 제후의 딸은 통상 타국의 國君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일부 본국 혹은 타국의 卿大夫에게 下嫁하기도 하였다. 제후의 嫡女는 일반적으로 타국의 國君에게 시집을 가서 夫人이 되었고 서녀는 통상 媵이 되어 함께 딸려 시집보냈다. 춘추시대 諸侯爭霸의 필요에 의해 예제질서의 저울 위에서 제후들의 혼인은 국가의 이익을 지상과제로 삼는 특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 그런 까닭에 ‘同姓不婚’의 원칙이 깨지고 동성 간 혼인을 맺는 경우와 異姓이 와서 媵이 되는 상황이 비교적 많이 출현하였다. ‘媵婚’제의 실시는 춘추귀족의 ‘一夫一妻多妾’婚制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등급구분은 당시 혼인예제와 종법제가 相輔相成하는 것의 체현이었다. 媵婚은 춘추 정치 혼인 중 충분히 두드러지는 지위를 점하였다. 그것은 同姓兄弟國 간의 종법관계를 견고히 하는데 유리하였고 婚姻國의 政治軍事동맹을 확대하는데 힘이 되었다. 이는 춘추시대 제후 혼인의 확립된 제도와 일상 상태로 강력한 정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시 국제정세와 각국의 세력 상황에 근거하여 정치혼인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곧 周 왕실과 제후국 간의 혼인맺기, 대국 간의 혼인맺기, 대국과 소국 간의 혼인맺기, 그리고 소국 간의 혼인맺기이다. 이렇게 혼인을 맺는 경우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이고 아울러 뒤집어 말하면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춘추시대의 會盟은 聯姻과 같이 그 양이 많고, 범위가 넓었으며, 효과가 커서, 당시의 정치·軍事·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어떤 경우에는 동맹을 체결한 후에 일부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하기를 위해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나아가 동맹 관계에 더욱 견고한 보증을 제

공하였다. 춘추시대에 각국은 聯姻과 會盟을 통해 어떤 정도 효과적으로 전쟁의 발생을 줄이고 피하였다. 會盟과 聯姻은 열국이 친선을 도모하고 손을 잡는 중요한 방식으로써 다 軍事를 後盾으로 삼는 것이었다.

제후가 딸을 시집보내는 것은 때로 ‘贈禮’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媵’이 되어 陪嫁하는 女子의 경우 더욱 ‘禮物’의 성질을 강하게 띤다. 贈禮외교와 혼인외교는 모두 당시 각국이 왕래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禮物과 시집 간 딸은 각국의 왕래매개로서 모두 국가 간 관계를 조화시키고 본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혼인외교는 일정 정도 상 딸에게 ‘禮物’의 의의를 부여하여 이루어지는 외교활동으로, 제후 혼인의 정치적 특징을 더욱 잘 드러낸다.

‘質子외교’는 춘추시대의 또 다른 외교 책략으로서 형식, 목적과 영향 등의 방면에서 모두 혼인외교와 매우 유사성이 있다. 공통적으로 質子와 出嫁女子는 대부분 계획적으로 안배되었고 두 종류의 외교는 모두 강력한 정치적 목적성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방식은 모두 多方位의 지역적 정치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였다. 양자가 일으킨 작용은 모두 제한적이었는데 일정시기 내에 국한되어서만이 효과가 있었고 양국 간의 평화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大國爭霸 하의 희생물이었다. 이상 양자는 춘추 열국의 국가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평형을 이룬 당시의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양자는 또한 두 가지 다른 성격을 지닌 외교방식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그들이 만들어낸 영향에도 차이점을 발생시켰다. 質子외교와 혼인외교가 탄생한 歷史原因·歷史階段·歷史背景은 서로 다르다. 質子외교와 달리 婚姻禮制에는 복잡번다한 규정, 즉 ‘六禮’가 있었다. 質子와 出嫁女子의 결말 역시 서로 달랐다. 뿐만 아니라 聯姻은 많은 경우 특정 나라가 쌍방관계를 풀고 개선하거나 동맹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많은 경우 양국 간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시기가 없을 때 이루어졌다. 그러나 질자는 일반적으로 대개 정벌을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대국에게 ‘부득이하게’ 보내는 것으로서 화평을 구하는 것이 주요한 원

인이었다. 쌍방이 긴장관계 속에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하였다. 質子외교와 비교해서 혼인외교는 일종의 완화를 위한 외교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더욱 쉽게 각국이 받아들였다. 양국의 우호관계를 보호하는 작용 역시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유효하였다. 그중 媾婚의 進行은 또한 聯姻範圍를 확대하였는데, 더 나아가 제후국 간 정치동맹의 陣勢를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혼인을 체결한 ‘舅甥之國’으로서 婚姻國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더 효과가 있었고 대체하기 어려운 작용이었다.

최종적으로 혼인외교·贈禮외교·질자외교는 모두 제후국이 政治聯盟을 맺기 위한 일관된 정책으로서 특히 대국측에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패권을 세우고 霸主地位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비록 춘추 국가외교에서 근본적인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여 각국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최종 방식은 여전히 전쟁이었지만 政治聯姻과 贈禮외교 및 質子외교 모두 국가 관계를 조정하고 列國紛爭을 해결하는데 홀시할 수 없는 작용을 야기하였고 춘추시대의 제후 정치 혼인은 강력하고 분명한 정치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 1) 문헌사료

- 『周禮』(鄭玄 注, 賈公彥 疏, 『周禮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 『儀禮』(鄭玄 注, 賈公彥 疏, 『儀禮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 『禮記』(鄭玄 注, 孔穎達 正義, 『禮記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 『春秋左傳注』(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90.)
- 『左傳』(杜預 注, 孔穎達 正義, 『春秋左傳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 『公羊傳』(何休 注, 徐彥 疏, 『春秋公羊傳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
- 『穀梁傳』(范甯 集解, 楊士助 疏, 『春秋穀梁傳注疏』 「隱公八年」, 北京: 中華書局, 1980.)
- 『詩經』(王秀梅 譯注, 『詩經』, 北京: 中華書局, 2006.)
- 『論語』(程樹德, 『論語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6.)
- 『孟子』(萬麗華, 藍旭 譯注, 『孟子』, 北京: 中華書局, 2006.)
- 『墨子』(孫詒讓 撰, 『墨子間詁』, 北京: 中華書局, 2001.)
- 『國語』(左丘明, 『國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毛詩正義』(鄭玄 箋, 孔穎達 疏, 『毛詩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0.)
- 『管子』(戴望, 『管子校正』, 上海: 世界書局, 1935.)
- 『說文』(許慎, 『說文』, 北京: 中華書局, 1985.)
- 『史記』(司馬遷 撰, 張守節 正義, 司馬貞 索引, 裴駟 集解, 『史記』, 北京: 中華書局, 2013.)
- 『大戴禮記』(王聘珍 撰, 『大戴禮記解詁』, 北京: 中華書局, 1983.)
- 『戰國策』(何建章, 『戰國策注釋』, 北京: 中華書局, 1992.)
- 『白虎通』(班固, 『白虎通』, 北京: 中華書局, 1985.)
- 『春秋大事表』(顧棟高, 『春秋大事表』, 北京: 中華書局, 1993.)

## 2)청동기

- 『商周青銅器銘文選』(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北京:文物出版社,1987.)
-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吳鎮烽,『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
-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續編』(吳鎮烽,『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續編』(全四卷),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
- 『兩周金文辭大係圖錄考釋』(郭沫若,『兩周金文辭大係圖錄考釋』,北京:科學出版社,1957.)
- 『金文編』(容庚,『金文編』,北京:中華書局,1985.)
- 『金文續編』(容庚,『金文續編』,上海:上海書店出版社,2000.)
- 『青銅器圖釋』(陝西省博物館、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藏,『青銅器圖釋』,北京:文物出版社,1960.)
- 『殷周金文集成』(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殷周金文集成』,北京:中華書局,2007.)
- 『中國青銅器全集』(中國青銅器全集編委會,『中國青銅器全集』,北京:文物出版社,1995.)

## 2.연구서

- 曹兆蘭,『金文與殷周女性文化』,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4.
- 晁福林,『春秋戰國的社會變遷』,北京:商務印書館,2011.
- 陳東原,『中國婦女生活史』,上海:上海書店,1984.
- 陳顧遠,『中國婚姻史』,上海:上海書店,1984.
- 陳鵬,『中國婚姻史稿』,北京:中華書局,1990.
- 陳戌國,『先秦禮制研究』,長沙:湖南教育出版社,1991.
- 陳筱芳,『春秋婚姻禮俗與社會倫理』,成都:巴蜀書社,2000.
- 崔明德,『先秦政治婚姻史』,濟南:山東大學出版社,2004.

- 高兵,『周代婚姻形態研究』,成都:巴蜀書社,2007.
- 范文瀾,『中國通史簡編』,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2000.
- 顧德融,朱順龍,『春秋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1.
- 顧頡剛 著,童書業 撰,『國史講話:春秋』,上海:上海人民出版社,2015.
- 李衡眉,『中國古代婚姻史論集』,吉林:吉林文史出版社,1992.
- 李學勤,『新出青銅器研究』,北京:文物出版社,1990.
- 呂靜,『春秋時期盟誓研究』,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7.
- 馬非百,『秦集史』,北京:中華書局,1982.
- 錢杭,『周代宗法制度史研究』,上海:學林出版社,1991.
- 盛義,『中國婚俗文化』,上海:上海文藝出版社,1994.
- 童書業,『春秋史』,濟南:山東大學出版社,1987.
- 童書業,『春秋左傳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0.
- 汪玢玲,『中國婚姻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1.
- 徐傑令,『春秋邦交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4.
- 楊寬,『戰國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8.
- 楊向奎,『宗周社會與禮樂文明』,北京:人民出版社,1997.
- 張光直,『中國青銅時代』,上海:三聯書店,1999.
- 張健,『先秦時期的國禮與國家外交』,北京:文物出版社,2013.
- 鄒英都,『楚系銘文綜合研究』,成都:巴蜀書社,2007.
- 小寺敦,『先秦家族關係史料の新研究』,東京:汲古書院,2008.
- 白川靜,『金文通釋』,京都:白鶴美術館,1973.
- 林巳奈夫,『殷周青銅器綜覽一---殷周時代青銅器の研究』,東京:吉川弘文館,1984.
- 林巳奈夫,『殷周青銅器綜覽三---春秋戰國時代青銅器の研究』,東京:吉川弘文館,1989.

### 3. 연구논문

김정열, 「邦君과 諸侯-以金文資料論西周國家的統治結構」, 『東洋史學研究』, 2009.

김중, 「左傳속의 禮也, 非禮也 小考」, 『中國人文科學』, 2006.

민후기, 「서주왕족의 族의 재배치와 同姓不婚-東征 이후 서주왕조의 族 통일 정책에 대한 검토」, 『동방학지』, 2011.

이성규, 「戰國時代 秦의 外交政策」, 『古代帝國的理解(第二卷)』.

이용일, 「戰國時代 열국의 秦 入質 사례」, 『中國史研究』, 2013.

정명호, 「同姓不婚에 관한 法理的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정병학, 「中國 婚姻思想 變遷攷(一)」, 『아시아여성연구』, 1975.

정승규, 「同姓同本 不婚原則에 관하여」, 『法政論叢』, 1983.

曹瑋, 「散伯車父器與西周婚姻制度」, 『文物』, 2000-3.

曹曉偉, 「春秋時期媵婚研究」, 『理論學刊』, 2014-4.

曹兆蘭, 「從金文看兩周婚姻關係」, 『武漢大學學報』, 2004-1.

曹兆蘭, 「從金文看周代媵妾婚制」, 『深圳大學學報』, 2001-06.

晁福林, 「春秋戰國時期的‘質子’與‘委質為臣」, 『傳統文化與現代化』, 1999-3.

陳偉, 「兩周婦名稱國的一點商榷」, 『江漢考古』, 1982-2.

陳筱芳, 「論春秋時期的媵制」, 『西南民族學院學報』, 1999-4.

陳筱芳, 「春秋婚姻形態的特點」, 『史學月刊』, 1998-4.

陳陽, 「論中國古代婚姻制度之政治性」, 『中國政法大學碩士論文』, 2010.

陳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青銅銘文中的性別、身份與角色研究」,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77本2分, 2006.

陳昭容, 「從青銅器銘文看兩周漢淮地區諸國婚姻關係」『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75本4分, 2004.

陳昭容, 「周代婦女在祭祀中的地位---青銅器銘文中的性別、身份與角色研究之一」, 『清華學報』, 2003.

- 陳昭容,「從青銅器銘文看兩周夷狄華夏的融合」,『古文字與古代史』第2輯,2009.
- 陳昭容,「兩周夷夏族群融合中的婚姻關係---以姬姓芮國與鬼姓偃氏婚嫁往來為例」『西周封國論衡---陝西韓城出土芮國文物暨周代封國考古學研究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 成琳,「兩漢時期民族關係中的‘質子’現象」,『新疆大學學報』,2006-1.
- 崔明德,「先秦政治婚姻簡表」,『煙台大學學報』,1998-4.
- 高兵,「春秋諸侯媵妾婚有關問題考述」,『海南師範學院學報』,2004-3.
- 顧頡剛,「由‘烝’、‘報’等婚姻方式看社會制度的變遷」,『文史』14輯.
- 管東貴,「中國古代的娣媵制與試婚制」,『第一屆國際漢學會議論文集:民俗與文化組』,台北:中央研究院.
- 韓同飛,「春秋時期魯國外交研究」,『吉林大學碩士論文』,2008.
- 胡進駐,「商周婦女稱謂及婚姻制度淺探」,『殷都學刊』,2002-1.
- 賈建華,「試析晉國公室的聯姻」,『山西師範大學碩士論文』,2010.
- 賈俊俠,「春秋時期的媵制及其盛行原因」,『江南大學學報』,2002-2.
- 李衡眉,「論周代的‘同姓不婚’禮俗」,『齊魯學刊』,1988-5.
- 李紅玲,「周代婚姻禮俗探論」,『華南師範大學碩士論文』,2007.
- 李潔,「試論春秋時期貴族的政治婚姻」,『河南大學碩士論文』,2014.
- 李模,「試論先秦盟誓制度的歷史功用」,『歷史研究』,2001-01.
- 李興平,「論春秋時期上層社會的婚姻」,『江西師範大學碩士論文』,2002.
- 李學勤,「從新出青銅器看長江下游文化的發展」,『文物』,1980-8.
- 李學勤,「西周時期諸侯國的青銅器」,『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1985-7.
- 李雲泉,「朝貢制度的理論淵源與時代特征」,『中國邊疆史地研究』,2006-3.
- 林鵠,「宗法、婚姻與周代政治---以青銅禮器為視角」,『中國歷史文物』,2003-2.
- 林聖傑,「春秋媵器銘文彙考」『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1996.
- 林素娟,「漢代經師對媵婚制度的理解及其主張的背景」,『台灣大學中文學報』16:1-56.
- 林素娟,「春秋至兩漢婚姻禮俗與制度研究」,『國立清華大學博士論文』,2003.
- 劉昌安,溫勤能,「婚姻‘六禮’的文化內涵」,『漢中師院學報』,1994-2.

- 劉成贊,「春秋戰國時期質子的人際關係」,『吉木斯職業學院學報』,2017-8.
- 劉麗,「一器媵二女」現象補說,『青銅器與金文專輯』,2017.
- 劉文毅,「春秋時期流亡公子研究」,『西北大學碩士論文』,2011.
- 劉興均,「姪從媵」考,『四川師範大學學報』,1995-02.
- 劉英,「先秦時期“侄娣從媵”現象考」,『河北學刊』,2003-2.
- 魯楠,「春秋時期華夏與非華夏的政治婚姻」,『內蒙古大學碩士論文』,2012.
- 陸躍升,「論春秋時期媵婚制的合‘禮’性」,『赤峰學院學報』,2016-3.
- 呂亞虎,「東周婚姻禮俗研究」,『陝西師範大學碩士論文』,2003.
- 馬汝軍,「論戰國時期的婚姻制度及其目的」,『史學集刊』,2001-1.
- 馬媛媛,「春秋時期政治婚姻下的女性研究」,『河南大學碩士論文』,2006.
- 繆昭,「春秋時期我國婚姻制度的幾個特點」,『河北師範大學學報』,1997-3.
- 莫金山,「春秋列國盟會之演變」,『史學月刊』,1996-01.
- 彭瑾,「周代媵器試論」,『南京大學碩士論文』,2014.
- 彭林,「諸侯相接以敬讓：聘禮」,『文史知識』,2003.
- 錢冬勤,「春秋時期的齊魯關係研究」,『蘇州大學碩士論文』,2014.
- 邱錦熙,「春秋時期小國生存策略研究」,『江西師範大學碩士論文』,2015.
- 尚麗新,「《詩經》媵嫁詩與周代媵婚文化」,『上海師範大學學報』,2002-1.
- 石天煜,「試論春秋時期的婚姻形態」,『遼寧師範大學碩士論文』,2004.
- 宋傑,「春秋時期的諸侯爭鄭」,『首都師範大學學報』,1996-6.
- 孫瑞,「試論戰國時期人質的幾個特點」,『史學集刊』,1997-4.
- 孫瑞,「試論戰國時期的質宮制度」,『吉林大學學報』,1996-5.
- 孫小妹,「春秋戰國時期的婚姻研究」,『天津師範大學碩士論文』,2008.
- 孫永珍,「兩周媵器銘文研究」,『首都師範大學碩士論文』,2006.
- 湯亞平,「從‘姓’、‘姑’、‘媵’三字看古代婚姻陋俗」,『學術探討』,2001-5.
- 王京龍,「試說春秋時期的齊魯聯姻」,『管子學刊』,1993-1.
- 王文君,「有關周代婚姻制度的幾個問題」,『四川師院學報』,1982-3.
- 王子超,「《媵器試論」,『庚先生百年誕辰紀念文集』,廣東人民出版社,1998.
- 魏哲銘,「論周人‘同姓不婚’制」,『西北大學學報』,2000.

- 武曉穎，「試論周代貴族婦女的社會地位」，『哈爾濱師範大學碩士論文』，2012.
- 徐傑令，「試論春秋邦交的時代特點」，『管子學刊』，2005-4.
- 徐傑令，「春秋時期聯姻對邦交的影響」，『東北師範大學學報』，2004-1.
- 許鴻洋，「兩周人質問題研究」，『西北大學碩士論文』，2010.
- 薛莉，「先秦秦漢聘禮和嫁妝研究」，『陝西師範大學碩士論文』，2012.
- 薛立芳，「春秋時期婚姻形態略論」，『蘭州學刊』，2009-7.
- 閆麗環，「春秋時期周王室與諸侯國關係研究」，『河南大學碩士論文』，2006.
- 楊愛民，「春秋戰國質子制度考論」，『雲南社會科學』，2000.
- 殷亞波，「春秋戰國時期的質子」，『蘭州大學碩士論文』，2011.
- 于萬海，「春秋時期霸主政治聯姻研究」，『河南師範大學碩士論文』，2015.
- 曾麗意，「《左傳》盟約文化研究」，『暨南大學碩士學位論文』，2015.
- 張胡玲，「通過‘質子’現象看秦國在戰國時的地位」，『歷史文化』.
- 張亮，「周代聘禮研究」，『吉林大學碩士論文』，2013.
- 張全民，「試論春秋會盟的歷史作用」，『吉林大學學報』，1994-06.
- 張石川，「春秋經傳所見婚姻及其制度」，『南京師範大學碩士論文』，2003.05.
- 張淑一，「近二十年的先秦婚姻史研究」，『華南師範大學學報』，2009-3.
- 張彥修，「論西周春秋貴族的一夫多妻婚姻」，『殷都學刊』，1998.
- 趙志堅，「中國古代的婚姻形式補續」，『歷史教學』，1996-11.
- 周國榮，「媵婚制述論」，『蘇州大學學報』，1985-1.
- 周洪，「春秋時期的婚姻狀況」，『江西社會科學』，2002-6.
- 周延良，「《詩經》媵婚詩與媵婚文化」，『文藝研究』，2002-3.
- 朱柳郁，「從媵妾烝報制度看周代政治婚姻」『天津師範大學學報』，2000-4.
- 齋藤道子，「春秋時代の婚姻---その時代的特質を求めて」，『東海大學文明研究所  
紀要』12，1992.
- 小林伸二，「聯姻の紐帶」，『大正大學研究論叢』13，2007.
- 小林伸二，「春秋時代の婚姻と外交」，『大正大學研究紀要・人間學部・文學部』  
91，2006.

高木智見,「春秋時代の聘禮について」,『東洋史研究』47-4, 1989.

高木智見,「春秋時代の結盟習俗について」,『史林』68-6, 1985.

山田統,「左伝所見の通婚関係を中心として見たる宗周姓制度」,『山田統著作集』

四, 明治書院.

宇都木章,「『春秋』にみえる魯の公女(一)」,『中國古代史研究 第六』, 1989.

伊藤道治,「中国古代国家の支配構造---西周封建制度と金文」,『中央公論社』, 昭和62.

工藤元男,「戦國の會盟と符---馬王堆漢墓帛書《戰國縱横家書》20章をめぐって」,『東洋史研究』, 1994.



## 부록

부표1 <春秋質子表>

출처	交質國		형식	내용
隱公3 (BC720)	周 王子 狐	鄭 公子 忽	互質	王子狐爲質於鄭, 鄭公子忽爲質於周。
僖公17 (BC643)	晉 太子 圉	秦	晉→秦	입 : BC645, 출 : BC638 夏, 晉太子圉爲質於秦, 秦歸河東而妻之。
文公17 (BC610)	晉 大夫 趙穿、 大夫 公婿池	鄭 太子 夷、 大夫 石楚	互質	晉鞏朔行成於鄭, 趙穿、公婿池爲質焉。 冬十月, 鄭太子夷、石楚爲質於晉。
宣公12 (BC597)	鄭 鄭伯의 弟 子良	楚	鄭→楚	退三十裏而許之平。潘尙入盟, 子良出質。 夏, 六月, 晉師救鄭。
宣公14 (BC595)	鄭 卿大夫 子張	楚	鄭→楚	夏, 晉侯伐鄭, 爲郟故也。…鄭人懼, 使子張代子良於楚。鄭伯如楚, 謀晉故也。
宣公15 (BC594)	宋 大夫 華元	楚	宋→楚	退三十裏, 宋及楚平。華元爲質。盟曰 : 「我無爾詐, 爾無我虞。」
宣公18 (BC591)	齊 公子 疆	晉	齊→晉	十八年, 春, 晉侯、衛太子臧伐齊, 至於陽穀。齊侯會晉侯盟於緡, 以公子疆爲質於晉。晉師還。
成公2 (BC589)	魯 公子 衡	楚	魯→楚	冬, 楚師侵衛, 遂侵我, 師於屬。…皆百人, 公衡爲質, 以請盟。楚人許平。
成公2 (BC589)	宋 公子 圍龜	楚	宋→楚	기원전 594년에 華元이 인질로 楚에 갔으며, 그 후 宋으로 돌아갔고 公子 圍龜가 그를 대신해서 楚에 인질로 갔다.
成公2 (BC589)	衛	楚	衛→楚	
成公2 (BC589)	齊 蕭同叔子	晉	未果	晉人不可, 曰 : 「必以蕭同叔子爲質, 而使齊之封內盡東其畝。」
成公10 (BC581)	鄭 卿 子駟 (鄭穆公의 子)	晉	鄭→晉	鄭子罕賂以襄鐘, 子然盟於脩澤, 子駟爲質。
成公17 (BC574)	鄭 太子 髡頑 大夫 侯孺	楚	鄭→楚	夏, 五月, 鄭太子髡頑、侯孺爲質於楚, 楚公子成、公子寅戍鄭。
襄公元 (BC572)	齊 太子 光	晉	齊→晉	二月, 齊太子光爲質於晉。

襄公15 (BC558)	鄭 上大夫 公孫黑	宋	鄭→宋	三月, 公孫黑爲質焉。
襄公25 (BC548)	衛 衛獻公의 妻& 子	齊	衛→齊	齊가 인질을 받음.
昭公13 (BC529)	許 公子 許圉	楚	許→楚	遷許而質子許圉。
昭公20 (BC522)	宋		내부에서 서 로 인질을 주 고받음	癸卯, 取大子欒與母弟辰、公子地以爲質。 公亦取華亥之子無感、向寧之子羅、華定之 子啟, 與華氏盟, 以爲質。
昭公20 (BC522)	楚 卿大夫 伍奢	楚 平王	내부	楚 平王은 伍奢를 인질로 삼고 伍奢의 子 를 引誘했음.
定公3 (BC507)	蔡 太子 元、 大夫의 子	晉	蔡→晉	蔡侯如晉, 以其子元與其大夫之子爲質焉, 而請伐楚。
定公4 (BC506)	蔡 公子 幹、 大夫의 子	吳	蔡→吳	蔡侯因之, 以其子乾與其大夫之子爲質於 吳。
定公8 (BC502)	衛 衛侯의 子、 大夫의 子	晉	未果	必以而子與大夫之子爲質。
秦景公、 哀公시기	楚 荊王의 弟	秦	楚→秦	
哀公 초 기	越 勾踐&范蠡	吳	越→吳	越王 勾踐과 范蠡는 吳에 인질로 갔음.
哀公8 (BC487)	魯 大夫의 子 服何	吳	魯→吳 (未果)	魯가 吳와 서로 인질을 파견하려고 했음.
哀公14 (BC481)	宋	曹	인질을 奪取 함	宋 公室과 桓魋가 다 曹에서 인질을 받았 음.

부표2 <춘추시대 각국 聯姻表>

周(姬)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周桓王	紀(姜)	季姜(王后)(紀君之女)	桓公8(BC704),9(BC703)
周惠王	陳(媯)	陳媯(惠后)	莊公18(BC676)
周莊王	(姚)	王姚(姬妾)(子頹를 낳았음)	莊公19(BC675)
周襄王	狄(隗)	隗氏(狄君之女)(王后)(甘昭公과 私通했음)	僖公24(BC636)
周定王	齊(姜)	齊女(王后)	宣公6(BC603)
周靈王	齊(姜)	齊侯女(王后) 官師(周靈王 大夫)가 單靖公(周靈王 卿)을 따라 齊國에 가서 王后를 맞이하였음(襄公15)	襄公12(BC561)
周景王		穆后	昭公15(BC527)

魯國(姬)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周公·武公은 薛에서, 孝公·惠公은 宋에서, 桓公 이후로 齊에서 妻를 娶하였음.			哀公24(BC471)
魯孝公 (795-769)	宋(子)	宋女(宋戴公女)	哀公24(BC471)
魯惠公		孟子(正夫人)	隱公元(BC722)
		聲子(姬妾)(孟子庶妹)(隱公을 낳았음)	
	宋(子)	仲子(宋武公女)(桓公을 낳았음)	
魯桓公	齊(姜)	姜氏(文姜)(齊僖公女)(夫人) (桓公6, 魯桓公+文姜=公子 同을 낳았음) (齊襄公妹, 齊襄公과 私通했음)(成季友를 낳았음)	桓公3(BC709) 、18(BC694)
	魯(姬)	魯女(媵)(未嫁到陳國) 衛嫁女於陳, 公子結媵陳人之婦于鄆	莊公19(BC675)
魯莊公	齊(姜)	哀姜(齊襄公女)(共仲이 哀姜과 私通)	莊公24(BC670)
		孟任(魯大夫女, 黨氏, 任姓)(般을 낳았음)	莊公32(BC662)
	齊(姜)	叔姜(哀姜之妹)(閔公을 낳았음)	閔公2(BC660)
	須句國(風)	夫人風氏薨(成風)(魯僖公을 낳았음)	文公4(BC623)
公孫茲(魯桓公之孫, 魯國公族)	牟(魯屬國)	牟女	僖公5(BC655)
魯僖公	齊(姜)	聲姜(齊桓公女)(文公을 낳았음)	僖公17(BC643)
魯僖公	楚(芊)	楚女(夫人)	楊伯峻『春秋左傳注』
	齊(姜)	齊女(媵)	

魯文公		敬嬴(文公의 둘째 妃)(宣公을 낳았음)	文公18(BC609)
	齊(姜)623	出姜(哀姜, 齊女, 長夫人)(齊昭公女)	文公4、9、18
季文子 (季孫行父) (魯國正卿)	陳(嬀)	陳女	文公6(BC621)
孟穆伯 (魯國卿)	莒(己)	戴己(姐)(文伯을 낳았음)	文公7(BC620)
		聲己(妹)(媵)(惠叔를 낳았음)	
		莒女	
魯宣公	齊(姜)	婦姜(穆姜, 夫人)(魯成公、伯姬(宋共姬)를 낳았음)	宣公元、襄公2
子叔聲伯 (魯成公卿)	莒(己)	莒女	成公8(BC583)
叔肸 (魯國公族, 魯宣公弟)		未知女(聲伯을 낳았음)	成公11(BC580)
魯成公	齊(姜)	齊姜	成公14(BC576)
魯成公		定姒(襄公生母)	襄公4(BC569)
施孝叔 (魯大夫)	齊(姜)	聲伯妹(管于奚之女)	成公11(BC580)
臧宣叔 (魯大夫)	鑄(任/妊)	鑄女(臧賈、臧為를 낳았음)	襄公23(BC550)
		鑄女의 姪(繼室)(穆姜의 媵의 딸)(紇(臧武仲)를 낳았음)	
魯襄公	胡(姬)	敬歸(姐)(妾)(野를 낳았음)	襄公31(542)
		齊歸(妹)(媵)(公子 稠(魯昭公)를 낳았음)(昭公11)	
穆子 (叔孫豹)(魯大夫)	齊(姜)	國姜(齊大臣國氏之女) (與昭公4年齊國公孫明之妻為同一人) (孟丙、仲壬을 낳았음)	昭公4(BC538)
孟僖子 (魯國司空)		(泉丘人之女)(懿子、南宮敬叔를 낳았음)	昭公11(BC531)
季平子 (魯國正卿) (季悼子)	宋(子)	宋元夫人之女	昭公25(BC517)
季公鳥 (魯國卿)	齊(姜)	季姒(齊大夫鮑文子之女)(家臣 檀弓 私通했음) (某甲을 낳았음)	
魯昭公	吳(姬)	孟子(夫人)	哀公12(BC483)
季孫 (季桓子) (魯卿大夫)		南孺子(季孫肥(季康子)를 낳았음)	哀公3(BC492)
魯定公		姒氏(夫人)	定公15(BC495)
魯哀公		(姬妾→夫人)(낳은 公子 荊→太子)	哀公24(BC471)

## 齊國(姜)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齊襄公	周(姬)	王姬(周平王孫女)	莊公元, 2
齊桓公	周(姬)	共姬(王姬)(夫人)(無子)(周天子之女)	莊公11、僖公17
	蔡(姬)	蔡姬(夫人)(無子)(蔡繆侯之妹)(後被齊侯送歸蔡)	僖公3、17
	徐(嬴)	徐嬴(夫人)(無子)	僖公17
	衛(姬)	大衛姬(衛共姬)(妾)(武孟을 낳았음)	
		小衛姬(妾)(齊惠公을 낳았음)	
	鄭(姬)	鄭姬(妾)(齊孝公을 낳았음)	
	葛(嬴)	葛嬴(妾)(齊昭公을 낳았음)	
	密(姬)	密姬(妾)(齊懿公을 낳았음)	
	宋(子)	宋華子(妾)(公子雍을 낳았음)	
齊昭公	魯(姬)	子叔姬(不得寵)(舍를 낳았음)	文公14
齊惠公		蕭同叔子(齊頃公之母)	成公2
高固(齊大夫)	魯(姬)	叔姬	宣公5
管于奚 (齊大夫)		未知女(成公11년 魯叔肸의 妻와 같은 사람임) (聲伯弟(管于奚之子)、聲伯妹(管于奚之女)를 낳았음)	成公11
齊頃公	宋(子)	聲孟子(夫人)(叔孫僑如(魯國大夫)와 私通했음) (慶克(齊大夫, 齊桓公之孫)과 私通했음) (齊靈公을 낳았음)	成公16
齊靈公	魯(姬)	顏懿姬(無子)(夫人)	襄公19
	魯(姬)	譏聲姬(媵)(顏懿姬姪女)(光(齊後莊公)을 낳았음)	
	宋(子)	仲子(姬妾)(牙를 낳았음)	
	宋(子)	戎子(媵)(姬妾)(仲子之妹)(無子)	
	魯(姬)	穆孟姬(叔孫宣伯(叔孫僑如, 姬姓, 魯國卿)之女) (齊景公을 낳았음)	襄公25
棠公	齊(姜)	棠姜(東郭姜)(東郭偃之姐)(東郭偃, 齊大夫 崔武子의 家臣)(棠無咎를 낳았음)	襄公25
崔武子(崔杼) (齊大夫)		棠姜(齊莊公과 私通했음)(明을 낳았음) (原配)(成、強을 낳았음)	襄公27
公孫明	齊(姜)	國姜(昭公4년의 魯大夫 穆子의 妻 國姜과 같은 사람임)(이것은 齊國 본국 귀족 간의 聯姻임)	昭公4
齊景公	燕(姬)	燕姬(燕惠公之女)(嫡夫人)	哀公5, 昭公5、7
		重(夫人)(子仲之女)	昭公27
		鬻姒(姬妾)(荼를 낳았음)	哀公5
齊景公	胡(姬)	胡姬(妾)	哀公6、8
齊僖公	衛(姬)	衛姬(齊桓公을 낳았음)	昭公13
齊悼公	魯(姬)	季姬(魯國卿季康子之妹)	哀公8

## 鄭國(姬)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鄭武公	申(姜)	武姜(申國君申侯之女) (鄭莊公、共叔段을 낳았음)	隱公元
公子忽	陳(嬀)	嬀氏(陳桓公女)	隱公7、8
鄭莊公	鄧(曼)	鄧曼(鄧國君之女)(昭公을 낳았음)	桓公11
	宋(子)	雍姑(雍氏之女)(厲公을 낳았음)	
雍糾(祭仲女婿)	鄭(姬)	雍姬(鄭大夫祭仲之女)(祭仲, 姬姓)	桓公15
鄭文公	楚(芊)	芊氏(楚成王之妹)	僖公22
	(姜)	姜氏	
	南燕(姑)	燕姑(賤妾)(公子 蘭(鄭穆公)을 낳았음)	宣公3
	陳(嬀)	陳嬀(公子 華、公子 臧을 낳았음)	
	江(嬴)	(公子 士를 낳았음)	
	蘇(改)	(公子 瑕、公子 俞彌를 낳았음)	
堵狗(鄭國大夫)	晉(姬)	范氏(晉大夫)之女	襄公15
鄭穆公	宋(子)	宋子(子然、子孔을 낳았음)	襄公19
	圭(嬀)	圭嬀(士子孔을 낳았음)	
		姚子(少妃)(子貉、夏姬를 낳았음)	昭公28
公孫楚(鄭穆公之孫)(鄭國下大夫)	鄭(姬)	徐吾犯之妹	昭公元
罕虎(鄭卿大夫)	齊(姜)	子尾氏(齊大夫之女)(齊惠公後代)	昭公5
(鄭穆公曾孫)			
駟偃(鄭國卿)	晉(姬)	晉大夫之女(絲를 낳았음)	昭公19
鄭晉聯姻	晉(姬)		『史記·鄭世家』
鄭晉聯姻	晉(姬)		『史記·鄭世家』

## 宋國(子)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蕩氏	魯(姬)	伯姬	僖公25
宋桓公	衛(姬)	衛文公妹(夫人)(宋襄公을 낳았음)	『史記·宋微子世家』
宋襄公	周(姬)	宋襄夫人王姬(周襄王之姐) (派人殺昭公, 立情夫公子鮑為宋文公)	文公8、16
宋共公	魯(姬)582	宋共姬(原為伯姬, 魯宣公女)	成公8、9
	衛(姬)583	媵 共姬	
	晉(姬)582	晉人來媵	成公9
	齊(姬)581	齊人來媵	成公10
宋元公	小邾(曹)	宋元夫人(宋景公、嬀(嫁魯季平子)을 낳았음)	昭公25
宋成公	魯(姬)	魯女	『公羊傳·僖公25』

## 衛國(姬)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衛莊公	齊(姜)	莊姜(太子之妹)(齊莊公女)(美而無子)	隱公3
	陳(嬀)	厲嬀(孝伯을 낳았음)	
		戴嬀(娣)(衛桓公을 낳았음, 作莊姜之子)	
衛莊公	(姜)	夷姜(姬妾) 左媵(生洩을 낳았음) 右媵(生職을 낳았음)	桓公16
衛宣公(莊公子)		夷姜(私通)(急子를 낳았음)	桓公16
衛宣公(本為公子伋娶, 後自娶)	齊(姜)	宣姜(齊僖公女, 齊襄公、桓公之妹)(壽、朔(衛惠公)을 낳았음)	『列女傳·貞順傳』
衛昭伯(公子頑)(衛宣公幼子, 公子伋之弟)		宣姜(同上)(公子頑과 私通했음) (齊子、戴公、文公、宋桓夫人、許穆夫人을 낳았음)	閔公2
衛定公	(妣)	敬妣(姜)(衛獻公을 낳았음)(襄公26)	成公14
	(姜)	姜氏(定姜)(夫人)(襄公10)	
衛襄公	(姜)	宣姜(夫人, 與衛昭伯妻宣姜非同一人)(無子) (襄公의 子 公子 朝와 私通했음, 昭公20)	昭公7
		嬀嬀(姬妾)(孟縶、元(衛靈公)을 낳았음)	
衛靈公	宋(子)	南子(宋國公主)	定公14
太叔疾	宋(子)	子朝(宋國公族)之女	哀公11
(衛國公族)		子朝之女의 娣(媵)	
	衛(姬)	孔姑(孔文子(孔圉, 衛大夫)之女)	
遺(太叔疾之弟)			
太叔懿子	晉(姬)	晉悼公孫女(愁女)(悼子世叔齊를 낳았음)	哀公15
孔圉(孔文子)	衛(姬)	孔姬(伯姬, 哀公16)(衛靈公女, 太子蒯聵之姐) (仆 渾良夫와 私通했음)(孔悝를 낳았음)	
(衛大夫)			
衛莊公	(姜)	呂姜	哀公17
衛出公		夏戊之女(夫人)	哀公25

## 晉國(姬)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晉穆侯	(姜)	姜氏(夫人)(太子 仇、成師를 낳았음)	桓公2
晉獻公	賈(姬)	賈女(無子)	莊公28
	齊(姜)	齊姜(齊桓公女)(私通) (秦穆夫人(穆姬)、申生을 낳았음)	
	戎(狐姬姬姓)	狐姬(狐季姬)(晉大夫狐突之女, 姐)	
	(小戎子允姓)	(晉文公을 낳았음)	

		小戎子(妹)(晉惠公을 낳았음)	
	驪戎(姬)	驪姬(姐)(奚齊를 낳았음)(麗姬, 宣公2)	
		(妹)(卓子를 낳았음)	
晉惠公	賈(姬)	賈君(惠公之父晉獻公夫人)(私通)	僖公15
	梁(嬴)	梁嬴(梁國君梁侯之女)(晉懷公 圉、女兒 妾을 낳았음)(妾在秦國作侍女：妾為宦女焉)	僖公17
太子圉(晉懷公)	秦(嬴)	懷嬴(夫人)(秦穆公女)	僖公17
公子重耳 (晉文公)	狄(隗)	季隗(妹)(伯儵、叔劉를 낳았음)	僖公23
	齊(姜)	齊姜(齊桓公宗女)	
	秦(嬴)	秦女1文嬴(夫人)(公子 樂을 낳았음)	
		秦女2(媵)	
		秦女3(媵)	
		秦女4(媵)	
		秦女5(媵)懷嬴(辰嬴) (秦穆公女, 嫁晉懷公、文公)	
趙衰(晉文公大夫) (嬴姓趙氏)	狄(隗)	叔隗(姐)(盾을 낳았음)	僖公24
	晉(姬)	趙姬(晉文公女)(原同、屏括、樓嬰을 낳았음)	
晉文公	逼(嬖)	逼姑	文公6
	杜(祁)	杜祁	
	周(姬)	王姬(周王室孫女)(晉成公을 낳았음)	宣公2
穿(趙盾旁支子弟) (趙盾, 晉國正卿)	晉(姬)	晉國君之女	文公12
趙嬰(晉大夫)	晉(姬)	趙莊姬(晉成公女, 晉景公姐妹)	成公4
晉景公	齊(姜)	齊女	成公5
卻驪(晉卿大夫)	齊(姜)	聲伯妹(管于奚之女)(子 2명를 낳았음)	成公11
欒桓子(晉大夫)	晉(姬)	欒祁(范宣子(晉國卿, 祁姓)之女) (家臣 州賓과 私通했음)(懷子를 낳았음)	襄公21
晉悼公	杞(妣)	晉悼夫人(杞桓公女, 杞孝公姐妹)	襄公23、 29
		(晉平公을 낳았음)	
晉平公	衛(姬)	衛姬(平公妾)	襄公26
	(姬)	姬姓姬妾4人	昭公元
	齊(姜)	少姜(少齊)(齊靈公女)(非伉儷也) (齊景公為討好晉國)	昭公2
		齊女(少姜繼室)(齊國卿大夫公孫蚤之女)	昭公3
	齊(姜)	齊女	昭公9
叔魚(羊舌鮒)(晉大夫)	邢(姬)	雍子之女	昭公14
叔向(羊舌肸) (晉大夫)	楚(芊)	申公巫臣(楚國公族)之女	昭公28
		(羊舌食我를 낳았음)	
荀寅(晉六卿之一)之子	晉(姬)	范吉射(晉六卿之一)之女	定公13
公子慙(晉悼公之子)	衛(姬)	太叔懿子之女(太叔悼子(世叔齊)를 낳았음)	哀公11



## 楚國(半)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楚武王	鄧(曼)	鄧曼(夫人)(與鄭莊公妻鄧曼非同一人)(國君鄧侯女)	桓公13, 莊公4
楚武王	廬(嬀)	荊嬀	『國語·周語』
楚文王	陳(嬀)	息嬀(原為息侯夫人)(堵敖、成王을 낳았음)	莊公14
	申(姜)	申侯(楚文王大臣), 申出也→楚申通婚	僖公7
楚文王	魯(姬)	魯女	『史記·楚世家』
	衛(姬)	狐偃曰:“楚始得曹而新昏於衛”	僖公27
若敖·熊儀	鄧(嬴)	鬬伯比를 낳았음	宣公4
鬬伯比	鄧(嬴)	(鄧子之女)(私通)(子文(鬬穀於菟)(楚令尹)을 낳았음)	
巫臣(原楚莊王大夫, 後輔佐晉景公)	鄭(姬)	夏姬(鄭穆公女, 鄭襄公姐妹) (1. 先嫁於陳大夫御叔)(2. 為楚所俘後嫁連尹襄老) (3. 申公巫臣娶以奔鄭)	宣公9 成公2、7 昭公28
楚成王	衛(姬)	衛女	『史記·晉世家』
楚成王	鄭(姬)	鄭文公女(先為媵, 後為夫人)	『史記·鄭世家』
楚成王	秦(嬴)	秦女	『列女傳·節義傳』
楚莊王	鄭(姬)	鄭姬	『史記·楚世家』
楚莊王	越(妣)	越女	『史記·楚世家』
楚共王	秦(嬴)	秦嬴(秦景公妹)	襄公12
	巴(姬)	巴姬(妾)(楚平王을 낳았음)	昭公13
伍舉(椒舉) (楚莊右司馬)	楚(半)	王子牟(楚國公子, 又稱申公子牟)之女	襄公26
公子圍	鄭(姬)	鄭女(公孫段(鄭穆公之孫, 鄭國卿)之女) (豐氏之女)	昭公元
楚靈王	晉(姬)	(晉平公女)(昭公5)	昭公4
楚平王	蔡(姬)	鄧陽(蔡國邑)封人之女(太子建를 낳았음)	昭公19
	秦(嬴)	嬴氏(伯嬴)(姬妾)(壬(楚昭王), 季半를 낳았음)	
鐘建(楚樂尹)	楚(半)	季半(楚平王女, 昭王同母妹)	定公5
楚昭王	越(妣)	昭夫人(越王勾踐之女)(楚惠王을 낳았음)	哀公16
楚昭王	齊(姜)	貞姜(齊侯女)	『列女傳·貞順傳』
楚昭王	蔡(姬)	蔡姬	『列女傳·節義傳』

## 鄧國(妣)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鄧子	魯(姬)	鄧季姬(僖公女)	僖公14、15

## 紀國(姜)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國君	魯(姬)	紀伯姬(魯惠公女, 隱公姐妹) 叔姬(伯姬妹)(叔姬未隨伯姬同行是因其時年尚幼之故.)	隱公2 隱公7

## 陳國(媯)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蔡(姬)	蔡哀侯	陳(媯)	(姐)(嫡出)	莊公10
息(姬)	息侯		息媯(陳莊公女)(妹)(嫡出)	
陳(媯)	敬仲	陳(媯)	懿氏之女	莊公22
	陳桓公	蔡(姬)	蔡女(陳厲公을 낳았음)	
陳(媯)	夏御叔(陳國公孫, 陳宣公之孫)	鄭(姬)	夏姬(鄭穆公女) (陳靈公、大夫孔寧、大夫儀行父與夏姬通姦)	宣公9
陳(媯)	陳哀公	鄭(姬)	鄭姬(夫人, 元妃)(悼太子偃師를 낳았음) (『史記』「陳杞世家」: 哀公娶鄭, 長姬生悼太子師, /少姬生偃; //長妾生留, /少妾生勝.)	昭公8
			(二妃)(公子留를 낳았음)	
			(下妃)(公子勝을 낳았음)	

## 弦國(嬴/隗)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弦(嬴/隗)	江(嬴) 黃(嬴姓黃氏) 道(姬) 柏(?)	江、黃、道、柏方睦於齊, 皆弦姻也。	僖公5(BC655)

## 秦國(嬴)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秦穆公	晉(姬)	秦穆姬(秦穆夫人)(晉獻公女, 太子申生之姐) 晉將虞國大夫井伯(男)作為秦穆姬的陪嫁人(以媵秦穆姬)	僖公5(BC655)

## 邾國(曹)

夫國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邾(曹)	邾文公	齊(姜)	齊姜(元妃)(定公(獵且)을 낳았음)	文公14(BC613)
		晉(姬)	晉姬(二妃)(捷菑를 낳았음)	
邾(曹)	邾莊公	邶(妘)	邶君之女	昭公18(BC524)
小邾(曹)	小邾君	魯(姬)	季公若(魯國卿)之姐(夫人) (宋元公夫人(嫁於小邾國)을 낳았음)	昭公25(BC517)
邾(曹)	邾莊公	齊(姜)	齊女(邾隱公(隱公為齊國外甥)을 낳았음)	哀公10(BC485)
邾(曹)	庶其(邾國大夫)	魯(姬)	魯成公庶妹 魯襄公之姐	襄公21(BC552)

### 潞子國/赤狄部族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潞子嬰兒(潞國國君)	晉(姬)	伯姬(晉成公女, 晉景公姐)(BC594年被晉所滅)	宣公15(BC594)

### 郟國(己)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郟子(國君)	魯(姬)	郟伯姬	宣公16(BC593)

### 杞國(妣)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杞成公	魯(姬)	杞伯姬(魯莊公女)(僖公5、28) (僖公31冬, 杞伯姬來求婦→伯姬為其子來向哥魯僖公求婦)	莊公25(BC669)
杞桓公	魯(姬)	叔姬(杞叔姬)(魯莊公女)(成公4, 5, 8, 9) 且請絕叔姬而無絕昏。杜注: 立其娣以為夫人。 叔姬妹(魯莊公女)	文公12(BC615) 成公8(BC583)
		魯女	『公羊傳·僖公31』
杞桓公	晉(姬)	杞伯向晉請求通婚	成公18(BC573)

### 吳國(姬)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諸樊(추축남)	晉(姬)	(晉平公女)(추축남)	襄公23(BC550)
(國君)	齊(姜)	媵 ‘齊侯使析歸父媵之。’	
夫差	越(姒)	西施	『吳越春秋·勾踐陰謀外傳』
夫差	越(姒)	鄭旦	『吳越春秋·勾踐陰謀外傳』
吳太宰嚭(吳大夫)	越(姒)	美女八人	『國語·越語』『史記·越王勾踐世家』

### 鑄國(任)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魯大夫 臧宣叔之妻(鑄女)의 兄弟	齊(姜)	穆姜之姨(此行關係為推出)	襄公23(BC550)

### 蔡國(姬)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太子般(蔡靈侯)	楚(芊)	楚女(시아머니 蔡景侯와 私通했음)	襄公30(BC543)

## 莒國(己)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莒子(國君)	向(姜)	向姜(後莒滅向)	隱公2(BC721)
慶(莒大夫)	魯(姬)	叔姬(魯莊公女)(慶親自到魯迎娶)	莊公27(BC667)
莒犁比公	齊(姜)	齊女(去疾을 낳았음)	襄公31(BC542)
(國君)	吳(姬)	吳女(展與를 낳았음)	
	鄆(妣)		哀公5(BC490)襄公6(BC567)

## 郕國(妘)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郕子(國君)	宋(子)	向戌(宋大夫)之女(宋桓公重孫女)	昭公19(BC523)

## 徐國(嬴)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國君	吳(姬)	吳女(徐子章禹를 낳았음)	昭公4(BC538)、5、12

## 胡國(姬)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國君	鄭(姬)	鄭武公女 鄭武公慾伐胡，故先以其女妻胡君，以娛其意。	『韓非子·說難』

夫國	夫名	女國	女名/비고	출처
聃(姬)	國君	鄭(姬)	鄭姬(夫人)	『國語·周語』
邢 (邢姬)	國君	齊(姜)	齊莊公女(莊姜姐妹)	『詩經·衛風·碩人』
譚(子)	國君	齊(姜)	齊莊公女(莊姜姐妹)(譚於584年為齊所滅)	
			『碩人』載齊、衛、邢、譚四國連襟	『詩經·衛風·碩人』
許(姜)	許穆公	衛(姬)	許穆夫人(衛昭伯與宣姜之女)	閔公2
黎(黎)	黎莊公	衛(姬)	黎莊夫人(衛侯之女)	『列女傳·貞順傳』
紀(姜)	紀侯	魯(姬)	紀伯姬(魯惠公女)	隱公2
			紀叔姬(媵伯姬)	『穀梁傳·隱公7』
鄆(妣)	鄆子	魯(姬)	鄆季姬(魯僖公女)	僖公15
江(嬴)	國君	楚(半)	江芊(楚成王妹)	文公元

부표3 <春秋青銅媵器表>

\*( )에 있는 번호는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殷周金文集成』의 編碼임.

<>에 있는 번호는 鄒英都, 『楚系銘文綜合研究』의 頁碼임.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賴(姜)	魯(姬)	礪口孟姬	魯大司徒子仲伯(父/庶女)	魯大司徒子仲伯匜(10277)	춘추초기
	魯(姬)	季姬牙	魯大宰原父(父女)	魯大宰原父簋(03987)	춘추초기
	魯(姬)	子孟姬嬰	魯少司寇封孫宅(父女)	魯少司寇封孫宅盤(10154)	춘추
	魯(姬)	仲姬俞	魯伯大父(父女)	魯伯大父簋(03989) 魯伯厚父盤(10086)	춘추초기
	魯(姬)	季姬靖	魯伯大父(父女)	魯伯大父簋(03974)	춘추초기
	魯(姬)	孟姬嬭	魯伯者父(父女)	魯伯者父盤(10087)	춘추초기
	魯(姬)	姬離	魯宰駟父(父女)	魯宰駟父鬲(00707)	춘추초기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西氏	陳(嬖)	西孟嬖嫫母	陳伯元(父女)	陳伯元匜(10267)	춘추초기
麇氏	陳(嬖)	麇孟嬖穀母	陳子(父女)	陳子匜(10279)	춘추초기
畢(姬)	陳(嬖)	畢季嬖	陳侯(父女)	陳侯鬲(00705-00706)	춘추초기
	陳(嬖)	嬖囧母	陳侯(父女)	陳侯鼎(02650)	춘추초기
	陳(嬖)	嬖蘇	陳侯(父女)	陳侯壺(09633-09634)	춘추초기
王(姬)	陳(嬖)	王仲嬖嬭母	陳侯(父女)	陳侯盤(10157) 陳侯匜 陳侯簋(04603-04604)	춘추
	陳(嬖)	孟姜 (異姓女陪嫁)	陳侯 (異姓長輩/異姓女)	陳侯簋(04606-04607)	춘추
淪氏	陳國原氏(嬖)	淪仲嬖家母	原氏仲(父女)	原氏仲簋 原氏仲簋(2건)	춘추초기
	陳(嬖)	叔嬖	陳姬小公子(父女)	陳姬小公子盥(04379)	춘추
陳(嬖)	曹(姬)	孟姬念母	曹公(父女)	曹公盤(10144) 曹公簋(04593)	춘추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紀(姜)	姜無	紀伯寔父(父女)	寔伯盤(10081) 寔伯匜(10211)	춘추
邢(姬)	紀(姜)	紀邢姜嬖母	紀侯(父女)	寔侯殷(『第三屆國際中國古文字學研討會論文集』, p.328)	서주말기~ 춘추초기
	紀(姜)	子叔姜	紀公(父女)	寔公壺(09704)	춘추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蔡(姬)	孟姬有止嬭	蔡叔季之孫(父女)	蔡叔季之孫匱(10284)	춘추
	蔡(姬)	宋姬	蔡侯(父女)	蔡侯鼎(『中國文字』新22)	춘추
	蔡(姬)	孟姬	蔡侯(父女)	蔡侯簋(『中國文字』新22)	춘추
許(姜)	蔡(姬)	許叔姬可母	蔡大師(父女)	蔡大師鼎(02738)	춘추말기
上郡鄆氏(嬭)	蔡(姬)	鄆仲姬丹	蔡侯(父女)	蔡侯盤(20859)	춘추말기
都國允姓				蔡侯匱(20860)	
吳(姬)	蔡(姬)	大孟姬	蔡侯申(父女)	蔡侯申尊(05939,06010) 蔡侯申缶(10004) 蔡侯盤(10171)	춘추말기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豐	宋(子)	豐子	宋眉父(父女)	宋眉父鬲(00682)	춘추초기
吳(姬)	宋(子)	句歆夫人季子	宋公 <del>囙</del> (兄妹)	宋公 <del>囙</del> 簋(04589-04590)	춘추말기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許(姜)	壽母	許大邑魯生(父女)	鄭大邑魯生鼎(02605)	춘추
	許(姜)	孟姜、秦嬴(媵)	許子妝(父女)	鄭子妝簋(04616)	춘추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黃(嬴)	曾(姬)	叔姬、邛嬭(異姓媵)	曾侯(父女)	曾侯簋(04598)	춘추초기
	曾(姬)	孟姬 <del>陰</del>	曾子原魯(父女)	曾子原魯簋(04573)	춘추
邛氏	曾氏女			曾中邛 <del>莊</del> 之且執 (銅鎮墓獸座118)	춘추말기~ 전국초기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내용	시기
邛(嬭)/ 江(嬴)	楚(芊)	邛仲嬭南	楚王 (同姓長輩/ 同姓女)	楚王媵邛仲嬭南鐘(00072) 佳正月初吉丁亥, 楚王(楚成王)媵 邛仲嬭南 <del>蘇</del> 鐘, 其眉壽無疆, 子孫 永寶用之。	춘추早中期之際
	楚(芊)	芊尊	楚季苟 (父女)	楚季苟盤(10125) 楚季苟作嬭尊媵沐盤, 其子子孫孫 永寶用享。	춘추초기초단
曾(姬)	楚(芊)	仲芊璜	楚屈子赤目 (父女)	楚屈子赤目簋蓋(04612) 楚屈子赤目簋	춘추말기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齊(姜)	子仲姜	齊侯(父女)	齊侯盂(10318)	춘추말기
	齊(姜)	寬 <sub>孟</sub> 孟姜	齊侯(父女)	齊侯鼎齊侯敦(04645) 齊侯盤(10159) 齊侯匜(10283)	춘추말기
	齊(姜)	子仲姜□	公子士折(父女)	公子士折壺(09709)	춘추말기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號(姬)	蘇(改)	號改魚母	蘇治妊(母女)	蘇治妊鼎(02526)	춘추초기
	蘇(改)	仲改	蘇公(父女)	蘇公作仲改媵卣 (『夏商周青銅器研究』(東周)上)	춘추초기
號(姬)	蘇(改)	號改魚母	蘇治妊(母女)	蘇治妊盤(10118)	춘추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曾(姬)	黃(嬴)	季嬴	黃季(父女)	黃季鼎(02565)	춘추초기
莒(改)	黃(嬴)	仲嬴□	黃大子伯克(父女)	黃大子伯克盤(10162)	춘추초기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내용	시기
	蔡(姬)	姬安	蔡公子	姬安缶<p.122> 蔡公子作姬安尊 <sub>蔡</sub> □	춘추말기~전국초기
楚(半)	蔡(姬)	蔡姬	王孫 <sub>蔡</sub>	王孫 <sub>蔡</sub> 作蔡姬簋<p.93> 王孫 <sub>蔡</sub> 作蔡姬卣	춘추말기부단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吳(姬)	女子	吳王夫差(父女)	吳王夫差盃(『上海博物館集刊』7)	춘추말기
蔡(姬)	吳(姬)	叔姬寺吁	吳王光(父女)	吳王光鑑(10298-10299) 蔡侯墓殘鐘47片(00224)	춘추말기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	시기
	鑄(妊)	孟妊東母	鑄公(父女)	鑄公簋蓋(04574)	춘추초기
	鑄(妊)	季姜	鑄侯求(異姓長輩/異姓女)	鑄侯求鐘(00047)	춘추

夫国	母国	女名	作器者	器名/내용	시기
楚(半)	(嬴)	楚嬴		楚嬴盤<p.38> 佳王正月初吉庚午, 楚嬴鑄其寶盤, 其萬年子孫永用享。 唯王正月初吉庚午, 楚嬴鑄其匱, 其萬年子孫永用享。(楚嬴匱)	춘추 초기 중단
曾(姬)	楚(半)	孟嬭		曾孟半諫盆<p.47> 曾孟嬭諫作 <del>寶</del> 盆, 其眉壽用之。 (蓋內, 器內의 銘文이 같음)	춘추 중기 早段
楚(半) 楚靈王	晉(姬)	元女	晉平公 (父女)	晉公盆(10342)	춘추

夫國	母國	女名	作器者	器名/내용	시기
	季(姬)	叔姬寺男	季侯(父女)	季侯簠(04561-04562)	춘추 초기
萊(子)	區(改)	子孟改	區君成公 (父女)	區君壺 (09680)	춘추
紀(姜)	干氏(姬)	仲姬客母	干氏叔子(父女)	干氏叔子盤(10131)	춘추 초기
彪氏	毛(姬)	彪氏孟姬	毛叔(父女)	毛叔盤(10145)	춘추 초기
甫氏	姪氏(妣)	甫妣	姪仲(父女)	姪仲簠(04534)	춘추
京氏	芮(姬)	京中氏婦叔姬 (京氏婦叔姬)	芮公(父女)	內公鬲(00743) 內公鬲(00711-00712)	춘추 초기
胙(姬)	邾(曹)	胙曹	邾友父(父女)	邾友父鬲(00717) 邾友父鬲(四件) 邾友父匱(10236)	춘추 초기
邾	崩氏(媿)	成媿	崩奔生(父女)	崩生鼎(02524)	춘추 초기
犀氏	都(嬭)	犀仲嬭義男	都公(父女)	都公簠蓋(04569)	춘추 초기
	萊(嬴)	元妹叔嬴為心	萊伯受(兄妹)	萊伯簠(04599)	춘추
	尋(妣)	仲女子	尋仲(父女)	尋仲盤(10135) 尋仲匱(10266)	춘추 초기
	復(媿)	□子孟姆婦	復公仲若我 (父女)	復公仲媿蓋(04128)	춘추 말기
	費(妣)	孟妣府	費奴父(父女)	弗奴父鼎(02589)	춘추 초기
	慶氏(姜)	子孟姜	慶叔(父女)	慶叔匱(10280)	춘추
	(嬭)	叔嬭	鄭大內史叔上 (父女)	鄭大內史叔上匱(10281)	춘추
	鄧(嬭)	叔曼	鄧子□(父女)	鄧子盤(『漢江考古』1993.4.) 佳正月初吉丁亥, 鄧子與媿叔兵 (?)盥盤, □□無誤, 子子孫永	춘추 중기 晩段



				□□□□。	
	繁氏(妣)	妣	繁伯武君(父女)	繁伯武君鬲(『文物』1991.11.)	서주말기~ 춘추초기
	薛(妊)	叔妊襄	薛侯(父女)	薛侯盤(10133) 薛侯匜(10263)	서주말기~ 춘추초기
	番(己) (主) 上郡(嬭) (媵)	叔嬭、番妃	上郡公(父女)	上郡公簠(「浙川下寺春秋楚墓」) 佳正月初吉丁亥，上郡公擇其吉 金，鑄叔嬭番妃媵簠，其眉壽 萬年無期，子子孫孫永寶用之。	춘추중기
	(妣)	妣	侃孫奎母(母女)	□孫奎母盤(10153)	춘추
	鄆氏(妣)	麗妣	取虢上子商 (父女)	取虢上子商盤(10126) 取虢上子商匜(10253)	춘추
	長氏(嬭)	子孟嬭之母	長子洙臣(父女)	長子洙簠(04625)	춘추말기
				楚屈子赤目簠<p.66> 佳正月初吉丁亥，楚屈子赤目(息 公子朱)媵仲半璜飢簠。	춘추중기 晩段
				王子申盞<p.71> 王子申(楚共王時期；楚平王庶 弟，昭王時公子申)作嘉半盞孟， 其眉壽無期，永寶用之。	춘추중기 晩段
	(姬)			孟 <del>姬</del> 姬浴缶<p.88> 佳正月初吉丁亥，孟 <del>姬</del> 姬(姬 <del>仲</del> 自作器)擇其吉金，自作浴缶，永 保用之。	춘추말기 早段
	(姬)			中姬敦<p.105> 中姬□之盞	춘추말기

## 春秋时期诸侯间婚姻的政治性特征

王硕

首尔大学 东洋历史系 硕士研究生

春秋时期作为周代的一个阶段，上承礼制最严格的西周，后启‘百家争鸣’的战国，是中国特定的历史变革时期。春秋以降，随着王室衰微，诸侯国之间相互征伐，出现了诸侯争霸的局面，周天子‘天下共主’名存实亡。在这一历史过程中，‘礼坏乐崩’之势也在随之加剧，并成为春秋时期最突出的特征之一。在礼制崩坏的过程中，诸侯、卿大夫的僭礼现象变得十分普遍。并且，郡县制开始逐渐代替分封制，宗法制也遭到严重破坏，政权下移，在经济基础和上层建筑等方面都出现了与礼制不相融的局面。然「昏礼者，礼之本也」，所以婚礼自古以来便受到重视，尤其是贵族统治阶级，对婚姻礼仪更是极为讲究。婚姻关系作为一种特定形式的社会关系，对社会活动起着广泛的影响和制约作用。它与宗法伦理紧密相关，在礼制中占有十分重要的地位。因而随着礼制的崩坏，春秋时代婚礼的崩溃和变动也就不可避免。

由于作为其端绪的春秋时代礼制的变动产生于西周王室衰微，诸侯各国提高自身政治地位的过程中，因而诸侯婚礼的研究也就需要在此过程中进行考察。在争霸过程中，各国为了加强本国的势力和自身政治发展的需要，纷纷以与他国联姻的方式来建立政治联盟，进而相互之间缔结起婚姻邦交关系。政治婚姻对维护和巩固宗法制度起到了积极的作用，同时也在一定时期内促进了婚姻国之间的政治稳定和相互交往。春秋诸侯婚姻内容丰富、形式多样，与政治、军事、外交等密切相关，其强而鲜明的政治目的性构成了春秋时代诸侯婚姻的基本特征。诸侯的婚姻为国家政治而服务，它是婚姻国外交策略的一种体现，对婚姻国之间的关系及当时的国际格局产生了重要影响。

既存研究就春秋时期诸侯婚姻的主要特征已做了大量研究并取得了巨大成就。

这些研究涉及时段长、范围广，涵盖了婚姻制度、婚姻形态、婚姻礼俗、婚姻关系等诸多方面。对于我们了解春秋时期各国的基本联姻尚况提供了有效的参考价值。除了对传世文献的研究利用外，越来越多的学者还认识到青铜铭文对研究先秦婚姻的重要性。青铜器作为珍贵的实物资料，弥补了文献史料的不足，对于我们研究先秦婚姻具有重要的参考价值。

此外，既存研究对春秋婚姻的特殊形态——‘媵婚’也极为重视。‘媵婚制’产生于西周，于春秋之世达到鼎盛发展时期，并成为春秋贵族婚姻的最突出特征。‘媵婚制’使联姻范围得以扩大，对加强婚姻国间的关系、巩固军事政治同盟等，都发挥了极为重要的作用，同样具有强烈的政治性特征。所以，对诸侯‘媵婚制’的考察也是本论文瞩目的问题之一。

既存研究从多个方面对先秦婚姻的政治性问题作了相关论述，但仍存在诸多不足之处。尤其是仅仅指出了诸侯婚姻具有政治性这一特征而并未具体明确其婚姻的政治性程度。诸侯国间的政治联姻有时还具有‘礼物’赠送的目的和功能，而作为‘媵’陪嫁的女子更是有‘礼物’的性质特征。此外，质子外交在形式、目的、功能等方面与婚姻外交也有诸多相似性。诸侯嫁女及相互媵送，与赠礼和质子遣送一样，都作为各国交往的媒介，以调节国家关系和本国利益为出发点，在春秋诸侯争霸之世被赋予了强烈的政治性特征。基于此，本文通过对婚姻外交同‘赠礼外交’、‘质子外交’的比较，对当时诸侯婚姻具有何种程度的政治性位相进行了把握。

本文以《春秋》经传为基本史料依据，结合《仪礼》、《周礼》、《礼记》等典籍和青铜媵器铭文，以把握春秋时期诸侯婚姻的政治性程度为基本研究目标和主要内容，对春秋诸侯婚姻的政治性特征进行了探究。论文整体分为两部分，第一部分主要是对春秋时期诸侯婚姻形态的集中研究。第二部分则是以诸侯的婚姻外交同赠礼外交、质子外交的比较为中心来展开的研究。在第一部分中首先对春秋时期贵族层的婚制进行了分析，明确了其婚姻仪式、婚姻对象的选择等问题。第二节对‘媵婚’制进行了集中探究。通过对媵婚制的特徵、媵婚制下诸侯妻妾等级的划分、媵婚对诸侯国关系和国际局势的影响等方面的探讨，全面了解了春秋时期的‘媵婚制’及其政治功能。

在第二部分中，为进一步明确诸侯婚姻所具有的政治性程度，首先对诸侯间婚姻

的特征进行了相关论述,并对当时各国的基本婚姻尚况进行了整理。通过对‘周齐世婚’、‘齐鲁世姻’等一些突出联姻的具体说明展现了当时诸侯婚姻的实际状态。并且也通过对各国联姻的政治目的及意义的分析,进一步明确出诸侯婚姻的政治性特征和功能。第二节通过对赠礼外交性质和礼制、王室与诸侯国及诸侯各国之间赠礼外交情况的分析,明确了赠礼与婚姻两种外交的主要目的都是来调节国家间关系的这一特征。第三节是对质子外交和婚姻外交的相似性与差异性展开的论述。质子外交和婚姻外交都作为春秋时期各国邦交的重要手段,二者在形式、目的和产生的影响等方面具有诸多相似性。通过对二者共性的分析了解了它们在平衡当时的国际关系、降低和抑制国家间战争的发生等方面所产生的积极作用。并且作为两种不同的外交方式,从对二者本质、功能、产生的影响等方面的差异性探讨中明确了各自在春秋邦交中的意义和作用,进而把握了春秋时期诸侯政治婚姻的历史功能和历史意义。

通过本论文的研究,使我们正确了解了春秋时期诸侯的实际婚姻状态和婚姻的政治性特征与时代特征,明确了婚姻外交对于当时国家关系和国际格局的作用和影响,并正确把握了诸侯婚姻的政治性程度,具有重要的学术研究意义。

关键词:春秋,诸侯,政治婚姻,同姓不婚,媵婚,赠礼外交,质子外交

学番:2015-22106